

아르헨티나의 농업 현황과 협력 가능성

최 윤 국 책임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우리 나라와 아르헨티나는 1962년 수교한 이래 1964년 농업이민, 1977년 어업이민을 시작으로 현재 약 3만여명의 교민이 정주하고 있는 나라이며, 아시아 국가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교역 대상국이기도 하다. 1996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에는 우리 나라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기간중 아르헨티나를 방문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에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아르헨티나는 농업분야에 있어서 천혜적인 자원을 지니고 있어 21세기에 잠재적인 생산 대국으로서의 연구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농업 협력 대상국으로서의 가치가 세계적인 농업 관련 기관과 학자들에 의해 인식되고 있는 국가이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우리 나라가 필요로 하는 쌀, 옥수수, 소맥, 대두 등을 비롯하여 각종 과일, 산림, 쇠고기 등에서 세계적인 생산 및 수출 국가이며, 농업분야에 외국의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번에 당연구원에서 늦게나마 해외농업 개발과 관련해서 중남미 농업 연구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 농업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에 소개하게 된 것을 펴 기쁘게 생각한다.

끝으로 아르헨티나 현지 조사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재아르헨티나 한인회와 산타 웨 농장주인 이창호씨께 감사드린다.

199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목적	3
4. 연구 내용과 범위	3

제 2 장 세계 농업과 아르헨티나 농업

1. 세계 농업에서의 아르헨티나 농업 비중	5
2. 아르헨티나의 작물별 세계 시장 통합도	8

제 3 장 아르헨티나 농업의 일반 현황

1. 지리 및 일반 개황	18
2. 경제 개황	35
3. 농업의 경제 · 사회적 의미	38

제 4 장 주요 농업정책의 특징

1. 외국인 투자 여건	42
2. 수출입 규제 완화	43
3. 농업 관련 기관	44

제 5 장 농산물 생산 현황 및 특성

1. 작물 생산의 특징	49
--------------------	----

2. 작물별 생산 현황과 특성	50
3. 작물별 수급 전망.....	74

제 6 장 농산물 교역

1. 농산물의 수출입 비중.....	78
2. 대외 무역	80
3. 권역별 무역	86
4. 한국과의 무역	89

제 7 장 대아르헨티나 농업 분야 협력 가능성

1. 과거의 개발 사례.....	91
2. ‘산타 웨’ 한인농장 모델 연구	106
3. 아르헨티나와의 농업 분야 협력 가능성	118

제 8 장 요약 및 결론	136
---------------------	-----

표 목 차

제 2 장

표 2- 1 세계 총면적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비율, 1993	6
표 2- 2 총인구에 대한 농업 취업인구의 비율, 1994	7
표 2- 3 개도국의 농경지면적과 농지개발 잠재력	8
표 2- 4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 관련 지표	9
표 2- 5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 관련 지표.....	10
표 2- 6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사료 곡물 생산 관련 지표	11
표 2- 7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수수 생산 관련 지표.....	12
표 2- 8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쌀 생산 관련 지표.....	13
표 2- 9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 관련 지표.....	14
표 2-10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축산 규모 비교	16
표 2-11 농업 생산지수의 국제 비교	16

제 3 장

표 3- 1 생산지대별 토지 가격	30
표 3- 2 도농간의 인구 비교, 1990~2025	31
표 3- 3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 · 사회 지표.....	36

제 5 장

표 5- 1 아르헨티나의 쌀 생산 관련 지표	52
표 5- 2 아르헨티나 쌀의 지역별 생산 비교	53
표 5- 3 아르헨티나 벼 품종의 종류 및 특성.....	54

표 5- 4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 관련 지표	58
표 5- 5 지역별 옥수수 생산 관련 지표	59
표 5- 6 옥수수의 국제 수출가 비교	60
표 5- 7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 관련 지표	62
표 5- 8 지역별 밀 생산 관련 지표	63
표 5- 9 밀 수출 가격 비교	64
표 5-10 아르헨티나의 콩 생산 관련 지표	67
표 5-11 콩의 지역별 생산 현황	68
표 5-12 콩의 국제 수출가 비교	69
표 5-13 과실 생산량	70
표 5-14 가축 사육 두수	70
표 5-15 아르헨티나와 주요국의 쇠고기 생산량, 1994	72
표 5-16 주요 작물별 2000년 생산 시나리오	75
표 5-17 쇠고기의 2005년 생산 시나리오	76
표 5-18 아르헨티나의 2000년 작물별 산출, 국내 수요 그리고 수출 여력	77

제 6 장

표 6- 1 농산물의 수출입 규모	79
표 6- 2 아르헨티나 밀(Trigo Pan)의 수출 상대국	81
표 6- 3 아르헨티나 옥수수의 주요 수출 상대국	82
표 6- 4 아르헨티나 수수의 주요 수출 대상국	83
표 6- 5 아르헨티나 대두의 주요 수출 대상국	84
표 6- 6 일본의 가열쇠고기제품 국별 수입 현황, 1995	84
표 6- 7 MERCOSUR의 경제 지표	86
표 6- 8 아르헨티나의 대MERCOSUR 수출 구성비	87
표 6- 9 MERCOSUR의 대동아시아 수출액과 시장 잠식률	88
표 6-10 우리 나라의 대중남미, 대아르헨티나 교역 추이	90

제 7 장

표 7- 1 아르헨티나의 한국 농장 현황.....	93
표 7- 2 한일 양국의 대아르헨티나 해외농업 개발의 경험 비교	100
표 7- 3 한국의 농업 이주자를 위한 교육 내용	102
표 7- 4 삼강평원 연해지방 산타 웨 농장의 농업경영 비교	108
표 7- 5 산타 웨 농장의 기온 분포도	109
표 7- 6 산타 웨 농장의 강우량, 1994.....	109
표 7- 7 산타 웨 농장의 쌀 생산 관련 지표	110
표 7- 8 품종별 쌀 생산 현황과 수확량(조곡 기준, 산타 웨 농장의 시험재배 결과와 현지인 농장 비교).....	111
표 7- 9 산타 웨 농장의 경험에서 산출한 필요 영농장비 (400ha 기준)	113
표 7-10 산타 웨 농장의 기초생산비 내역(400ha 기준)	114
표 7-11 아르헨티나의 지역별 쌀 생산비 비교, 1995	114
표 7-12 자포니카계 쌀 생산비와 수익성 비교	115
표 7-13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쌀의 예상 국내 도착 가격	116
표 7-14 산타 웨 농장의 축산 경영	117
표 7-15 소 사육을 위한 2년간의 지출비	118
표 7-16 아르헨티나의 농지가	130
표 7-17 아르헨티나의 주요 곡물 생산비 및 수익성 비교	130
표 7-18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옥수수 생산비 및 수익성 비교	131
표 7-19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콩 생산비 및 수익성 비교	132

그 립 목 차

제 3 장

그림 3-1 아르헨티나의 지역별 무상 일수 분포.....	20
그림 3-2 아르헨티나의 지역별 연평균 기온 분포.....	21
그림 3-3 아르헨티나의 지역별 강수량 분포	22
그림 3-4 작물별 생산 지대 구분	26
그림 3-5 농장 및 목장의 규모와 분포도.....	34

제 4 장

그림 4-1 INTA의 지역중앙위원회 분포.....	46
------------------------------	----

제 5 장

그림 5-1 아르헨티나의 쌀 생산 지도	51
그림 5-2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 지도	57
그림 5-3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 지도	61
그림 5-4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 지도	6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세계 식량수급의 불안정요인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식량안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인구 및 소득의 변화, 도시화율 등의 수요 요인과 식부면적, 기술수준, 기상여건 등의 공급 요인간의 불안정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수급상의 불안정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식량안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술진보로 인한 단수의 증가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 왔으나 점차 식량 자급율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식부면적의 감소, 주변국의 곡물 수입 급증 혹은 수출 제한, 통일 대비 식량안보 개념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와는 차별된 식량안보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광대한 면적에 다양한 농작물이 오랜 역사를 갖고 경작되고 있는 지역이나 우리에게는 지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게만 느껴져 온 미지의 대륙이다. 그러나 향후 기회의 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하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에 해당하는 277만 Km²의 영토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3대 곡창지대의 하나인 '팜파스(영국과 이탈리아를 합한 넓이보다 큰 약 60만 Km²에 달함)' 대평원을 중심으로 폭넓은 지역이 온대 기후권에 속해 있어 현재도 곡물 순수출국이나 향후 세계 식량공급국으로서의 잠재력이 더 크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우리 나라는 향후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의 다변화, 생산시기 조절로 국내 농업과의 상호 보완적 역할, 그리고 세계 농업발전에의 협력 차원에서 대아르헨티나 농업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더욱이 UR 이후 세계 농업은 빠르게 무역자유화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호주 등과 더불어 '케언스 그룹'에 속해 있어 향후 주요 수출국으로 신장될 것을 대비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또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약 3만여명에 달하는 교민이 있고 또 사회적 신분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1.5세 내지 2세대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며, 우리의 과거 농업 이민과 농장 개발이 시작되어진 곳이기에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대아르헨티나 연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산품 교역, 문학 그리고 정치 위주의 분야에 치우쳐 농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의 내용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아 미약한 수준이며, 주로 대아르헨티나 이민을 염두에 둔 연구가 대다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1994년에 농림수산정보센터 부설 해외농업연구

원이 펴낸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의 농산물 교역증대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아르헨티나의 농업을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다.

몇몇 대기업이 아르헨티나 농지 개발뿐만 아니라 농업협력방안도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은 아르헨티나 농업에 대한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3. 연구목적

연구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초로 우선 세계 농업에서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농업의 비중을 검토해 봄으로써 아르헨티나 농업의 실체를 인식해 보고자 하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더불어 21세기 초 EU 15개국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합의된 MERCOSUR(남미남부공동시장)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농업의 일반 현황, 주요 농업정책, 작물별 수급 및 교역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다 구체적인 협력증대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세계 무대로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4. 연구 내용과 범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세계 농업과 아르헨티나 농업을 비교하고, 또한 작물별 아르헨티나의 세계시장 통합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아르헨티나 농업의 일반 현황을 생산지대, 경제 개황, 농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연구한다. 제4장에서는 주요 수출입정책, 외국인 투자 여건, 농업발전을 위한 관련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임무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작물별로 수급 현황과 지리적인 분포 그리고

작물이 갖는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농산물의 수출입을 대외교역, 권역별교역, 한국과의 교역을 살펴 본다. 마지막 제8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과거 대아르헨티나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쌀 재배에 특화하고 있는 우리의 산타 웨농장을 모델로 개발 내지 협력의 가능성을 연구함으로써 아르헨티나와의 협력 가능성을 도출해 내고 있다.

향후 연구범위가 확대된다면 양국간 농업 부문에 있어서의 협력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제 2 장

세계 농업과 아르헨티나 농업

1. 세계 농업에서의 아르헨티나 농업 비중

아르헨티나의 농업은 세계 경제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또한 주요농산물의 국제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발전 일로에 있는 경제전반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농업 부문의 개선은 경제 안정과 개혁을 건설히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호기를 과거의 경우에서 처럼 단기적인 정치적 기회로 인식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증가한 수입원은 소비보다는 가장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가 되어 다양한 연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의 1994년도 곡물 및 가축 생산은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1.8% 증가한 것에 불과해 여전히 식량과 농업 생산이 부진한 해였다.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주도하였다.

1994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19억 5,300만 톤을 상회하였다. 이는 1993년의 저조한 수확량과 비교해 3%가 증가한 것이고, 지난 5년간의

표 2-1 세계 총면적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비율, 1993

단위: 1,000ha

항 목	세계(A)	남미(B)	B/A	아르헨티나(C)	C/B
토지총면적	13,422,362	1,781,870	13.3	276,689	15.5
경지	1,342,826	89,266	6.7	25,000F	28.1
영년생작물	104,683	13,501	13.3	2,200F	16.3
영구초지	3,361,733	495,251	14.8	142,000F	28.7
임지	4,179,808	846,380	20.3	50,900F	6.0
기타	4,368,203	308,227	7.1	53,569F	17.4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 Vol.48, 1994.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1995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약 3억 1,100만 톤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저수준의 재고량은 FAO가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설정한 수준의 최하위인 17%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는 세계 농업이라는 범주에서 아르헨티나 농업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미의 국토면적은 세계 총면적의 13.3%를 점유한다. 반면에 경지 면적은 6.7%에 불과해 향후 상당한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대륙이라 할 수 있다. 영년생 작물과 영구 초지는 각각 13.3%와 1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임지는 20.3%나 차지하고 있다.

남미와 아르헨티나를 비교해 보면 아르헨티나의 국토면적은 277만 km²으로 세계 8위, 남미에서는 851만 km²의 브라질에 이어 2위에 랭크되어 있다. 국토 면적은 남미의 15.6%, 경지 면적은 28.1%로 상대적으로 국토 면적에 비해 경지면적이 크다. 영년생 작물의 경우 14.3%, 영구 초지는 28.7%; 임지는 6%의 점유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지 면적은 국토의 9%를 차지하고 있어 브라질의 5%보다 훨씬 크다. 경지 면적과 영년 작물 및 목초지를 합한 농용지 면적은

표 2-2 총인구에 대한 농업 취업인구의 비율, 1994

단위: 1,000명

지역	총인구	농업인구	경제활동 인구(A)	농업취업자 인구(B)	B/A
세계	5,630,240	2,443,074	2,517,878	1,126,665	44.7
남미	314,465	67,265	113,449	23,875	21.0
아르헨티나	34,182	3,225	12,230	1,148	9.4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 Vol.48, 1994.

국토의 61%를 점하고 있어 농업국으로서의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림 면적은 육지 면적의 18.5%로 57.7%의 브라질에 비해 크게 낮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지 면적 추이를 보면 1978년도와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농업을 확대하여 온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농업 취업자의 비율을 보면 9.4%로 남미의 평균인 21%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결국 풍부한 토지자원뿐만 아니라 기후조건이 좋은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총인구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경지면적이 광대한 국가에서 농업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농기계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농업 전반에 걸친 1인당 성장지수는 남미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1979~81년의 생산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1994년 농업 전체의 1인당 생산지수는 남미 평균이 106.53, 아르헨티나는 99.48에 불과했다. 곡물의 경우는 남미가 101.80, 아르헨티나가 90.34, 그리고 축산의 경우는 남미가 107.06, 아르헨티나가 87.81에 불과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에서는 개도국지역의 농지면적과 농지개발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향후 남미 대륙의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개발 잠재력은 온대기후권에 광활한 옥토를 보유한

표 2-3 개도국의 농경지면적과 농지개발 잠재력

단위: 백만ha

구 분	아프리카	서남아	동남아	중앙아	남미	중미	계
잠재경작지	789	48	297	127	819	75	2,175
기경지	168	69	274	113	124	36	784
미경지	621	0	23	14	695	39	1,392

자료: 정연태, “세계 식량사정과 해외농업 개척방향,” 인구와 지도, 166호, 1995. 10.

아르헨티나가 주도해 나갈 것이다.

현재는 인구밀도가 낮고 경지의 이용이 조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향후 팜파스를 중심으로 또한 북부의 파라나(Paraná)강과 우루과이(Uruguay) 강 유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보다 집약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된다.

2. 아르헨티나의 작물별 세계 시장 통합도

여기에서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산물의 수급, 수확면적, 단수, 수출규모를 세계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2.1. 밀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관련지표를 세계와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면적에서는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에 이어 세계 5위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량에 있어서도 역시 5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나 수출국으로는 미국, 호주에 이어 세계 3위에 랭크되어 해당 곡물 생산의 반(세계 수출량의 약 3.8%)이 수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 관련 지표

국별	생산면적 (백만 ha)		단수 (kg/ha)		생산 (백만 톤)		주요수출국		소비 (백만 톤)		재고 (백만 톤)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세계	198.6	217.6	2,616	2,460	519.5	534.5	111.0	112.3	551.6	550.8	118.2	99.6
아프리카	7.9	7.8	1,900	1,620	15.1	12.7			33.4	33.3	4.8	2.7
북미&중미	36.8	-	2,446	-	89.9	-			-	-	-	-
미국	24.9	24.7	2,531	2,410	63.1	59.5	32.3	35.4	35.0	31.4	13.8	8.3
멕시코	0.95	0.85	4,210	4,240	4.0	3.6			5.3	4.73	0.45	0.48
남미	7.3	-	1,856	-	13.6	-	-	-	-	-	-	-
아르헨	4.8	4.5	1,940	1,910	9.2	8.6	5.6	4.3	4.3	4.3	0.15	0.15
브라질	1.5	1.03	1,407	1,460	2.1	1.5			8.3	7.9	0.86	0.46
아시아	65.6	65.7	2,740	2,850	179.5	187.4			213.4	219.2	38.6	41.5
중국	29.0	28.9	3,430	3,460	99.3	100.0			110.5	113.0	21.7	21.7
유럽	52.2	-	3,357	-	175.3	-	17.5 (EU)	-	-	-	-	-
스페인	2.0	1.8	2,196	1,390	4.4	2.5			5.5	6.4	0.13	0.13
러시아	22.2	23.0	1,450	1,310	32.1	30.1			42.6	40.1	7.4	2.1
호주	8.0	9.85	1,110	1,690	8.9	16.6	6.3	13.0	3.9	4.0	2.4	2.0
기타							캐나다 (20.5)					

자료: FAO-Anuarios de Producción y Comercio; FAO-Boletines cuatrimestrales de Estadísticas; USDA; PS&D.

2.2. 옥수수

옥수수의 경우 생산면적을 보면 아르헨티나는 미국, 중국, 루마니아,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세계 6위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량의 규모로 보면 1,050만 톤의 옥수수를 생산하여 미국, 중국,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에 이어 6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에 있어서는 미국에 이어 2위(세계 총수출의 6.9%)의 수출국이다.

표 2-5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 관련 지표

국별	생산면적 (백만 ha)		단수 (kg/ha)		생산 (백만 톤)		주요수출국		소비 (백만 톤)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세계 133.0	131.6	4,183	3,810	556.2	501.9	72.2	77.1	537.1	537.5	91.6	
아프리카	21.5	22.4	1,440	1,770	30.9	39.6			39.2	41.5	2.83
북미&중미	39.2		6,670		261.3						
미국	29.5	26.3	8,700	7,120	256.6	187.3	55.3	57.2	183.6	160.8	39.6
멕시코	8.0	7.5	2,280	2,130	18.2	16.0			21.5	20.8	1.7
남미	18.1		2,628		47.5						
아르헨	2.5	2.65	4,360	3,960	10.9	10.5	6.1	5.3	5.2	5.2	0.5
브라질	14.2	13.6	2,610	2,280	37.0	31.0			36.7	36.5	6.3
아시아	38.8		3,601		139.8						
중국	21.2	22.7	4,690	4,760	99.3	108.0			99.6	108.5	27.5
유럽	13.4		4,550		60.8						
루마니아	3.0	3.13	2,830	3,170	8.5	9.9			8.5	9.0	0.15
스페인	0.34	0.35	6,670	7,140	2.3	2.5			5.1	5.1	0.4
프랑스	1.6	1.7	7,720	7,490	12.6	12.5			7.2	7.0	1.7
기타							남아프리카(3.7)		일본(16.5)		

자료: USDA: PS&D.

2.3. 사료 곡물

1995년 현재 사료 곡물 수출국 가운데 미국은 세계 총수출의 약 63%를 점유하고 있어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도 역시 주요 사료 곡물 수출국으로서 세계 2위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 총생산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1.8% 정도지만 수출의 점유비는 7.3%로 높다. 즉, 아르헨티나는 생산면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캐나다에 이어 4위에 랭크되어 있으나 수출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2-6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사료 곡물 생산 관련 지표

단위: 백만 톤

항목	1994/95	1995/96
수출		
미국	61.81	56.52
유럽 연합	9.8	
아르헨티나	6.02	6.50
캐나다	4.62	5.20
총수출	91.41	89.82
수입		
일본	20.23	20.33
한국	9.62	10.37
대만	6.35	6.27
총수입	91.41	89.82
생산		
미국	285.05	231.34
중국	112.9	115.64
유럽 연합	86.7	89.06
캐나다	23.46	23.38
아르헨티나	13.7	14.35
총생산	865.03	817.94
소비		
미국	211.2	-
중국	114.2	-
러시아	45.1	-
총소비	855.2	-
재고		
미국	44.9	-
합계	129.5	-

자료: USDA.

2.4. 수 수

수수는 현재 아르헨티나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작물이라 생산 면적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낮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미국, 호주에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다. 즉, 아르헨티나의 수수 생산 면적은 인도, 미국, 멕시코, 중국, 호주에 이어 6위, 생산량에 있어서는 미국, 인도, 중국, 멕시코에 이어 5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수출은 세계 총수출의 5.1%를 점유하고 있다.

표 2-7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수수 생산 관련 지표

국별	생산면적 (백만 ha)		단수 (kg/ha)		생산 (백만 톤)		주요수출국		소비 (백만 톤)		재고 (백만 톤)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세계	39.1	38.1	1,380	1,330	53.9	50.7	6.2	5.9	53.7	52.0	4.3	3.0
아프리카	16.8	16.0	830	820	13.9	13.0			13.5	13.4	1.1	0.7
북미&중미	5.3		3,764		20.1							
미국	3.6	3.4	4,570	3,490	16.5	11.7	5.7	4.7	10.2	7.8	1.8	1.02
멕시코	1.1	1.45	2,730	2,900	3.0	4.2			5.6	6.1	0.3	0.3
남미	1.2		3,193		3.8							
아르헨	0.5	0.55	3,530	3,360	1.7	1.9	0.2	0.3	1.5	1.55	0.25	0.25
콜롬비아	0.2	0.18	3,090	3,100	0.6	0.5			0.56	0.54	0.0	0.0
아시아	14.9	14.3	1,000	1,060	15.0	15.2			17.8	17.6	0.7	0.5
중국	1.5	1.4	3,470	3,570	5.2	5.0			5.3	5.0	0.33	0.23
인도	12.8	12.3	720	790	9.2	9.7			9.4	9.7	0.1	0.1
유럽	0.1		4,088		0.6							
프랑스	0.05	0.04	5,600	6,250	0.3	0.25			0.2	0.18	0.242	0.022
호주	0.5	0.65	2,020	2,460	1.02	1.60		0.55	1.00	1.01	0.1	0.1
기타												

자료: USDA; PS&D.

2.5. 쌀

아르헨티나에서 쌀은 주식도 아니고 여하한 공업투입재로도 활용이 없어 여러 생산 관련 지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의 수치는 큰 의미가 없으나 향후 중남미 인접 국가에서의 경제안정화정책이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어 소득의 향상으로 구매력이 증가하면 아르헨티나에서의 쌀 재배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아르헨티나는 이미 쌀 재배에 풍족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던져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8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쌀 생산 관련 지표

국별	생산면적 (백만 ha)		단수 (kg/ha)		생산 (백만 톤)		주요수출국		소비 (백만 톤)		재고 (백만 톤)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세계	145.6	145.6	2,480	2,520	361.0	367.7	15.6	14.9	363.1	367.5	47.8	48.0
아프리카	5.7	5.6	1,390	1,280	7.9	7.2			10.6	10.3	0.66	0.55
북미&중미	1.9											
미국	1.34	1.25	4,880	4,540	6.55	5.68	3.3	2.74	3.26	3.4	1.04	0.8
남미	5.93	5.73	2,623	2,453	12.25	11.3	0.9	0.8	11.9	12.21	2.2	1.7
아르헨	0.18	0.195	3,400	3,080	0.6	0.6	0.35	0.43	0.185	0.19	0.155	0.141
브라질	4.2	4.0	1,740	1,680	7.4	6.7			8.1	8.25	1.35	1.05
콜롬비아	0.42	0.42	2,940	2,860	1.235	1.200			1.28	1.35	0.14	0.085
아시아	130.1	130.6	2,520	2,580	327.6	337.0			323.9	329.9	42.5	43.5
한국	1.102	1.056	4,590	4,450	5.06	4.7	0.15		5.3	5.2	1.05	0.61
중국	30.2	30.7	4,080	4,330	123.15	133.0	0.05	0.2	129.0	131.0	21.0	23.5
인도	42.5	42.3	1,910	1,870	81.3	79.0	4.0	2.5	77.3	79.3	12.7	10.1
일본	2.2	2.1	4,950	4,620	10.9	9.8	0.4	0.2	9.35	9.3	2.02	2.702
EC	0.36	0.35	3,700	3,700	1.34	1.3			1.76	1.77	0.23	0.24
기타							파키스탄(1.2): 태국(4.2):베트남(2.1)	파키스탄(1.3): 태국(4.5):베트남(2.0)				

자료: USDA: PS&D.

현재 아르헨티나의 쌀 생산 면적을 보면 20만 ha 정도로 남미의 콜롬비아(물론 콜롬비아는 쌀을 주식개념으로 삼고 있는 국가지만)보다도 작은 규모를 지니고 있다. 생산 역시 60만톤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은 43만톤으로 남미 쌀 총수출의 50% 정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에서의 쌀 재배는 향후 남미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비례하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6. 대 두

아르헨티나에서의 대두 재배는 국제가의 상승세와 맞물려 상당히 좋다. 생산면적과 생산량에서는 미국, 브라질, 중국에 이어 4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수출은 미국, 브라질에 이어 3위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단수의 경

표 2-9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 관련 지표

국별	생산면적 (백만 ha)		단수 (kg/ha)		생산 (백만 톤)		주요수출국		소비 (백만 톤)		재고 (백만 톤)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세계	62.8	62.4	2,190	1,970	137.3	123.2	31.8	30.9	144.0	128.9	24.4	17.9
아프리카	0.3	0.3	1,240	1,390	0.3	0.4			0.7	0.7	0.056	0.07
북미&중미	25.7		2,565		65.8							
미국	24.6	24.9	2,780	2,350	68.5	58.6	22.8	22.5	42.4	40.2	13.3	8.4
남미	18.2		2,158		39.4							
아르헨	5.7	5.7	2,190	2,160	12.5	12.3	2.6	2.6	9.8	9.8	1.06	0.781
브라질	11.7	11.0	2,220	2,090	25.9	23.0	3.5	3.1	23.0	21.2	2.3	1.9
아시아	15.7		1,295		20.3							
중국	10.0	9.25	1,600	1,510	16.0	14.0			15.8	14.3	1.7	1.3
인도	4.0	4.8	840	930	3.3	4.5			3.2	4.5	0.6	0.6
유럽	1.03		1,623		1.7							
러시아	0.5	0.6	730	670	0.4	0.4			0.48	0.40	0.08	0.09
기타							파라과 이(1.3)					

자료: USDA: PS&D.

우 세계와 비교해 볼 때 여타 작물중 제일 좋다.

〈표 2-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는 대두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기도 하다. 더불어 대두유 역시도 아르헨티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생산은 147만 톤으로 미국의 691만 톤, 브라질의 335만 톤 그리고 EU의 247만 톤에 이어 세계 4위의 대두유 생산국이다. 반면에 수출은 미국, 브라질, EU를 앞질러 138만 톤을 수출함으로써 세계 1위에 랭크되어 있다. 콩가루(Harina de Soja)에서도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생산은 689만 톤으로 미국, 브라질, EU에 이어 세계 4위이며, 수출은 680만 톤 거의 전량을 수출하여 브라질,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7. 기타 작물

또한 아르헨티나는 유지 작물 재배에 힘쏟고 있는 국가이다.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에서 유지 작물들의 -콩, 면화, 땅콩, 해바라기, 유채, 야자, 팜- 재배는 향후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한 인구성장률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식용류와 가공(Harinas Oleaginosas)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에 기인한다.

해바라기 작물의 경우 세계 제1위의 생산 국가이며(385만 톤) 동시에 제1위의 수출국이기도 하다. 더불어 아마(Lino)도 세계 총생산의 약 1/5이 넘는 점유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는 거의 모든 곡물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과일과 유지 작물의 재배와 생산 그리고 수출에 경쟁력을 지닌 국가이며, 향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의 보완만 따르다면 21세기에 가장 막강한 농산물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수출의 제약요소인 항만 시설의 부족, 곡물 저장창고의 부족 그리고 인프라시설에의 투자가 더불어 이루어지면 비약적인 수출 신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8. 축 산

아르헨티나는 축산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국가이다. 도축 두수에 있어서는 세계의 5.6%, 쇠고기 생산은 5.3%의 점유 비율을 보이고 있다. 1996년의 경우 총 생산량의 18.6%가 수출이 되고 있고, 대부분은 국내 소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0 참조).

표 2-10 세계와 아르헨티나의 축산 규모 비교

단위: 천두

	세 계		아 르 헨 티 나	
	1995	1996	1995	1996
도축 두수	215,686.00	220,381.00	12,400.00	12,200
생산	46,230.00	47,166.00	2,540.00	2,480.00
수출	6,833.00	7,028.00	511.00	460.00
소비	45,110.00	45,946.00	2,030.00	2,030.00

자료: INDEC.

끝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는 농업에 있어 천혜적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의 농업 관련 지표들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표 2-11 농업 생산지수의 국제 비교

1979~81=100

	1983	1988	1990	1992	1993	1994
세계	105.51	118.57	125.89	128.80	128.82	129.37
남미	104.6	123.01	126.43	133.77	132.86	139.49
아르헨티나	104.7	110.45	110.93	118.42	111.52	120.96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 Vol. 48, 1994.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미의 농업 생산에 있어서의 성장세는 세계의 평균을 상회하여 왔다. 다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속적으로 농업

의 성장이 세계나 남미의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성장은 여타 농업 관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식료품, 곡물 등의 생산지수가 세계 혹은 남미의 평균치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는 과거 페론정권하에서 지속적이고 부수적인 농업의 역할, 페론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농민의 생산의욕 상실, 전통적 농산물 수출품에 대한 교역조건의 악화, 수입 대체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상대적인 국내 농업의 경시, 농업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정부의 시책 미비, 농업 infra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결여와 이로 인한 경쟁력의 약화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제 3 장

아르헨티나 농업의 일반 현황

1. 지리 및 일반 개황

1. 1. 자연환경

아르헨티나는 중남미¹⁾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 우리 나라와는 지구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먼 나라이다. 국토 면적은 광대하여 한반도의 10.4배인 278만km²에 달한다.

-
- 1) 중남미라 일컫는 지역은 보통 멕시코, 중미 그리고 남미를 포괄한다. 즉 북단으로는 북위 32도의 리오 그란데(Río Grande)로부터 남위 65도의 아르헨티나 최남단까지 약 13,000km에 달하는 광대한 대륙이다. 중남미에는 과거 스페인령 국가뿐만 아니라 포르투갈령, 네델란드령, 프랑스령, 영국령 국가들이 포진해 있어 이들 국가를 총칭하는 표기가 문제시되고 있다. 현재는 라틴 아메리카(Latin América), 이스빠노 아메리카(Hispano América), 수다메리카(Sudamérica), 이베로 아메리카(Ibero América)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그 어느 낱말도 중남미 모든 국가를 지칭하지 못해 향후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 에우린디아(Eurindia) 등의 신조어를 찾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행정구역은 23주 1연방 수도구(부에노스 아이레스), 그리고 1자치구(포클랜드 혹은 말비나스군도)로 나뉘어 있다.

아르헨티나의 지리적 위치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남위 22도로부터 남쪽으로는 세계 최남단주의 수도인 우수아이아(Ushuaia)가 있는 남위 55도까지 약 3,700km에 이른다. 또한 동서로는 브라질 국경의 베르나르도 데 이리고엔(Bernardo de Irigoyen)에서 칠레와의 국경인 안데스 산맥까지 약 1,400km에 이른다. 국경과 접해 있는 국가만도 우루과이,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칠레 모두 5개국에 이른다.

국토의 형태는 북부가 넓고 남부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는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으며, 지세는 칠레와 인접한 안데스 산맥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대평원이며,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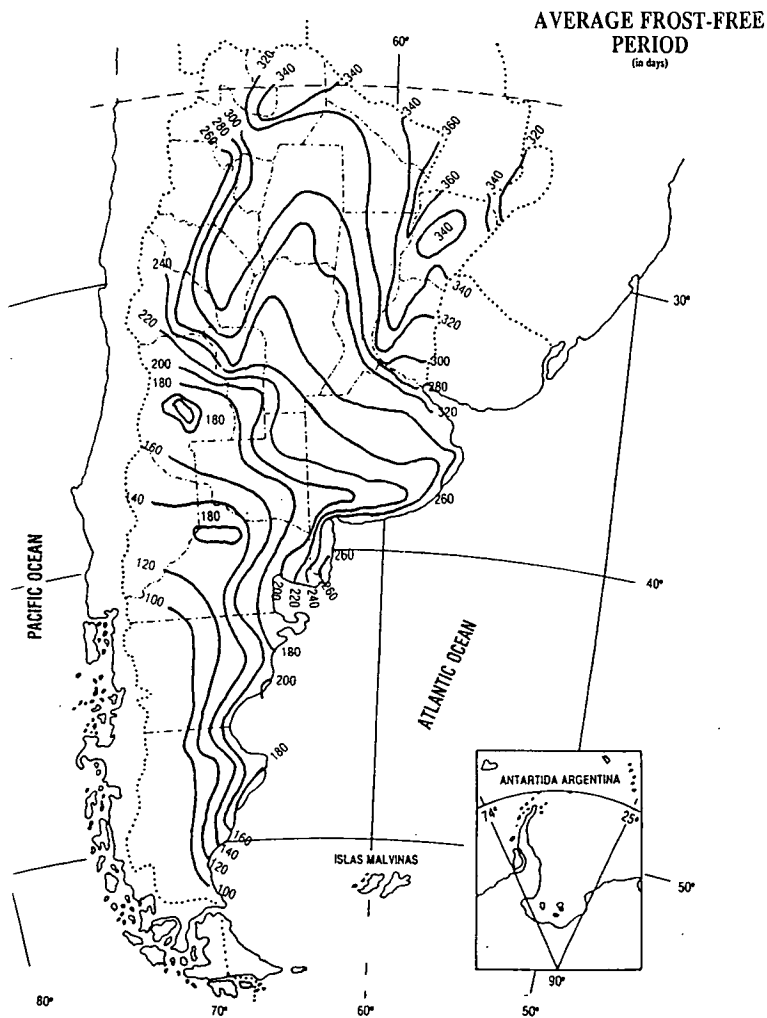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곡창 지대인 팜파스(Pampas)²⁾는 엔뜨레 리오스(Entre Ríos), 산타 페(Santa Fe),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주와 코리엔테스(Corrientes), 코르도바(Córdoba), 라 팜파(La Pampa)주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반경 600여km의 약 60만 km²로 한반도의 약 2.73배의 크기다. 이 곡창지역은 하도 넓어 자동차로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어느 방향을 택하든지 800~900km까지는 끝없이 평탄하게 펼쳐지는 초원뿐이다. 1980년대 말까지 팜파스지역은 인구의 2/3가 정주하고, 국민총생산의 80% 이상을 점유해 온 지역이다.

아르헨티나의 기상 조건을 보면 기온, 일조량, 무상 일수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농경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강수량의 다소에 따라 농경을 결정짓게 된다³⁾.

2) 팜파스 혹은 팜파지역이라 불리는 곡창 지대는 아르헨티나 주의 이름인 La Pampa(라 팜파)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3) 이하 기상 조건 및 농업 생산 지대의 구분 그리고 농업 경영 형태의 소개에서는 농림수산정보센터부설 해외농업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의 농산물 교역 증대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제3집과 (주)한화에서 수집한 자료를 번역·보완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림 3-1 아르헨티나의 지역별 무상 일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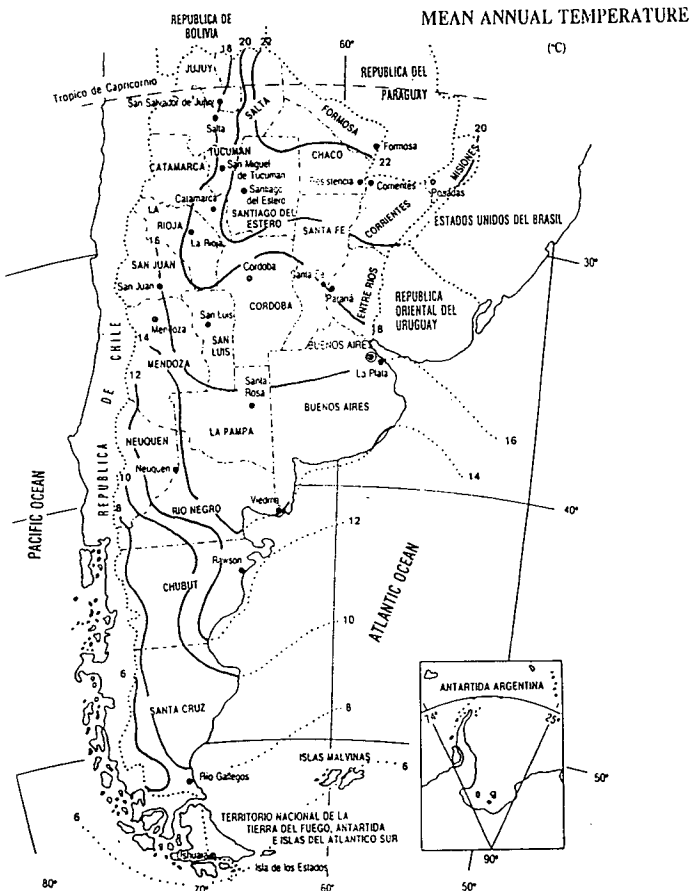


무상 일수에 대해 살펴보면 안데스 산맥의 일부 지역과 파타고니아지역은 무상 일수가 연간 200일 이하이므로 작물 재배에는 다소 제한이 되지

만, 팜파지역은 무상 일수가 연간 200일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전 지역에서 온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무상 일수는 남쪽의 100일에서 북쪽의 360일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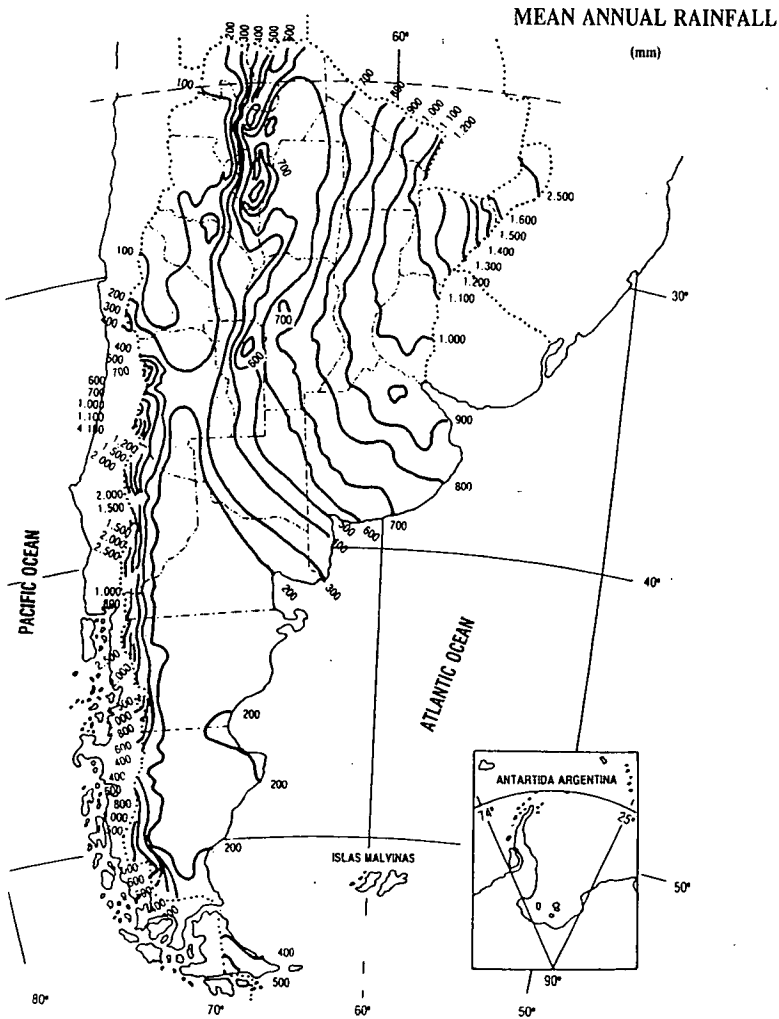
팜파지역은 연간 500mm에서 1,000mm의 강수량에 기온도 연평균 기온이 섭씨 17.0도이며, 여름(1월)은 23.6도 겨울(7월)은 10.2도 정도로 온화해 아르헨티나 농업을 대표한다.

그림 3-2 아르헨티나의 지역별 연평균 기온 분포



그 외의 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6℃(남부의 Tierra del Fuego 과 Malvinas섬)에서 22℃(북부의 Formosa, Salta, Jujuy주)까지 다양한 생산지대가 존재한다. 강수량의 분포 역시 다양하다.

그림 3-3 아르헨티나의 지역별 강수량 분포



국토의 북서부지역(Salta, Jujuy, Catamarca, La Rioja, San Juan주)은 연간 강수량이 100mm에 불과하여 천연 강수량만으로는 농사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안데스 산맥과 인접한 지역(Neuquén, Río Negro, Chubut 주)은 연평균 2,500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한편 브라질 국경에 인접하는 미시오네스주는 강수량이 연간 1,500mm 이상이며, 기온도 높아 농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즉, 강수량은 일반적으로 동부로부터 서부로 향할수록 감소하며, 기온은 북부의 아열대 지역으로부터 남부의 한대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광범위한 팜파스 지역의 기온은 온난한 온대 지역으로 분류된다.

팜파지역의 중심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주의 연간 강수량은 975mm이며, 곡물 재배 중심지인 로사리오(Rosario) 주변의 강수량은 991mm에 달해 이 지역은 곡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밭 곡물의 6할이 연간 강수량이 700mm 이상인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전체 곡물의 75%가 500mm보다 적은 지역에서 주로 밭 곡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불안하고 매년 작황 변동도 심하다.

반면에 아르헨티나의 팜파지역은 강수량도 좋을 뿐더러 토양은 대부분 화산재가 풍화된 소로네츠 또는 소로지화된 소로네츠라는 토양으로 비료 성분 함유율이 높아 곡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이다. 특히, 중앙 팜파지역의 토양은 남미 대륙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인 체르노젠펙이다. 결국 아르헨티나농업이란 바로 팜파지역의 농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2. 농업 생산 지대

아르헨티나의 농업 생산 지대를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분류를 하면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대표할 수 있다.

첫째로 브라질과 국경을 인접한 다우아열대지역이다. 이 지역은 자연 상태로는 키가 큰 잡초들이 무성한 사반나지역이다. 연간 강수량이

2,000mm 정도이며 천연 거목, 침목, 덩굴류가 뒤엉킨 정글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식림 사업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펄프용 나무는 성장성이 좋아 이를 산림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국영제지회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시오네스(Misiones)주가 중심이 되어 외국계 제지 회사들의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오동나무 등이 영세 토지 소유자들에 의해 재배되고 있으며, 이 식림 지대에서 서쪽으로 강수량이 1,000mm 이하인 지역에서는 감귤류와 면화가 재배되고 있다. 더불어 강가의 저지대에서는 봄에 물이 넘고 가을에 물이 빠지는 천연 관개를 이용한 논 농사도 짓고 있다. 그러나 다우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의 이러한 재배 형태는 극히 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삼림 지역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자연림의 형태이다. 사반나 지역 일부에서는 초지도 개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초지를 이용해 더위에 강한 세브 소를 방목하고 있다.

둘째로 다우온대기후지역에서는 토양이 좋아 농목업이 예로부터 발달되어 온 지역이며, 더불어 향후 세계 곡물 수급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를 지닌 지역으로 아르헨티나 농업의 중심을 이루어 오고 있다. 팜파스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되는 소맥, 옥수수, 수수, 대두, 쌀 등 거의 모든 작물이 이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더불어 육우 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삼포식 농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도가 낮아 향후 토지이용도의 향상이 필요하다.

셋째로 안데스 산맥 쪽의 소우온대기후지역이다. 북부 지방은 대부분 가파른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져 위도 상으로는 아열대지역에 속해도 기온은 일교차가 크고 일사량이 많아 온대기후권에 속한다. 그러나 강수량은 500mm 이하임으로 관개시설 없이는 작물 재배가 어려운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강렬한 일사량과 일교차가 심한 기온 하에 농업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부족한 강수량을 위해 예전에는 안데스 산맥의 얼음을 녹

여 썼으나 최근에는 다목적 댐 용수를 이용하는 관개농업이 실시되고 있다.

유명한 멘도사(Mendoza)지방의 선판포도(연간 생산량 약 350만 톤), 뚜꾸만(Tucumán)지방의 사탕수수(연간 생산량 약 1,500만톤)등이 역사적으로 주요 특산물로 재배되고 있다.

그밖에 담배, 감귤류, 옥수수, 수수 등도 재배가 되고 있으며, 관목림과 잡초가 무성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수 ha당 한 마리 정도의 번식용 육우가 방목되고 있을 뿐이다.

끝으로 아르헨티나 남부의 소우한대기후지역을 들 수 있다. 파타고니아 지역은 온도는 물론 강수량이 연간 300mm를 밑도는 곳이 많은데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관개 시설이 없이는 작물 재배가 어렵다. 대부분이 잡초가 무성한 초지여서 2ha당 1마리 정도의 양이 방목되고 있다. 이 지역의 양모는 예로부터 명성이 자자하여 19세기에서 20세기초까지 호주, 캐나다산의 양모와 더불어 세계 양모시장을 지배한 바 있다.

유명한 네우젠, 리오 네그로사과(연간 생산량 100만 톤)는 네그로강물을 대규모로 취수하는 관개 사업을 통해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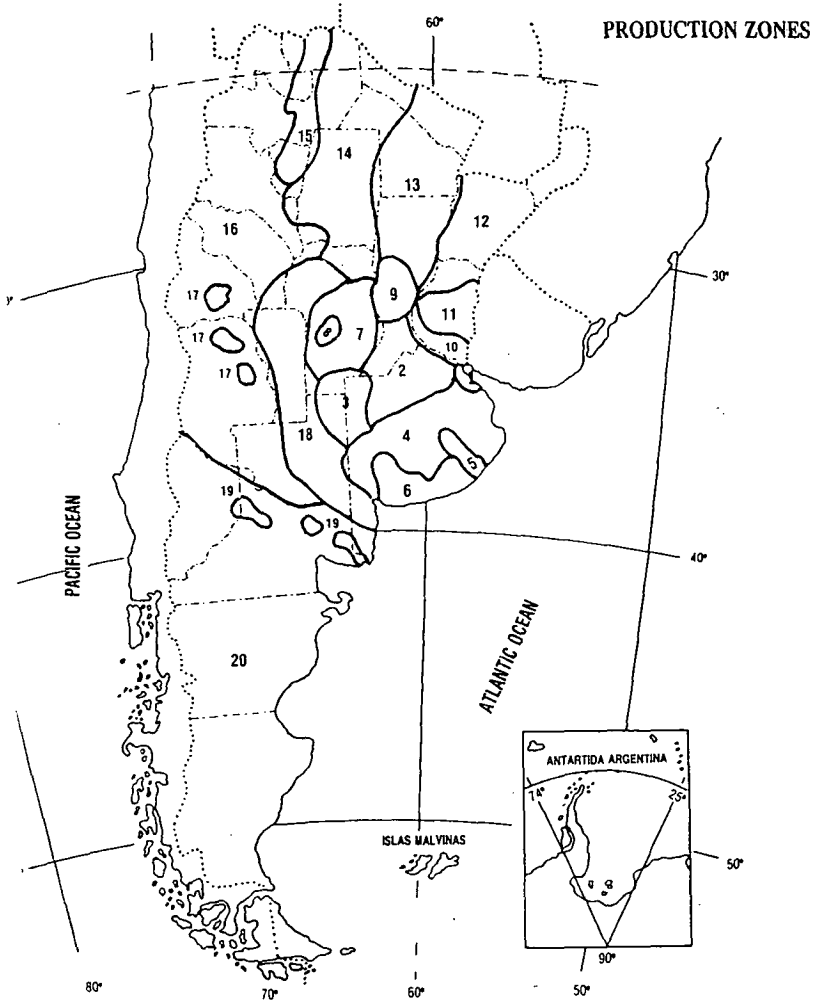
농업 생산 지대를 다시 작물별로 생산 지대를 구별해 보고 농지가를 아울러 살펴보자.

1번 생산 지대는 연평균 강수량이 900~1,200mm이며, 모든 작물이 재배될 수 있으며 아울러 목축업도 발달되어 있다. 즉, 모든 농작물이 가능하며, 이외에 소, 닭, 말의 사육, 낙농, 양어장, 조림, 화훼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번 지대는 지형은 전체적으로 평탄하다. 특히, 옥수수와 대두 생산에 적합한 토질과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옥수수 평균 단수를 보면 ha당 4,000~5,000kg을 기록하고 있다. 몇몇 농장에서는 비료 사용없이 옥수수의 경우 7,000~10,000kg/ha를, 대두의 경우 역시 비료 사용없이 3,000kg/ha를 각각 수확하고 있다.

이외에 이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700~1,000mm(특히 봄과 가을에

그림 3-4 작물별 생산 지대 구분



다소 많이 기록)으로 옥수수과 대두뿐만 아니라 수수, 해바라기, 밀, 귀리, 보리, 감자 등을 재배할 수 있으며, 목우 사육과 낙농이 발달되어 있다.

3번 지대는 농업과 축산업이 어우러져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600~900mm(특히 9월에서 3월까지 3/4이 집중되며, 겨울은 건조함)로 알파파 재배에 적합한 토질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의 중요한 생산물은 밀, 수수(식용 및 사료용), 해바라기, 대

두, 호밀, 옥수수 등이며, 이외에 알파파 초지에서 어린 소를 성우로 사육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4번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500~1,000mm이며, 북동부 지역은 강수량이 비교적 고르지만 남서부는 겨울에 건조한 면이 있다. 이 지역은 다소 농작물 재배에는 한계가 있으나 소나 양의 사육에는 좋은 목초지가 있어 문제가 없다. 이외에 밀, 아마, 해바라기, 호밀, 귀리 등이 재배되고 있다.

5번 지대는 연평균 강수량이 800~1,000mm이며, 토양은 부식토가 풍부해 특히 감자의 단수가 관개없이 그리고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20톤/ha이 생산되며, 관개 시설과 비료를 사용할 경우는 35~50톤/ha도 가능한 지역이다. 이외에 밀, 아마, 귀리, 수수 및 옥수수가 재배되고, 한편으론 축산에 알맞은 지역이기도 하다.

6번 지대는 강수량이 650~800mm이며, 여름에 건조한 경향이 있다. 밀 재배가 지배적인데,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가 1,500~3,000kg/ha에 이른다. 해바라기 생산지로도 유명한데 보통 1,000~1,800kg/ha가 산출되고 있으며, 목우의 사육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귀리와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다.

7번 지대는 강수량이 600~700mm이며, 겨울에 건조하다. 북동 지역에서는 낙농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한편으론 수수,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가 소출되고 있다. 남서부는 성우로의 사육에 알맞은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동부에서 재배되는 작물도 가능하다. 이외에 밀과 귀리 재배도 가능하다.

8번 지대는 강수량이 500~800mm로 겨울에 건조하다. 이 지역은 모래가 많고 가을에 들어서면서 가물기 시작하고, 강수량이 봄의 하반기부터 여름에 안정적인 면을 보여 땅콩 재배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 이외에 옥수수, 수수 그리고 대두가 경작되고 있다. 이 지역은 아르헨티나의 북부와 서부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어 교통의 요지라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9번 지대는 강수량이 800~1,000mm이며 대체로 평탄하다. 이 지역

은 최초의 유럽 이민이 정착한 지역이며, 이들에 의해 수수, 밀, 해바라기, 아마, 대두의 경작이 시작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낙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이외에 쌀 재배에도 적합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산타 페' 농장도 이곳에 속해 있다.

10번 지대는 강수량이 1,000~1,200mm로 고르게 분포된다. 이 지역은 파라나강과 엔뜨레 리오스주의 북부 지역간의 델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종종 범람하기도 하는데 조림(포플러와 버드나무류)에 적합하다. 최근에는 댐을 건설해 범람을 조절, 약간의 농작물, 과수, 원예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외에 목축이 자연초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우로 사육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으로 보내고 있다.

11번 지대는 강수량이 1,000mm이며 연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지형은 평탄하다. 이 지역은 토양이 2번과 9번 지대보다 더 점토로 형성되어 있다. 비록 대부분의 땅에서 관개로 쌀 재배나, 아마, 수수, 밀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전형적으로 소의 사육에 알맞다.

12번 지대는 강수량이 1,000~1,300mm이며, 아열대 기후에 속해 있어 습하다. 이 지역은 귀리, 수수, 대두, 담배, 쌀, 감귤류, 차 및 마테차(Mate) 재배가 가능하다. 북동부(Misiones주와 Corrientes주의 북동부) 지역은 감귤류, 차, 대두, 마테 차, 조림 재배에 적합하며, 특히 Corrientes주의 수도 남쪽의 파라나강 유역은 감귤류 생산에 최적지이다.

13번 지대는 강수량 700~1,300mm이며, 겨울에 건조하다. 아열대성 기후 권이며, 평탄하다. 초목이 형성되어 있고 소의 육종이 가능하며, 특히 케브라초(Quebracho)라고 불리는 나무는 일찍부터 간이 침대와 울타리의 목재로 또한 철로 받침목으로 그 가치가 개발되었다. 북부 지역에서는 면화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외에 사탕수수, 수수, 해바라기가 재배되고 있다. 또한 바나나와 화훼가 재배되고 있다. 이외에도 질이 좋지 않은 밀과 대두가 경작되기도 하나 최근 들어서는 파라과이강과 파라나강의 유역에서 쌀 농사도 크게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14번 지대는 강수량이 400~700mm로 겨울에 건조한 지역이다. 평탄

한 지역으로 나무와 관목이 많은 지역이며, 소와 염소의 육종에 알맞은 지역이다. 비가 풍부한 해에는 수수, 강낭콩, 대두의 수확이 좋다. 또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빨간 색을 띠는 케브라초는 가구의 재목으로 가치가 있으며, 북서 지방에서 채굴되는 석탄은 후후이주의 사플라(Zapla) 용광로에 공급한다. 중앙부에 우리 나라의 농장 앳따마우까가 있다.

15번 지대는 강수량이 400~1,000mm이며, 겨울과 봄에 건조하다. 조림과 석탄 생산으로 유명하다. 여름과 가을에 내리는 강우량을 이용해 산맥 동편의 평탄한 지형에서는 대두, 강낭콩, 옥수수, 그리고 질이 떨어지는 연지(Safflower), 수수, 밀이 재배되고 있다. 관개 시설을 갖춘다면 년 2기작도 가능하다. 특히 야채는 겨울 기간중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꼬르도바, 로사리오 등의 대도시에 공급하고 있다.

16번 지대는 강수량이 100~300mm이며, 건조한 지역이다. 현지인들은 소나 염소를 극히 일부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다. 농작물은 지하수나 수로를 이용한 관개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지역이다.

17번 지대는 강수량이 200~300mm이며, 겨울에 건조하다. 강가를 따라 주로 관개 시설이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토마토, 감자, 마늘, 양파 등이 재배되고 있다. 지하수는 관개를 위해 개발하고 있다.

18번 지대는 강수량이 250~600mm이다. 동편으로 밀, 해바라기, 수수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소의 육종 및 초기 사육이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Colorado강을 이용한 관개로 야채와 과수가 가능하다.

19번 지대는 강수량이 200~300mm에 불과하나 관개 시설과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다. 관개 지역에 사과, 배, 자두, 포도 등의 과수류와 알파파 및 야채류가 생산되고 있다.

20번 지대에서는 강수량이 200~300mm이며,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양의 사육이 예로부터 발달되어 왔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모는 아르헨티나의 가장 중요한 수출재인 동시에 산업으로 발전되어 왔다.

다음은 이들 지역에 대한 ha당 토지 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 생산지대별 토지 가격

단위: 미달러/ha

지대	주요 재배작물	하한가	상한가
1	수도권 지역(Gran Buenos Aires)	2,000	6,000
2	농업: 옥수수, 대두, 수수, 해바라기, 밀, 귀리 등	1,700	4,000
3	농업: 밀, 수수, 대두, 해바라기 등. 소 사육	900	1,500
4	소 육종. 농업: 밀, 아마, 해바라기	350	800
5	농업: 감자, 밀, 귀리, 해바라기, 수수, 옥수수	1,400	2,500
6	농업: 밀, 귀리, 해바라기 등	800	1,700
7	육종 및 낙농. 농업: 밀, 귀리, 수수, 대두, 옥수수, 해바라기	800	1,600
8	농업: 땅콩, 수수, 옥수수	1,000	1,800
9	농업: 밀, 아마, 수수, 쌀 등	1,000	2,000
10	과수, 조립, 사육	80	350
11	농업: 밀, 아마, 귀리, 수수, 옥수수, 쌀, 대두, 육종 및 사육	800	1,500
12	소나 양 육종. 쌀 등 농업	120	600
13	소 육종. 쌀 및 국소지역에서 농업	50	500
14	소 육종	30	150
15	관개농업: 대두, 땅콩, 강남콩, 담배, 채소, 사탕수수	500	1,300
16	염소 및 소 육종	5	50
17	포도, 과일, 채소	1,000	8,000
18	소 육종	80	700
19	과일, 포도, 화훼	1,000	8,000
20	양 육종	10	200

1.3. 인 구

아르헨티나의 인구 구성의 특징은 유럽의 라틴계 백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1853년 국가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1857년에서 1926년 기간 중 약 570만 명의 유럽인이 이주해 온데에 기인한다. 당시의 이민 송출국별 구성은 이탈리아가 47.4%, 스페인이 32.3%에 달하고 있어 이들 두 국가의 구성은 80%에 이르렀다.

1994년의 인구 증가율은 1.2%이며, 인구밀도는 12.4명/Km²,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전국민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이다.

1995년 현재 아르헨티나의 총인구는 3,430만 명이다. 2015년에는 4,350만 명으로, 2025년에는 4,716만 명 그리고 2050년에는 5,45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 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도농간의 인구 비교, 1990~2025

단위: 명

성 별	1990	2000	2010	2020	2025	1990~2025 인구 증가
총인구	32,546,517	36,647,797	40,755,075	44,417,080	46,132,793	13,586,276
여성	16,558,503	18,662,400	20,741,909	22,594,465	23,466,716	6,908,213
남성	15,988,014	17,985,397	20,013,166	21,822,615	22,666,077	6,678,063
도시인구	28,273,208	32,826,193	37,237,373	41,102,040	42,880,854	14,607,646
여성	14,571,478	16,885,738	19,107,441	21,055,782	21,957,800	7,386,322
남성	13,701,730	15,940,455	18,129,932	20,046,258	20,923,054	7,221,324
농촌인구	4,273,309	3,821,604	3,517,702	3,315,040	3,251,939	-1,021,370
여성	1,987,025	1,776,662	1,634,468	1,538,683	1,508,916	-478,109
남성	2,286,284	2,044,942	1,883,234	1,776,357	1,743,023	-543,261

자료: INDEC.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에는 농촌의 인구가 13.1%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촌인구는 해마다 떨어져 2000년에는 10.4%로, 2025년에는 7.5%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이농 현상이 다소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도농간의 경제활동인구는 1990년에 농촌이 전체 경제활동인구(13,095,695명)의 13%(1,704,571명)를 점유하고 있어 총인구 대비율과 별 차이가 없다. 농촌의 경제활동인구 역시 해마다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성별로 보면 특히 남성 인구의 이농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1990년 농촌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1,227,826명인데, 2025년에는 999,132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인구의 주거 지역을 보면 총인구의 47.8%가 수도 및 부에노스 아이레스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산타 페주에 8.6%, 코르도바주에 8.5%, 멘도사주 4.3%, 뚜꾸만 3.5%, 엔뜨레 리오스 3.1% 그리고 꼬리엔페스, 차코, 미시오네스, 살타,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가 각각 2%대의 점유비를 나타내고 있다.

1.4. 농지 소유 현황 및 경영 형태

아르헨티나 농업의 중심인 팜파지역의 일반적인 농업경영형태는 1개의 농장 면적이 500~2,000ha 정도이며, 이 중 1/3에서 곡물을 재배하고 나머지 2/3를 목장으로 이용하는데, 2ha당 1마리 꼴로 육우를 방목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경영 형태를 살펴보면 곡물은 같은 지역에서 3년간 계속 재배하고 지력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곡물을 재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3년째 곡물 수확이 끝나면 그 곳에 소를 입식하여 추수후 남은 지푸라기를 먹인 뒤 목초를 키워 약 6년동안 소를 방목해 지력을 회복시키고 나서 다시 경작지로 활용한다. 그래서 일반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소맥을 제외하고는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약 800만ha의 비옥한 농경지가 대부분인 습윤팜파지역의 농업경영형태를 살펴보면 북부 내지 북서부는 면적이 1,000ha가 넘는 농장은

거의 없고 200~500ha 정도 규모의 중농이 중심이 되어 일정한 윤작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소맥과 대두의 이모작, 옥수수과 소맥 그리고 대두의 2년 3모작 등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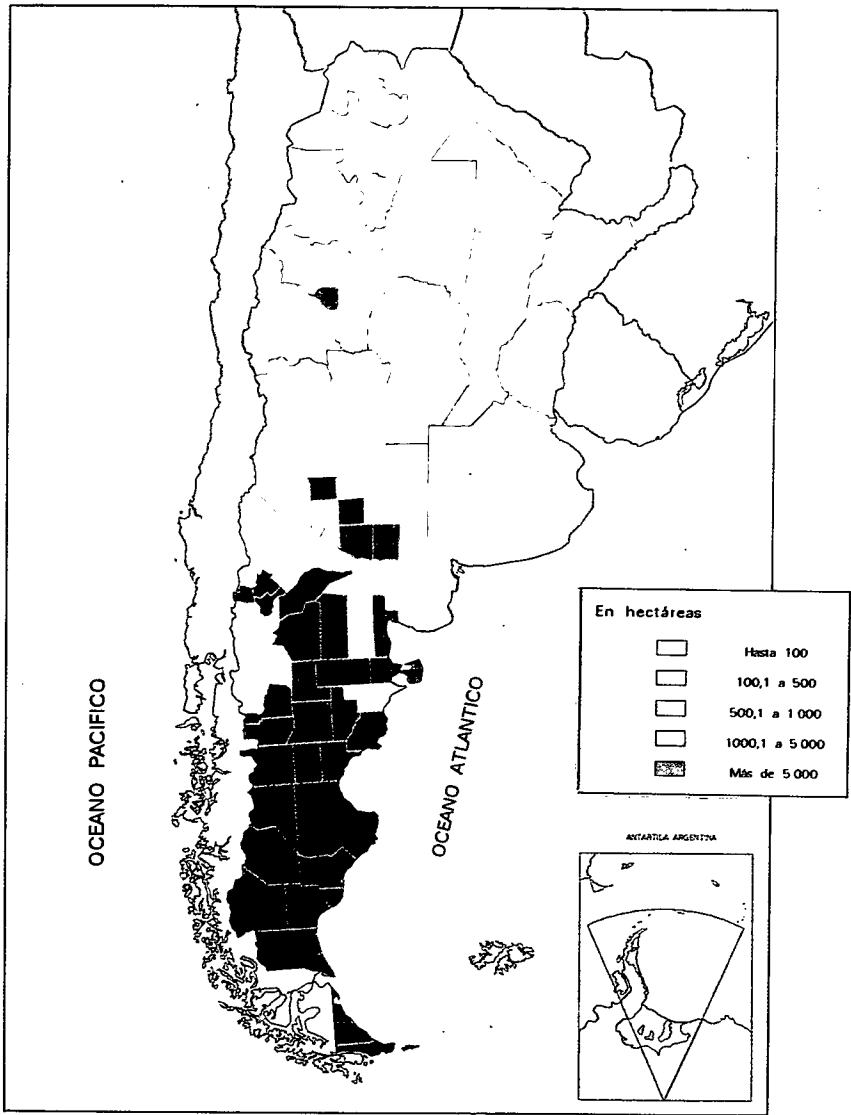
중농 경영에 있어서도 그 소유지를 전부 한꺼번에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지의 1/2 내지 1/3 정도에서만 집약적인 경작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토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방목지로 이용되고 있다.

수도인 Buenos Aires 남서부는 대토지소유형태로 목장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5,000ha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높기 때문에 농장 경영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

지방별 농목장의 분포도를 보면 부에노스 아이레스주가 75,531개의 농장을 가지고 있어 나라 전체(421,221개)의 18.1%를 점유하고 있다. 이외에 꼬르도바주(40,817), 산타 페주(37,029), 멘도사(35,221), 미시오네스(28,566), 엔뜨레 리오스(27,197), 꼬리엔페스(23,218), 차코(21,284),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21,122) 등에 많은 농장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그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 농장 및 목장의 규모와 분포도



자료: 농목센서스, 1988.

〈그림 3-5〉에서 농장의 규모는 작게는 100ha부터 크게는 5,000ha까지의 농장을 표시하고 있다. 대체로 팜파스 이남(라 팜파주 남부, 리오 네그로주

이남)에 5,000ha 이상의 대규모 농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팜파스 지역에는 100~500ha 규모와 500~1,000ha 규모가 공존하고 있다. 100ha 미만의 소농은 안데스 북부와 미시오네스주에서 많이 보인다.

2 경제 개황

아르헨티나 경제는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1980년대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약의 1990년대 시대”를 맞아 개방화, 민영화, 경제의 자율화 등 신경제건설에 진력하여 대내적으로는 안정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굳건히 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각종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잠재력이 높은 시장 규모로 인해 외국인 투자 대상국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1991~95년 기간중 중남미 경제의 활성화를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더불어 주도해 나갔으며, 1991~95년까지의 GDP 누적 변화율은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치 14.9%를 훨씬 뛰어넘는 31.4%로 칠레의 40.7%에 이어 두 번째이다. 1991~94년 평균 7.8%의 고성장을 이루었으나 1995년에는 멕시코의 금융위기⁴⁾가 파급되면서 -2.5%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4) 멕시코의 금융위기는 ‘페소화’ 위기에서 비롯됐다. ‘페소화 위기’는 1994년말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시 살리나스(Salinas)정부의 과도한 자본 자유화 정책과 NAFTA가입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급증에 기인하였다. 초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에 고무되어 외국인 투자는 더욱 급증하였다. 이후 외국인 투자의 유형은 주로 증권 투자의 형태가 두드러졌으며, 그 결과 국내 경제는 흥청거렸고, 인플레이션 압력, 페소화의 평가절상, 수출 경쟁력의 하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1994년 12월 남부의 치아파스(Chiapas)주에서 ‘사파티스타 농민군’의 투쟁이 발생하면서 정정이 불안해 지자, 불안해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 회수를 시작하였고 사태는 급전직하 페소화의 폭락으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멕시코 경제는 이에 따라 1995년 마이너스 6%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는 남미의 경쟁국인 아르헨티나에로의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표 3-3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사회 지표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90	1991	1994	1995	비 고
인구(백만명)	32.3	32.7	33.9	34.3	
GDP	141,598	189,540	279,400	-	
GDP(%)	-0.1	8.9	7.4	-2.5*	91-95: 31.4%
GDP대비 농림수산업	-	7.2% ('93)	-	-	
1인당 GDP	4,521	5,794	8,380	-	
인플레이	1,343.9	84.0	3.9	1.8	89년 4,923.3%
실업율	7.3	5.8	12.1	-	
무역수지	-	-2,428(93년)	-4,041	2,700*	'94 수출154억 수입195억불
경상수지	-	-7,363(93년)	-10,243	-31,185*	
자본수지	-	9,911(93년)	10,867	-400*	
대외채무	60,973	63,700	82,000	84,000*	
1인1일 칼로리 섭취량(kc.)	-	-	2880	-	('92) 한국 3285 세계 2718
1인1일 단백질 섭취량(g.)	-	-	99.3	-	한국 86.4 세계 70.8

* CEPAL 잠정치.

자료: CEPAL, Balance Preliminar de la Economía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1995.

인플레이는 195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에서 보편화 내지 제도화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각국의 안정화 노력으로 진정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고정환율제의 도입(1991년 태환보장법령에 따라 미달러와 페소는 1:1로 교환), 통화 기반을 중앙은행 보유고에 두는 태환법의 발효, 물가 연동제의 폐지 등에 힘입어 1989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4,923.3%에서 1990년 1,343.9%으로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한자리 수인 7.7%를 기록한 이래 1995년에 들어서도 1.8%의 진정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무역수지는 1995년에 들어 약 27억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으로의 수출 증대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출신장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현지화의 가치 절상에 따른 수출 경쟁력의 약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외개방적인 경제 개혁은 더불어 늘어나는 설비 투자 및 소비 수요 등의 수입수요 증대에 따라 경상 수지 적자 폭을 크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자 폭은 1995년 약 3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중남미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르헨티나에로의 자본 유입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경우 1994년에 약 147억달러가 유입되어 멕시코와 더불어 주요 자본 유입국이 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자본 유입의 강세는 현지화의 실질실효환율의 가치 상승을 초래하여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는데 이를 세제 개혁, 구조 개혁, 규제 완화에 따른 생산 효율성 증대로 상쇄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외채 규모는 1995년에 840억달러로 추정되는 바, 이는 GDP의 약 32%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것은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국가중 3위에 랭크되는 규모이다. 따라서 지나친 자본 유입은 현지화의 가치 상승을 부추켜 수출 전략을 제한시키고, 투기성이 강한 자본 유입으로 제2, 제3의 금융 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개인연금제도 등을 통한 국내 저축의 증대와 건전한 장기 자본 유입이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고정환율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바, 농업 분야에서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즉, 소맥과 육류와 같은 핵심 수출 상품의 실질 가격 하락으로 경쟁력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금태환 계획을 도입한 이래 1등급 팜파토지의 가격은 5% 하락했고, 보다 열악한 토지를 포함한 다면 전체적인 토지 가격의 하락 폭은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농업 부채는 총농업생산액의 40%, 즉 50억달러에 이르렀다⁵⁾.

5) The Economist, 26 Nov., 1994.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는 민영화, 탈규제화, 무역자유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o)’ 경제정책이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아르헨티나의 MERCOSUR 가입은 아르헨티나에 농산물 교역 등에서 기대 이상의 무역창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와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한 「1995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종합 순위 29위로 우리 나라의 24위보다 5단계가 낮으나 국제화 부문과 정부의 경쟁력 부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앞서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3 농업의 경제·사회적 의미

아르헨티나에서의 농업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현재에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그 중요도는 그 정도를 더해 갈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1853년 헌법을 제정하고 자국의 자원(농목업)을 개발할 목적으로 헌법 제25조에 이민 유입을 명기하여 국가개발에 시금석을 놓게 되었다. 그러나 1880년 Julio Argentina Roca장군에 의한 국토통일 때까지는 유럽 이민의 유입이 미미하였고, 이후 유럽 이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농축산업에 의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아울러 유럽에서의 산업화는 식료품과 원료에 대한 대규모의 수요를 낳았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요구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넓고 기름진 팜파스에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1차재 특화 수출국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되어 세계경제질서로의 굳건한 통합을 달성하였다. 계속되어진 대규모의 유럽 이민의 유입(1870~1920년 기간중 약 250만 명이 유입되어 아르헨티나 총인구의 31%를 차지함), 증기선과 냉동선으로 대표되는 운송수단의 발달,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자본의 철도, 항만시설에의 투입 등은 결국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아르헨티나의 비율을 3%로 올림으로써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케 하였다.

결국 당시에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농업의 힘이 컸다. 그러나 이후 1929년의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농업위주의 수출경제는 경제발전의 주도적 지위를 상실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보호무역주의하의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아르헨티나는 농목업 우위의 전통적인 경제구조를 무시하고 공업우선정책을 수십년 간 지속시켜 왔다. 이러한 결과 농업의 대GDP 점유비는 1930년의 25%, 1938년 15.7%, 1948년 12.7%, 1965년 11.6%, 1975년 5.8%로 계속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맥 수출의 경우 1934~38년 기간에 세계 소맥 수출의 19%를 점유하였으나, 1976~81년에는 4.6%로 떨어졌다. 옥수수는 6.4%에서 5.8%로 낮아졌으며, 양모는 과거 세계 주요 수출국이었으나 1977~81년에는 6.1%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농축산물 수출 비중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28년의 3.2%에서, 1938년에는 1.9%, 1958년과 1981년에는 각각 1.0%와 0.5%로 하락했다⁶⁾.

1976년 이후 군사정권하에서 종래의 공업우선개발정책을 지향하고 농축산업과 공업의 균형발전을 시도하였으나 계속되는 군부 쿠데타와 이에 따른 정정불안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농업은 정체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1983년 라울 알폰신이 민선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수입대체산업화는 아르헨티나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인하 및 비료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 수출 회복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1990년대 메넴정권에 들어서도 계속 보완되어 나오고 있으며, 세계 식량 수급의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6) 최윤국, “유럽이민 유입 요소로 본 아르헨티나 경제의 세계경제질서로의 통합과정(1870~1914),” 박사학위 논문, 국립마드리드대학교, 1988: INDEC. Statistical Yearbook, 1993.

는 지속적으로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1인당 농업생산의 증남미 평균은 1994년의 경우 2.2%이며, 농업생산은 4.1%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농업생산은 8.5%로 브라질의 6.7%를 앞서 증남미 최고의 생산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1998년까지의 농업생산의 예상성장률은 3.8%로 전망된다.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9.6%로 예상된다. 물론 전체경제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는 일반적으로 농업이 국가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현재 곡물 재배면적은 1920년대의 절반에 지나지 않고 곡물 수출에 있어서도 1927년 기록을 갱신한 것이 1977년이었으므로 약 50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농업은 완전히 정체상태에 있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아르헨티나인들은 아르헨티나 경제·사회발전의 근간은 농업에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농업으로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20세기 중반에는 농업을 경시하는 정책으로 사회·경제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이는 정정의 불안으로까지 발전되었던 경험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이제 그들은 자국의 경제·사회발전의 시작은 농업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있는 것이다.

제 4 장

주요 농업정책의 특징

아르헨티나의 농업을 주관하는 최고 정부기관은 경제성(Ministerio de Economía y Obras y Servicios Públicos)산하의 농·어업 및 식품국(Secretaría de Agricultura, Pesca y Alimentación: SAPyA)⁷⁾이 담당 부서이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의 대다수 국가들은 서방 국가들에서의 농업 보조금, 직접지불제, 가격 지지 등과 같은 이렇다할 농업정책이 없다. 다만 거시경제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조정을 위해 농업 부문에 개입한다. 즉, 농업 부문에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자원 배분과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정책의 역할은 부수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아르헨티나에서는 특히 현저하다.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농업의 여하한 부문에 여하한 형태의 보조를 취한 적이 없다. 또한 농지 소유의 제한도 없으며, 다만 국경 지대에서의 토지 취득은 국가안보회

7) SAPyA는 1996년 5월에 전신인 SAGyP(Secretaría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농목어업국)을 조직 개편한 경제성 산하의 최고 농업관련국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새기구 SAPyA에서는 가공식품이 새로이 독립되어 있어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상품으로 개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의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법규, 수출입 관련 제도 그리고 농업 관련 기관들의 기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외국인 투자 여건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규는 1993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 1853호에 공표된 “외국인 투자법의 규정 및 준칙(Reglamentario y de Ordenamiento de la Ley de Inversiones Extranjeras)”에 의거하여 실행되고 있다.

이는 빈약한 국내 자본으로 외자 유치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법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는 사전 승인없이 외국인 투자등록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실행되어 질 수 있으며, 내국인 투자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 둘째, 투자의 범위는 농업은 물론 광업, 상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셋째, 외환을 통제하는 경우라도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원금 및 투자의 과실 송금은 자유롭다.

또한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는 경우라도 외화 표시 공채로 송금이 가능하다. 넷째, 재정수지 개선과 국영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과 독점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내·외국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업종별 투자를 보면 1991년까지는 농림수산부문이 단연 선두였으나, 1989년 이후 계속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탈규제화, 법령 10330/91호에 따른 북부 4개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외국인 투자는 금융보험업이 1위, 전력 2위, 자동차 3위 그리고 농림수산업이 4위를 차지하였다. 투자국별로 보면 미국, 스페인, 독일 순이다.

농축산업 투자에 대한 혜택은 안데스 산맥을 따라 잇는 La Rioja,

Catamarca, San Juan주에서 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의무가 유예되고 있다.

2. 수출입 규제 완화

아르헨티나는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포도주, 설탕, 낙농품, 마테 차(Yerba Mate)에 대한 시장규제는 철폐되었으며, 유지 종자(Oilseeds)의 수출관세는 FOB가격 기준으로 15%에서 3%로 인하되었다. 이외에 곡물, 육류, 낙농품, 유지 제품(Oilseed products)의 수출관세는 각각 12%, 5%, 15%, 5%에서 폐지되었다.

더욱이 몇몇 수출 농산물은 수출 상환(Export reimbursement)의 혜택을 받고 있다. 즉, 수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21%를 환급 받는다. 또한 수출시에 FOB 가격의 6.5%까지 부과되었던 각종 세금-통계세(Statistical tax), 해운기금세(Merchant marine), INTA기금세, 외환교류세(Foreign currency transfers)-이 폐지되었다.

이밖에도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 요소의 근절은 생산비의 절감, 효율적인 교역, 유통 그리고 항만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항만 서비스의 개선과 항만 곡물 저장창고시설의 민영화는 항만 출하 비용을 톤당 1.7달러까지 감소시키었다. 현재 대부분의 곡물 저장창고는 곡물 무역상의 소유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1991~94년 기간중 국내가와 FOB 가격과의 수준 차이를 밀의 경우 85.2%에서 96.5%로, 대두의 경우 83.5%에서 92.6%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했다⁸⁾.

이러한 제반 조치들은 -농산물 수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8) Alejandro Reca, "Agriculture Sector," Newsletter, IEERAL, Vol. 10, No. 12, 1995, 12.

MERCOSUR 회원국간의 점진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 향후 아르헨티나의 농업생산 잠재력이 세계적인 자유무역 추세를 통해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수입세도 조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였다. 이는 제초제와 살충제의 가격을 1991년 이후 평균 8%까지 하락시키게 한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비료의 총매출액은 1991년에 2억8천5백만 달러에서 1995년에는 5억7천5백만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1991년 이래 아르헨티나에서도 비료의 사용은 3배가 증가하였으나 아직은 타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자본재에 대한 수입관세도 인하되었거나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가격이 17% 정도 인하되면서 트랙터와 수확기의 수입·판매가 크게 신장하였다. 농업 관련 자본재의 수입은 1991년의 4,000만 달러에서 1994년에 1억8천만 달러로 크게 신장하였다.

이러한 대내적인 규제 완화 조치들과 국제식량수급의 불안정 그리고 개도국에서의 수입수요의 증가는 향후 아르헨티나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더 낮은 경쟁과 더 큰 수요를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농업 관련 기관

3.1. 정부 기관

아르헨티나 정부의 농업 담당 부처는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SAPyA(농·어업 및 식품국)이다. 그러나 SAPyA의 장은 국가 경제 각료중의 한 사람이므로 우리 말로 국장보다는 상위 직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SAPyA국은 크게 농목경제부(Subsecretaría de Economía Agropecuaria)와 농축산물시장부(SS Producción Agropecuaria y Mercados)로 나뉘어져 있다.

농목경제부는 여러 개의 과로 다시 나뉘어지는데 다음과 같다: 국가농목경제기획과(Dirección Nacional de Economía, Planeamiento y Desarrollo Agropecuario); 정보시스템과(Dirección de Información y Sistemas); 농지경제 및 국제협력과(D. Economía Agraria y Asuntos Internacionales); 농업개발과(D. Planeamiento y Desarrollo Agropecuario); PROMSA(농목서비스근대화계획: Programa de Modernización de los Servicios Agropecuarios) 프로그램 실행 부처; SIIAP(농목어업 통합정보시스템)부서 등이 있다.

특히, SIIAP는 중요한 농업 통계기관으로 형식적으로는 정보시스템과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성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는 미주은행(IDB)과 세계은행이 출자한 PROMSA계획의 하나로 설립되어 졌다. 이 기관의 주요 기능은 국내 농업의 근대화를 지향하는 통계 작성에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농업 통계, 축산업 통계, 농산물과 식용류의 국내·국제가격, 농산물의 1차 가공업 통계, 과일 및 야채류 통계, 농목 inputs와 농목서비스 통계, 어업 통계, 교역, 농목 인구 및 가구 통계, 농기업 통계, USDA 정보 분석 등이다.

한편 농축산물시장부는 다음과 같은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 국가농목생산과(DN. Producción Agropecuaria); 국가농축산물시장과(DN. de Mercados Agropecuarios); 축산물생산과(D. Producción Ganadera); 농지과(D. Producción Agrícola); 임업과(D. Producción Forestal); 농산물시장과(D. Mercados Agrícolas y Agroindustriales); 비전통농산물시장과(D. de Mercados de Productos no Tradicionales); 비전통농산물과(D. de Productos no Tradicionales); 축산물시장과(D. de Mercados Ganaderos); 국가어·농업과(DN. de Pesca y Agricultura)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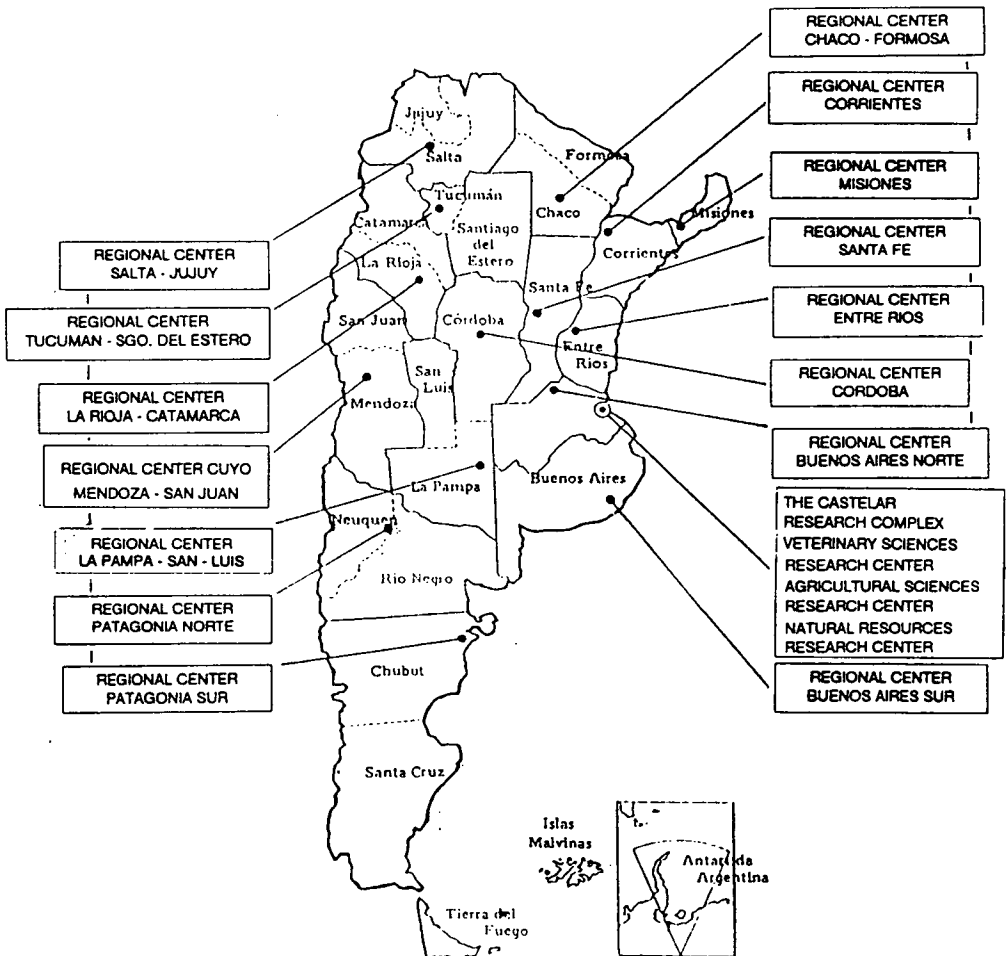
3.2. INTA(국가 농목 기술개발 연구소)

또한 SAPyA의 독립 기관인 국가 농목 기술개발 연구소(INTA: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Agropecuaria)의 주요 기능 및 업무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INTA는 1956년에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한 농업의 기술 혁신, 농촌생활의 질 개선 그리고 농기업의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농업성 (Ministerio de Agricultura; 현재는 경제성 산하임)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발족하였다.

그림 4-1 INTA의 지역중앙위원회 분포



INTA는 전국적으로 42개의 작물시험장(Experiment Stations), 200여개의 기술보급소(Extension Units), 13개의 기술개발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기술개발연구소와 기술보급소는 작물시험장에 통합되어 있으며, 각각의 작물시험장은 각 지구를 담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INTA의 최고 집행위원회(Board of Directors)는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명은 대농업협동조합에서 구성되며, 2명은 국립대학에서 나머지 3명은 농업담당부서에서 각각 임명된다. 이러한 집행위원회에서는 INTA의 총체적인 정책 입안과 조율 그리고 재정 지원을 책임진다.

INTA는 탈 중앙집권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각 주를 담당하는 15개의 지역중앙위원회(Regional Center Boards)를 두고 있다(그림 4-1 참조).

INTA의 주요 기능을 보면 주요 곡물뿐만 아니라 과수, 유지 작물, 산림, 축산, 기후, 농지 등에 대해 생명 공학 및 유전 공학을 접목시킴으로써 끊임없는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에 언급한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혹은 외국 정부와의 기술개발협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더불어 INTA는 지속적으로 농민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줌으로써 중국에는 농촌 사회의 발달을 꾀하고 있다.

3.3. 기 타

또 다른 한편으로 곡물협회(Bolsa de Cereales)가 있다. 이 기구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지원하며, 곡물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곡물 교역상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생산자 편의를 도모하는 단체로서 각 지방별로 분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854년 설립된 부에노스 아이레스 곡물협회이다. 이 협회와는 필요 곡물의 장기적인 수입을 위한 양자간 파트너 협정을 맺을 수 있다.

그 외에 아르헨티나국립은행(BANCO DE LA NACION ARGENTINA)이 실시하는 금융정책의 개혁, 즉 자산에 대한 과세 및

자본재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 수출특별용자, 담보에 대한 농촌영세율적용, 농촌 현대화 프로그램(CAMBIO RURAL)에 의해 농업 생산자들은 이득을 보기도 한다.

제 5 장

농산물 생산 현황 및 특성

1. 작물 생산의 특징

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의 특징은 단수가 낮을뿐만 아니라 조방농업이기 때문에 작물에 따라 수확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수확을 목적으로 한 작물이라도 일기 불순으로 단수가 극도로 낮아진다면 곡물가의 하락으로 생산비를 얻기 어려울 경우 수확을 포기하고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곡물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의 변화를 추이해 보면 호밀이나 수수 등의 수익성이 낮은 작물들은 보다 수익성이 높은 대두와 유량종자(해바라기)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식부면적과 단수에 대한 생산성 증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로 수확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생산성의 가장 두드러진 작물은 1994/95년에 전년 대비 18%의 증가로 1,130만 톤의 생산을 증가한 밀과 10.5%의 증가로 1,140만 톤을 기록한 옥수수 그리고 콩과 해바라기로 대표되는 유지 작물을 들 수 있다. 이중 콩은 전년 대비 3%의 증

가로 인해 1,200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해바라기는 전년 대비 무려 44%가 증가되어 560만 톤을 생산하였다.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밀,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수수, 축산업은 중요한 산업이다. 이들 작물들의 주 재배 지역은 팜파스이나, 일부 작물은 점차 외곽으로 새로운 생산 지역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팜파스는 농업 산출량의 75%를 점유하고 있어 가히 아르헨티나 농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2. 작물별 생산 현황과 특성

2.1. 쌀

쌀은 예로부터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나라 경제의 근간인 농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물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스페인어로는 OMC로 약칭함)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최소시장접근물량(MMA) 6만 4천 톤(현미 기준 7만 1천 톤)의 쌀을 중·단립종으로 수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국내 수급 관리의 안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국제 쌀 가격은 1994년의 후반기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1995년 초기 들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쌀의 다양한 품질 등급 중에서 저급미의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 과거 저급미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수입국으로 변모하고 파키스탄이나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출량이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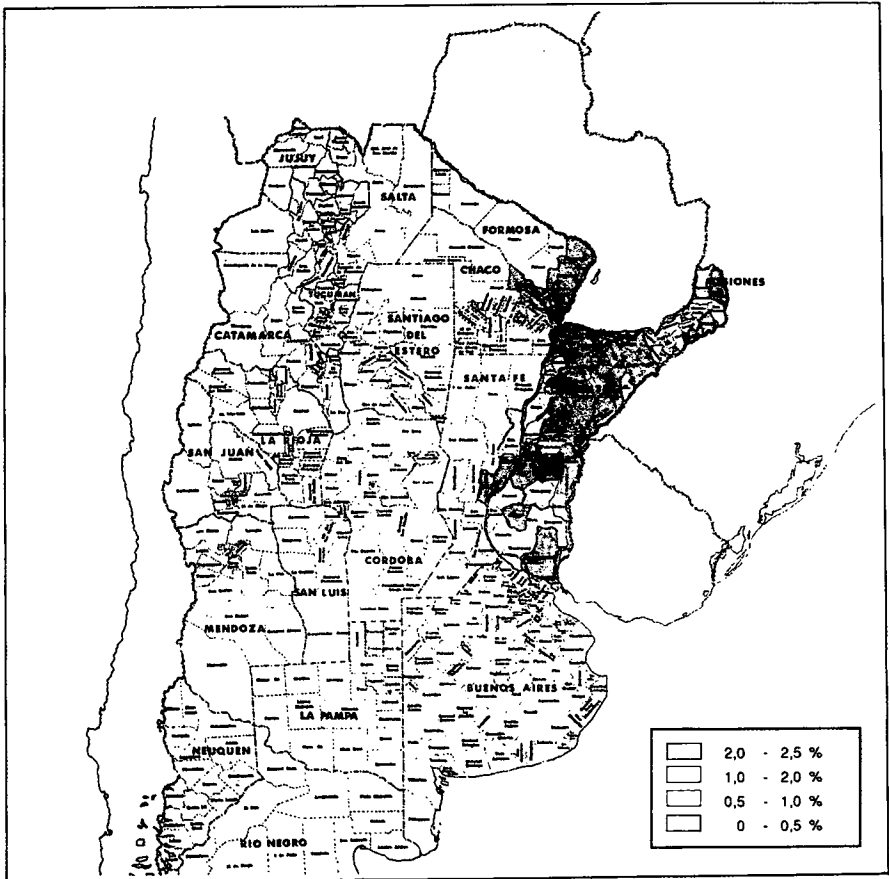
쌀은 세계 곡물 생산량이 1996/97년에 잡곡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미한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쌀 수급의 안정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쌀은 아르헨티나의 주식도 아니고 주요 작물도 아니다. 그러나 쌀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지니고 있어 해외 농업 협력 내지 개발 차원에

서 볼 때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쌀의 재배는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araná

그림 5-1 아르헨티나의 쌀 생산 지도



* 박스 안의 수치는 식부밀도율을 나타낸다. 각 작물의 식부밀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식부밀도율(Intensidad de siembra)} = \frac{\text{식부면적(Superficie Sembrada)}}{\text{지역면적(Superficie Geográfica)}} \times 100$$

표 5-1 아르헨티나의 쌀 생산 관련 지표

작물년도	식부면적 (천 ha)	생산면적 (천 ha)	수확률 (%)	단수 (kg/ha)	생산 (천톤)	경상가 (\$Ctes.)	공업투입 (천톤)	수출 (천톤*)	수출액 (천 u\$s)	세계생산 (천톤*)
1992/93	144.1	139.6	96.9	4,357	608.3	-	-	276	-	352,474
1993/94	148.2	141.3	95.3	4,300	607.6	-	-	175	-	353,507
1994/95	-	180.0	-	3,400*	612.0*	-	-	350	-	360,888
1995/96	-	-	-	3,080*	600.0*	-	-	425	-	367,669

* : 정미 환산.

자료: S. A. G. y P. : PS&D.

강과 Uruguay강의 유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쪽의 Paraguay강 주변에서도 소량 재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쌀 재배는 8월말부터 지역별로 파종을 시작하여 3월에는 탈곡이 시작되고 5월에서 7월까지의 모든 작황이 종료된다. 아르헨티나에서 쌀 재배는 향후 인접국이자 같은 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의 신경계계획이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중소득층의 구매력 증진에 힘입어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자국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향후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부족분을 인접국이며 같은 MERCOSUR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쌀 식부면적은 1993/94년에 약 15만ha에 그치고 있으나 이 규모는 역대 최고의 수치이다. 재배 면적은 작으나 수확률과 단수는 다른 작물과 비교해 우수하다.

쌀의 총생산은 약 60여만 톤이며, 이중에서 약 70%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쌀의 재고량은 1995년 14만 1천톤을 지니고 있어 재고 비율은 무려 74.2%에 달하고 있다. 즉, 쌀 재배에 적합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는 세계 쌀 총생산량의 0.16%에 그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쌀 생산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 5-2>와 같다.

표 5-2 아르헨티나 쌀의 지역별 생산 비교

	1993/94	1992/93	비율(%)
식부면적(천ha)			
합계	148.2	144.1	2.8
Entre Ríos	73.1	75.8	-3.6
Corrientes	52.6	49.2	6.9
Santa Fe	9.7	8.8	10.2
Formosa	10.0	8.0	25.0
기타	2.8	2.3	21.7
수확면적(천ha)			
합계	141.3	139.6	1.2
Entre Ríos	70.2	73.6	-4.6
Corrientes	50.0	47.6	5.0
Santa Fe	9.3	8.1	14.8
Formosa	9.2	8.0	15.0
기타	2.6	2.3	13.0
단수(kg/ha)			
평균	4,300	4,357	-1.3
Entre Ríos	4,400	4,515	-2.5
Corrientes	4,438	4,282	3.7
Santa Fe	3,204	3,173	1.0
Formosa	3,902	4,500	-13.3
기타	4,269	4,565	-6.5
생산(천톤)			
합계	607.6	608.3	-0.1
Entre Ríos	308.9	332.3	-7.0
Corrientes	221.9	203.8	8.9
Santa Fe	29.8	25.7	16.0
Formosa	35.9	36.0	-0.3
기타	11.1	10.5	5.7

자료: Bolsa de Cereales, 1993/94, 1995, 10.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의 주요 재배 지역은 Paraná 강 우편의 Entre Ríos주와 Corrientes주임을 알 수 있다. Entre Ríos 주의 쌀 식부면적은 총 식부면적의 49.3%를 점유하고 있으며, Corrientes 주를

표 5-3 아르헨티나 벼 품종의 종류 및 특성

품 종	단백질	아미로스	알카리 붕괴도	쌀가루 겔의	형태(mm)	
	함유량(%)	함량(%)		강도(mm)	길이	폭
Bluebelle	7.7	22.0	7.0	60	6.6	2.0
Bluebonnet	6.2	24.5	5.2	65		
Bond	8.3	25.8	6.5	48		
Cala	6.8	20.0	7.0	80		
Chajari	5.8	21.3	7.0	76		
Claudio	7.8	16.8	7.0	81	6.7	2.6
Cupalen	8.6	16.3	7.0	82		
Entrerriano	5.9	21.8	7.0	75		
Fortuna	7.0	19.6	7.0	82		
Guayaquiraro	9.4	21.6	6.0	30		
Inacora	8.6	19.3	5.4	84	6.4	2.1
La Plata Ayui	7.0	20.3	7.0	67		
Pl. Guleyan	8.6	17.9	7.0	70		
Pl. Itape	7.0	16.3	3.7	95		
Lucas	7.4	26.0	7.0	44		
Montiel	8.5	19.8	6.9	85	6.4	2.1
Nancay	9.0	22.1	7.0	59		
Lemont	7.8	23.1	6.7	47		
SF Capiacui	7.6	24.1	5.2	46		
Villaguay	6.6	20.8	4.7	71		
Yerua	8.3	18.2	7.0	79	7.0	2.3

주: 쌀 형태에 있어 길이가 5.50mm이하면 단립종, 5.51~6.60은 중립종, 6.61~7.50은 장립종으로 구별한다. 아미로스 함량은 5.1~12.0%면 아주 적고, 12.1~20.0이면 적고, 20.1~25.0은 보통, 25.0 이상은 높음. 쌀 가루 겔의 강도는 61~100mm 이면 부드럽고, 41~60이면 보통, 25~40mm이면 강함.
 자료: 農林水産技術情報協會, 「世界の米と日本の米」, 제1권, 平成 8년.

포함하면 약 85%를 점유하게 되어 이들 지역이 주 생산지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쌀의 재배 지역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여 Formosa주, Chaco주 그리고 Misiones주까지 재배에 참여하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도 Entre Ríos와 Corrientes주가 국내 총생산의 약 89%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쌀 소비량은 1인당 정미로 5.5kg(1986~88)의 적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선호하는 벼 품종으로는 Fortuna Inta, Yerua P.A., Bluebelle로 주로 중장립종이다.

2.2. 옥수수

옥수수는 수량이 많고 재배가 쉬워 예로부터 식량 작물로 재배되어온 잡곡의 하나로 밀, 벼와 더불어 세계 3대 작물의 하나이다. 특히, 식량으로 이용되는 주요 곡물중 유일하게 중남미가 원산지이다.

1492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는 서인도 제도와 멕시코 등지에서 이상한 식물을 발견하는데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멕시코의 발에는 이상한 식물이 재배되고 있다. 키는 1m 이상이 되고, 잎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순금의 열매가 달렸다.”

중남미에서 옥수수의 재배는 약 7,0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콜럼부스가 발견했을 당시 이미 마치종, 경립종, 연립종, 튀김 옥수수, 단 옥수수 등이 분화되었으며, 인디오들은 200~300종의 옥수수를 “신이 우리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는 믿음에서 재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옥수수는 곧 인디오들의 가장 중요한 식량이 되었고 재배, 개량,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의 발달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즉, 인디오들에 의한 옥수수의 개량은 구세계의 밀이나 벼의 개량에 필적할 만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콜럼부스에 의해 옥수수는 유럽으로 전해졌으며, 16세기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파급되었고, 우리 나라에는 고려 말엽 원나라 군대에 의해 도입되었거나 16세기 조선 시대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고기 및 우유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사료용 옥수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연간 600만 톤 내외의 옥수수가 도입되고 있으며, 자급도는 1995년에 1.1%였으며, 1996년에는 0.7%로 추정된다.

옥수수 재배는 토양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壤土가 최적이며 토양 산도는 pH 5.5~8.0이 최적이다. 온도는 토양의 수분이 보통일 때는 26~32℃, 충분할 때는 32~38℃가 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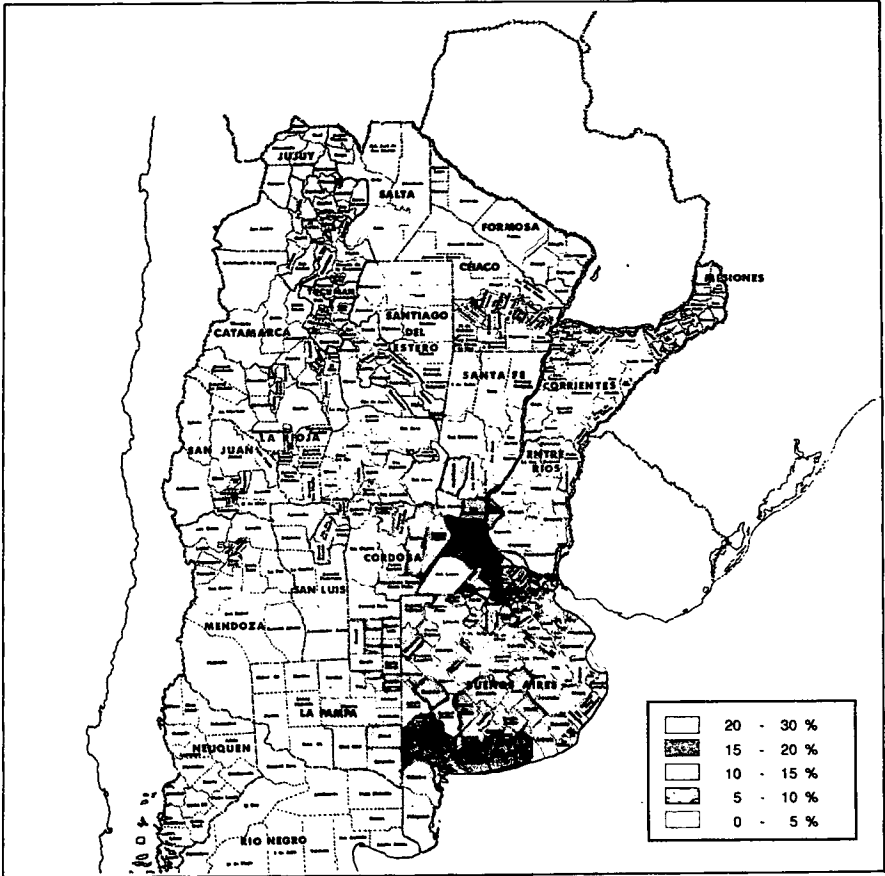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는 습윤 팜파지역에서 대두를 재배하기 이전까지는 소맥의 작부 지역과 거의 같은 지역에서 재배되었으나 이 지역에서 대두가 재배되면서부터 Buenos Aires주의 중북부, Córdoba주의 동부와 서부 그리고 Santa Fe주의 남부를 중심으로 산지가 이동되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의 식부밀도를 조차 10~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의 경작은 보편적으로 8월에 땅을 고르면서 시작한다. 이때는 정상적인 경작을 위해 적절한 강우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강우량을 보인 지역에서부터 파종이 되는데, 1994년의 경우 9월 초순에 Entre Ríos주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파종은 익년 2월초 까지도 계속되며, 반면에 수확도 이 시기에 지역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7월말까지 계속된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옥수수 식부면적은 1935/36년에 763만ha로 최고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던 반면에 1989/90년에는 198만ha를 기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280만ha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확률도 85%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단수에 있어서는 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져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94년에는 4,540kg/ha를 기록하였다. 총생산 1천1백36만 톤에서 185만 톤은 공업 분야에 투입되었으며, 수출은 총생산대비 36.3%에 달하는 412만 톤을 기록하여 옥수수 수출액은 4억7천3백만 달러에 달했다.

옥수수의 식부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Santa Fe주 남부와 Córdoba주 동부 그리고 Buenos Aires 북부의 최우량 곡물 지대가 수익성이 높은

그림 5-2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 지도



* 박스 안의 수치는 식부밀도율을 나타낸다. 각 작물의 식부밀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식부밀도율(Intensidad de siembra)} = \frac{\text{식부면적(Superficie Sembrada)}}{\text{지역면적(Superficie Geográfica)}} \times 100$$

표 5-4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 관련 지표

작물년도	식부면적 (천 ha)	생산면적 (천 ha)	수확률 (%)	단수 (kg/ha)	생산 (천톤)	평균가	공업투입 (천톤)	수출 (천톤*)	수출액 (천 u\$s)	세계생산 (천톤*)
1992/93	2,963	2,503	84.5	4,355	10,901	96.19	1,268	6,055	63,600	525,715
1993/94	2,756	2,420	87.8	4,234	10,246	109.71	1,770	4,699	458,000	467,715
1994/95	2,943	2,502	85.0	4,540	11,359	108.92	1,854	4,116	473,000	548,136
1995/96					115,000					

자료: S. A. G. y P: USDA.

대두로 재배 작물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즉, 옥수수의 단수는 4,540kg/ha이고 대두의 경우는 2,040kg/ha로 수량은 대두가 옥수수의 1/2에도 못 미치나 가격 면에서는 대두가 옥수수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FOB 부에노스 아이레스 수출가가 대두의 경우 233달러/톤인데 반해, 옥수수는 113달러로 2배가 넘는 가격을 보이고 있다) 생산 조건이 좋은 지대에서는 대두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단수도 미국의 ha당 8,093kg과 비교해 보면 56.1%에 그쳐 향후 생산량의 증가가 요구된다 하겠다.

지역별 옥수수 생산 관련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옥수수의 지역별 식부면적은 Córdoba지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서 크게 감소하고 있다. Córdoba 지방은 식부면적의 확대뿐만 아니라 단수와 생산량의 증가를 나타낸 유일한 지역이다. 이외에 Buenos Aires 지방은 단수를 제외하고는 식부면적, 수확면적, 생산량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La Pampa 지방은 단수와 생산량의 감소가 역시 크게 두드러졌다.

한편 옥수수의 수출 가격은 <표 5-6>과 같다. 1990년대 들어 FOB 부에노스 아이레스 가격이 미국의 멕시코만 가격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의 이상 기후로 인해 생육 여건이 불리하여 저서 1995년 1월 이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옥수수에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출국임을 자랑하고 있다.

표 5-5 지역별 옥수수 생산 관련 지표

	1994/95	1993/94	1992/93
식부면적(천ha)			
합계	2,943.0	2,756.5	2,962.8
Buenos Aires	1,007.2	917.5	1,156.8
Córdoba	768.3	685.4	589.0
La Pampa	308.4	339.0	378.1
Santa Fe	364.9	363.3	392.2
기타	494.2	451.3	446.7
수확면적(천ha)			
합계	2,502.1	2,420.1	2,503.0
Buenos Aires	974.8	865.8	997.2
Córdoba	691.1	651.3	557.1
La Pampa	67.7	122.1	151.0
Santa Fe	352.9	362.0	387.7
기타	415.6	418.9	410.0
단수(kg/ha)			
평균	4,540	4,234	4,358
Buenos Aires	5,037	4,496	4,460
Córdoba	4,009	4,371	4,233
La Pampa	2,900	2,806	3,146
Santa Fe	5,789	5,432	5,574
기타	3,360	2,859	3,572
생산(천톤)			
합계	11,359.5	10,246.0	10,907.0
Buenos Aires	4,910.4	3,892.3	4,448.0
Córdoba	2,770.7	2,847.0	2,358.4
La Pampa	196.3	342.6	475.0
Santa Fe	352.9	1,966.4	2,161.0

자료: Bolsa de Cereales, 1993/94, 1995. 10.

표 5-6 옥수수의 국제 수출가 비교

단위: U\$S/Ton

	FOB 부에노스 아이레스	FOB 멕시코만
1992	106	104
1993	112	102
1994	113	108

자료: S. A. G. y P.

2.3. 밀

밀의 재배는 중동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이후 아시아와 유럽의 주식으로 발전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은 많으며, 건조한 10~5월에 하는 겨울 작물로 재배되고 있다. 밀의 1인당 소비량은 1965년의 13.8kg에서 1995년 32.0kg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내 생산량은 줄어 자급도는 0.5%에 불과하다.

밀은 현재 세계 각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식량작물중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식 작물이다. 재배 지역은 위도상 북위 30~60도와 남위 27~40도선이며, 강수량이 760mm이면 밀 수량이 가장 많고, 635~890mm이면 보통이다. 재배에 적합한 온도를 보면 최저 생육 온도 3~4℃, 최고 온도 30~32℃선에서도 가능하나 적온은 25℃이며, 열대지방에서는 해발 2,000~3,200m까지도 재배가 가능하다.

밀의 수확은 세계적으로 보면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으며, 4~9월에 가장 많은 양이 수확되고 남반구에서는 10~11월 수확도 이루어 지고 있다.

소맥은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되는 곡물중 가장 역사가 깊으며, 재배 면적 또한 가장 넓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낮고 생산량의 변동이 조금 크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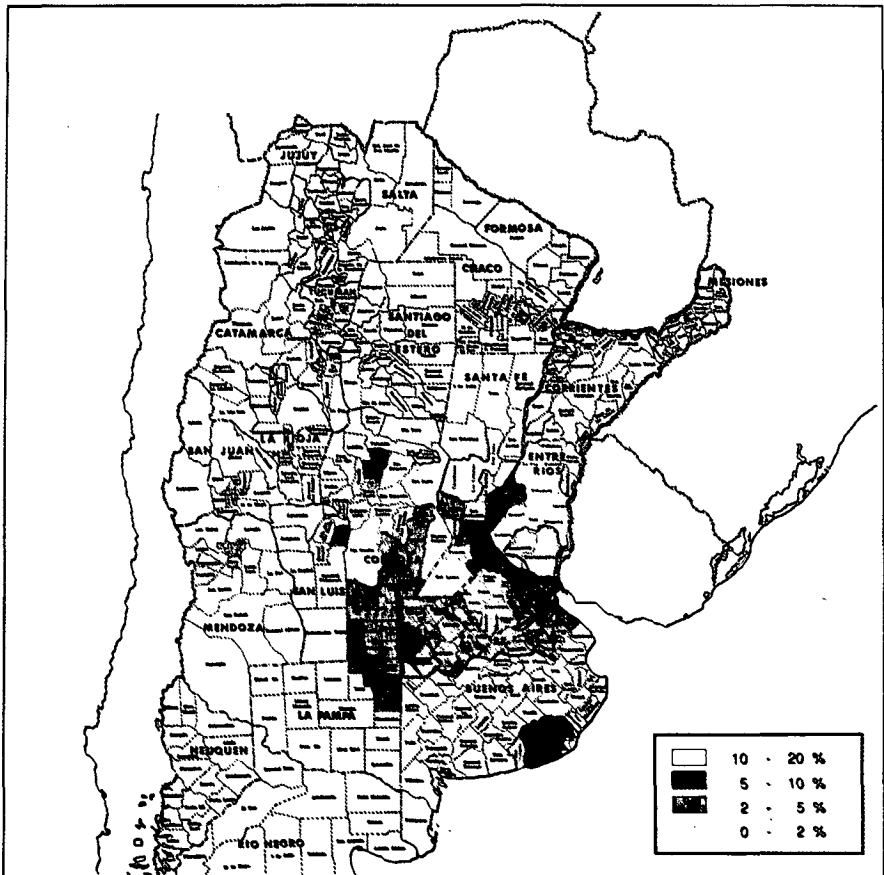
재배 지역을 보면 습윤광과지역의 곡물 지대 중심지인 Rosario와

Santa Fe주, Córdoba주의 동부, Buenos Aires주의 북부에서 대두와 이모작 혹은 옥수수과 윤작으로 재배된다. 또한 Buenos Aires남부의 Bahía Blanca 근처에서는 단작이 이루어진다.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의 재배 지역은 Rosario지방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멀리 Tucumán주의 북부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Bahía Blanca 남쪽까지 폭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식부밀도율과 수확량은 멀어질수록 떨어지고 있다.

과종 시기는 5월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가 지역별로 그 시기의 강우 상

그림 5-3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 지도



황을 감안하여 발아 가능한 토양의 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5월의 강우량에 따라서 파종 지역과 면적이 크게 달라진다.

1993/94 작물 년도에는 많은 비가 Buenos Aires와 Entre Ríos, Santa Fe 그리고 Córdoba 지역에 내려 전작물에 대한 수확이 늦어짐으로 해서 파종이 지연된 반면에, 북서 지방의 Salta와 Jujuy지방에서 먼저 파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파종은 9월에 가서야 전국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수확은 10월 말부터 시작되어 다음해 1월 초순에 밀 작황의 집계가 끝나게 됨으로 이 때의 기후는 특히 중요하다.

1993/94년도의 밀 생산은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79,800톤으로 전년도 대비 7%의 감소를 가져왔다.

밀 식부면적은 1928/29년도에 922만 ha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줄곧 큰 변동을 보여오고 있다가 1990년대 들어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점차 식부면적이 늘고 있다. 한편 수확률은 여타 작물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왔으며, 최근에 크게 늘어 1924/25년도 이래 최고인 98.4%를 보이고 있다.

ha당 단수는 2,170kg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낮으나, 1990년대 들어 점차 향상되고 있다. 단수의 경우 1993년 미국은 ha당 2,579kg을 생산하였는데 아르헨티나는 1,939kg을 생산해 미국 대비 75.2%수준에 머물러 있다.

총생산량은 1천1백30만 톤으로 아르헨티나 밀 역사상 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총생산량중 438만 톤은 국내 공업에 투입되며, 528만 톤이 수출되고 있다. 내수용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수출용은 줄어들고 있다.

표 5-7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 관련 지표

작물년도	식부면적 (천톤)	생산면적 (천 ha)	수확률 (%)	단수 (kg/ha)	생산 (천톤)	평균가격 (\$Ctes.)	공업투입 (천톤)	수출 (천톤*)	수출액 (천불)	세계생산 (천톤*)
1992/93	4,547	4,254	93.55	2,320	9,847	118.42	3,834	6,057	714,000	542,668
1993/94	4,869	4,214	86.55	1,939	9,180	133.65	4,023	5,613	728,000	548,476
1994/95	5,308	5,221	98.40	2,170	11,306	122.16	4,375	5,272	684,000	519,519
1995/96	-	-	-	-	10,500	-	-	-	-	539,570

자료: Secretaría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Argentina: USDA.

한편 지역별 밀 관련 지수는 <표 5-8>과 같다.

표 5-8 지역별 밀 생산 관련 지표

	1994/95	1993/94	1992/93
식부면적(천ha)			
합계	5,264.5	4,869.3	4,547.7
Buenos Aires	3,000.3	2,654.5	2,683.6
Córdoba	638.2	633.3	473.5
Santa Fe	863.0	870.5	713.2
La Pampa	507.2	500.0	493.8
기타	255.8	211.0	183.6
수확면적(천ha)			
합계	5,178.9	4,734.1	4,254.7
Buenos Aires	2,984.0	2,614.2	2,532.3
Córdoba	625.7	617.1	454.1
Santa Fe	860.7	862.9	711.0
La Pampa	472.8	463.5	376.5
기타	235.7	176.4	180.8
단수(kg/ha)			
평균	2,164	1,939	2,321
Buenos Aires	2,362	2,057	2,381
Córdoba	2,004	1,840	2,280
Santa Fe	2,129	1,899	2,686
기타	1,248	1,467	2,202
생산(천톤)			
합계	11,206.2	9,179.8	9,874.4
Buenos Aires	7,048.7	5,376.4	6,029.6
Córdoba	1,253.7	1,135.6	1,035.2
Santa Fe	1,832.0	1,638.5	1,909.4
La Pampa	707.1	770.5	502.1
기타	364.7	258.8	398.1

자료: Bolsa de Cereales, 1993/94, 1995. 10.

Buenos Aires주는 팜파스에 가장 넓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식부면적, 수확면적, 단수, 생산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식부면적에서는 총식부면적의 56.9%, 수확면적은 57.6%, 생산에서는 62.9%를 점유하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밀은 Buenos Aires주를 빼고는 논할 수 없다. Santa Fe주는 밀 생산에 있어 제2의 주인데, 단수의 변동이 심하다. 그 외에 La Pampa주와 Córdoba주에서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밀 재배 지역이 점차 이들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대신에 수익성이 좋은 콩 재배로 전환되는 데에 기인한다.

아르헨티나 밀의 수출 가격은 FOB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산출해 보면 FOB멕시코만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1991년 들어서면서 밀 수출 가격은 현저하게 상승하였다. 1994년의 경우 FOB 멕시코만 가격이 톤당 150달러인데 반해 FOB 부에노스 아이레스 가격은 131달러에 그치고 있다(표 5-9 참조).

표 5-9 밀 수출 가격 비교

단위: U\$S/Ton

년도	FOB Buenos Aires	FOB Golfo de Mexico
1991	98	128
1992	125	152
1993	130	141
1994	131	150

자료: S.A.G. y P.

2.4. 대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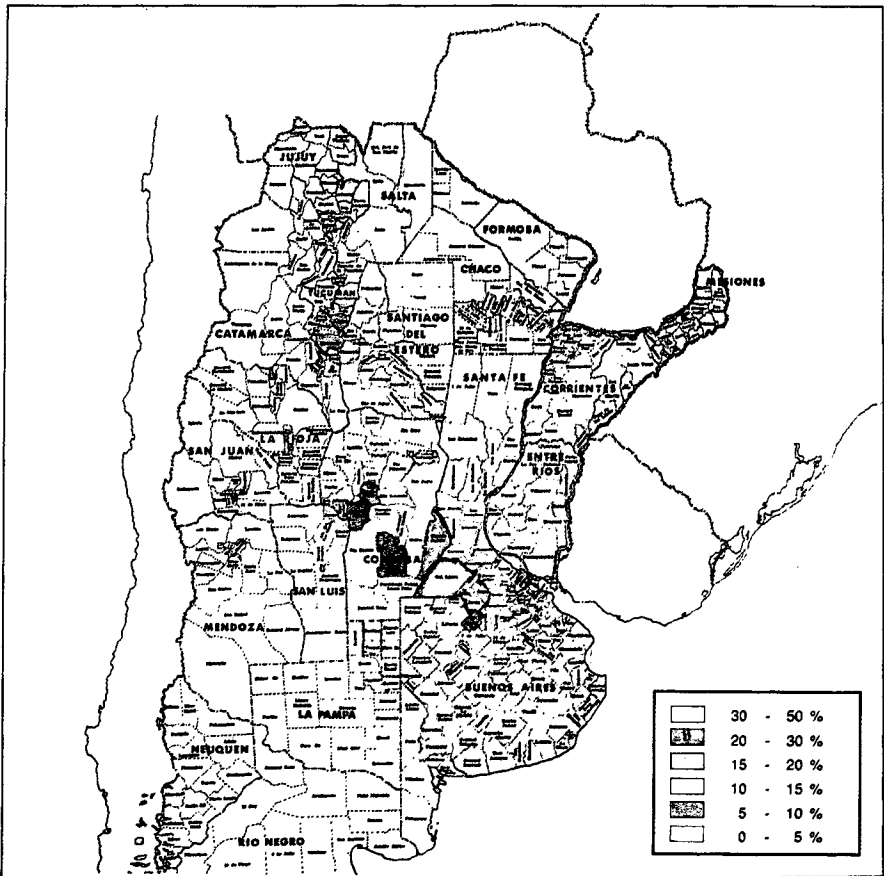
콩은 원산지가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북 아시아지역이나 현재는 남미에서 크게 발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콩의 자급율은 1995년 12.6%에 불과하며, 소비는 사료용이 전체 소비의 68%를 점유하고 있다. 콩의 수입은 미국으로부터 90%

내외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 브라질, 파라과이 등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콩의 재배에 적합한 기상 조건을 보면 일평균 기온이 12℃이상인 일수

그림 5-4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 지도



가 120일 이상이며, 콩 발아의 최적온도는 20~22℃, 뿌리 생장에 적당한 토양 온도는 22~27℃이다.

아르헨티나에서 대두 생산의 시초는 1930년대에 아르헨티나 북서부의 Tucumán 주립작물시험장에서 만주와 미국으로부터 대두품종을 들여와 품종 비교 실험을 한 것이 그 시작이다.

1950년대까지는 약 1,000ha의 적은 면적에서 생산되었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팜파지역에서 재배되면서 기적의 작물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러나 팜파스 곡물 지대의 중앙부에서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진 것은 대두와 2모작이 가능한 소맥 품종이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오늘날 대두의 주산지는 Santa Fe주의 남부, Córdoba주의 동부, Buenos Aires주의 북부 등으로 이른바 곡물 지대의 중심지이다. 이들 지역은 식부밀도가 30~50%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두의 작부체계를 살펴보면 대두의 연작 혹은 옥수수와의 윤작으로 하는 단작과, 소맥(겨울)과 대두(여름)를 재배하는 2모작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래에 들어 2모작 작부 체계가 증가세를 보여 1980년대부터는 약 절반이 2모작을 통해 대두가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단작 방식의 대두는 강우량의 적정량에 따라 9월부터 논 갈이를 시작하여 10월 중순에서 하순에 걸쳐 만생종을 파종하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에 수확하고 있다. 보통 아르헨티나 북동부와 북서부 지역에서 먼저 파종이 시작되어 팜파스지역으로 전개되는데, 수확이 끝난 후 수집이 완료되는 시기는 7월이다.

반면에 2모작 대두는 소맥을 수확한 후인 12월 하순부터 1월 하순에 걸쳐 조생종을 파종한다. 이는 소맥의 수확이 늦어지면 대두의 파종기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확량이 불안정한 점이 있다.

연도별 콩의 주요 생산 관련 지표를 분석해 보면 <표 5-10>과 같다.

표 5-10 아르헨티나의 콩 생산 관련 지표

작물년도	식부면적 (천 ha)	생산면적 (천 ha)	수확률 (%)	단수 (kg/ha)	생산 (천톤)	국내가 (Peso/톤)	공업투입 (천톤)	수출 (천톤)	수출액 (천 u\$s)	세계생산 (천톤)
1992/93	5,319.7	5,116.2	96.17	2,114	10,816	191.64	8,145	3,105	652,000	113,332
1993/94	5,664.8	5,596.1	98.79	2,021	11,312	219.19	8,286	2,219	510,000	112,581
1994/95	5,990.1	5,913.8	98.70	2,040	12,088	225.71	8,905	2,914	685,000	127,885
1995/96	-	-	-	-	12,500	-	-	-	-	-

자료: S.A.G. y P: USDA.

아르헨티나에서의 콩 식부면적은 옥수수 재배 면적의 전용과 2모작이 가능한 소맥 품종의 도입으로 경이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수확률과 단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총생산은 1,250만 톤에 달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콩은 유지 작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업에의 투입이 총생산의 73.7%에 달한다.

대두의 단수는 1970년대 초에 ha당 1.6톤이 생산되었는데, 1993년에는 ha당 2톤 이상이 생산되어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확량은 1960년대말 3만여톤에서 1975년에 약 70만 톤, 1976년에는 140만 톤으로 급격히 신장하였으며, 1982년에는 4백만 톤 그리고 1990년 이후로는 매년 1,000만 톤 이상이 생산되었다.

한편 콩의 지역별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표 5-11>과 같다.

지역별 콩의 재배 면적을 보면 Santa Fe주를 비롯하여 Córdoba주와 기타 여러 주에서 좋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Buenos Aires 주에서는 재배 면적이 정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수와 생산량에 있어서는 Santa Fe주가 가장 좋아 향후 콩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콩의 생산에 있어서 Santa Fe주는 총 콩생산량의 46.4%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으로 콩의 수출가도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 대두는 국제곡물가의 상승과 수요의 증대로 1996

표 5-11 콩의 지역별 생산 현황

	1994/95	1993/94	1992/93
식부면적(천ha)			
합계	5,990.1	5,664.8	5,319.6
Buenos Aires	1,376.4	1,352.9	1,399.5
Córdoba	1,596.5	1,502.2	1,380.8
Santa Fe	2,340.6	2,131.3	1,931.7
La Pampa	-	20.2	21.0
기타	676.6	658.2	586.6
수확면적(천ha)			
합계	5,913.8	5,596.1	5,116.3
Buenos Aires	1,363.9	1,335.6	1,270.4
Córdoba	1,563.1	1,490.8	1,357.7
Santa Fe	2,335.1	2,126.6	1,897.0
La Pampa	-	19.5	17.4
기타	651.7	623.6	573.8
단수(kg/ha)			
평균	2,044	2,021	2,159
Buenos Aires	1,912	1,735	1,843
Córdoba	1,701	1,954	2,345
Santa Fe	2,401	2,346	2,319
La Pampa	-	1,441	1,253
기타	1,709	1,707	1,918
생산(천톤)			
합계	12,087	11,311.7	11,045.4
Buenos Aires	2,608.2	2,316.7	2,341.1
Córdoba	2,658.7	2,913.4	3,183.7
Santa Fe	5,606.9	4,989.0	4,398.5
La Pampa	-	28.1	21.8
기타	1,213.2	1,064.5	1,100.4

자료: Bolsa de Cereales, 1993/94, 1995.10: USDA.

표 5-12 콩의 국제 수출가 비교

단위: U\$S/Ton

	FOB Buenos Aires	FOB Mexico 만
1991	212	221
1992	212	221
1993	227	239
1994	233	240

자료: S. A. G. y P.

년 투자전망을 진단한 월간경제전문지(Negocios)에서도 최고의 투자시장으로 분석되고 있어 당분간 대두는 아르헨티나의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2.5. 과 수

아르헨티나의 과일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포도주 원료용 포도와 사과 그리고 감귤류의 생산이다.

포도의 주산지는 안데스 산맥 근처의 Mendoza주이며, 그밖에 San Juan주를 중심으로 관개 시설을 이용해서 재배하고 있다.

포도의 재배 면적은 1979~81년 평균 32만ha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과실주의 수출이 저조해 지면서 수출용 포도주의 국내 재고가 누적되어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3년에는 재배 면적이 165천ha로 감소하였고, 더불어 생산량도 1979~81년 기간의 316만 톤에서 182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Mendoza주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90%는 포도주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사과는 파타고니아지방의 Río Negro주의 네그로 강변에서 재배되고 있다. 재배 면적은 약 5.4만ha이며 1993년에는 80만 톤이 생산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사과 재배에 적합한 한냉기후로 그 질이 좋고, 또한 북반구와는 계절이 반대라는 특성을 살려 생산량의 1/3 정도는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표 5-13 과실 생산량

단위: 천톤

년 도	포 도	사 과	오렌지	레 몬
1979~81	3,156	946	969	369
1991	2,082	1,000	700	643
1992	1,821	1,043	676	700
1993	1,821	800	650	700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 Vol.48, 1994.

감귤류는 아르헨티나의 북부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는데, 1993년의 생산량을 보면 약 190만톤(오렌지 65만톤, 레몬 70만톤, 감귤 33만톤, 그 레이프 후르츠 18만톤) 정도이다. 감귤류 역시 생산 시기의 차이로 상당량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밖에 배, 복숭아, 자두 등 여러 종류의 온대성 과일을 재배하고 있다.

2.6. 축산물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유수의 쇠고기 생산국이며, 국민 1인당 소비량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연간 90kg이나 된다. 더불어 축산업은 곡물, 유

표 5-14 가축 사육 두수

단위: 백만두

	1979-81	1990	1993	1995.12
말	3.024	3.400	3.300	-
소	55.620	50.582	50.320	55.700
돼지	3.751	4.400	2.200	-
닭(백만수)	38	43	58	-
면양	31.473	-	24.500	-
산양	3.000	-	3.370	-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 vol. 48, 1994.; 세계축산정보 1996. 8.

량 종자와 함께 아르헨티나 농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농목용지의 약 9할, 곡물 재배에 최적인 습윤판파지역에서도 약 75%가 육우 방목에 이용되고 있다.

축산의 중심을 이루는 육우 사육 두수는 1930년대에 3,000만두를 기록한 이래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이다 1970년대에 다소 줄자 육식없는 날을 실시하여 국내 소비를 억제시키기도 하였다. 이후로는 5,000만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목축 경영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방목 형태의 초지비육을 취하지만 질병, 특히 구제역(AFTOSA)⁹⁾이 발생하면 그 장소의 소들을 모두 태워 죽이기 때문에 1994년 4월 이후로는 발병이 전무하다.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목장지를 100ha마다 철사 울타리를 만들어 50~100마리씩 분리하여 사육하는데, 이 무리 속에 거세하지 않은 번식우를 2~3마리 함께 사육하여 서로 자연 교배하여 자연 분만토록 한다.

아르헨티나의 소 품종은 주로 영국종의 앵거스, 헤리포드이며, 북부 아열대 지방에는 제브(Zebu)계의 소도 많다.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는 세계 유수의 쇠고기 생산국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청정지역에 비가열 쇠고기 제품을 수출할 수 없으나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비롯한 청정지역에도 비가열 상태의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962년부터 구제역 박멸 대책을 실시해 왔던 우루과이가 1994년 6월 백신접종을 중단하면

9) 아르헨티나에서 구제역(바이러스에 의해 소, 돼지, 양 등에 발생되는 급성 악성전염병으로 감염력이 강하고 유행 속도가 빠르며 박멸에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됨)은 남미에서 1964년에 발병된 이래 아르헨티나에도 발생하여 이후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출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오고 있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정부의 가축위생기관인 SENASA(전국가축위생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전국을 5개지역으로 나누고 정기적인 백신 접종, 관리 감독, 가축의 이동 규제 등을 엄격히 실시하여 1994년 4월의 두 건을 마지막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다.

표 5-15 아르헨티나와 주요국의 쇠고기 생산량, 1994

단위: 천톤/지육중량기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미국	호주	일본	한국
2,600	368	11,194	1,839	602	147

자료: USDA.

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허가를 받아내었고 결국 우루과이는 1996년 올해 최초로 미국에 자국산 비가열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데에 기인한다.

아르헨티나의 소 사육 농가수는 22만3천호(88년)이지만 50두 이하의 농가가 47%를 차지하고 있어 의외로 규모가 작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4,000두 이상 사육 농가는 전체의 0.5%에 불과하지만 사육 두수 비율로는 13%를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쇠고기의 가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쇠고기 가격의 상승은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에 대한 수출관세는 수출 물량을 저하시키기는 하지만 정부 재정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육우 이외의 가축으로는 남부의 파타고니아지방을 중심으로 면양이 사육되고 있는데, 그 수는 약 2,500만두에 이른다. 리오 네그로, 산타 크루스, 산 후안 등의 지역에는 양육 냉동공장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낙농, 양계, 양돈 등의 경영은 사육 두수가 적고 중요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유럽으로부터 낙농품, 햄등은 수입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브로일러는 브라질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연간 90kg이나 되지만 주로 쇠고기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중 다른 육류의 소비량은 20kg에 불과하다.

쇠고기 이외에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진 축산물로는 닭고기, 계란, 우유 등을 들 수 있다.

2.7. 기타 작물

수수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작물 중의 하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에서 크게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즉, 대두가 옥수수를 밀어내고, 또 옥수수는 수수를 곡물 재배지역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수수의 중요도는 점차 감소하였다.

수수는 곡물 중에서 건조에 가장 강한 곡물임으로 재배 지역은 팜파스의 외곽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팜파스의 중심 지역에는 소맥과 대두가 재배되고 그 주변에는 옥수수, 가장 바깥 쪽에는 수수가 재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수의 신품종 도입으로 재배 면적의 감소(1979~81년 187만 ha에서 1993년에 72만ha로 크게 감소)와 총수확량의 감소(1970년대 초 450~600만 톤에서 1993년 286만 톤으로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1970년대 2톤/ha에서 1993년에는 약 4톤/ha으로 2배가 증가되었다. 단수의 국제 비교에서도 1993년에 미국의 3.8톤/ha을 앞서 생산성 증대 면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보였다.

유량 종자 중에서는 해바라기의 생산이 재배 면적의 증대로 인해 크게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바라기의 재배 면적은 1979~81년에 156만ha에서 1993년에는 203만ha로 증가되면서 생산량도 1970년대 초의 80만 톤에서 1993년에 325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생산량의 증가는 물론 단수가 931kg/ha에서 72.4% 상승된 1,605kg/ha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사탕수수는 안데스 산맥에 가까운 아르헨티나 북서부의 Tucumán주, Salta주 그리고 Jujuy주 등에서 관개 시설을 이용해 재배되고 있다. 국제 원당 가격의 하락으로 사탕수수의 재배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단수의 증가로 총생산량은 증대되었다. 1993년 사탕수수의 재배 면적은 24만

ha이며 단수는 71,000kg/ha 그리고 생산량은 약 1,700만 톤이다.

면화는 아열대다우지역인 Chaco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배 면적과 단수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생산량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의 재배 면적은 21만ha이며 생산량은 23만 톤을 기록하고 있다.

3. 작물별 수급 전망

아르헨티나에서의 농업 비중에 대한 과거 및 현황을 이미 위에서 살펴 보았다.

수출에서의 점유비도 해마다 50% 이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 WTO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진척에 따라 세계곡물시장에서의 아르헨티나 농업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농학자인 Eugenio J. CAP의 글¹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CAP박사는 2000년의 예상 생산량을 생산성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Productivity-enhancing innovations)의 비율을 지역별로 달리해 단수와 생산량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나리오 A는 작물 재배 지역의 일부에서는 저 기술을 이용한 10%의 향상을, 다른 지역에서는 20%의 중급 기술을, 또 다른 지역에서

10) Eugenio J. Cap, "ARGENTINA: THE SUSTAINABLE GROWTH POTENCIAL OF THE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 OUTLOOK." INFORME SOBRE LA PARTICIPACION ARGENTINA EN EL FORO DE AGRICULTURA Y ALIMENTOS DEL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PECC-, 북경, 중국, 1995. 9.

표 5-16 주요 작물별 2000년 생산 시나리오

작물 단위: ha

작물 (단위: ha)	기준년도 1995년		2000년을 위한 시나리오		
			A	B	C
밀 4,887,000	생산(천톤)	9,651.8	11,941.6	13,893.3	20,448.3
	단수(T/HA)	1.98	2.44	2.84	4.20
	증가량(천톤)	0	2,289.8	4,241.5	10,796.4
옥수수 2,756,480	생산	10,281.7	12,808.6	14,758.8	18,378.4
	단수	3.73	4.61	5.35	6.70
	증가량	0	2,420.4	4,471.6	8,091.3
대두 5,664,811	생산	11,408.9	14,131.4	16,410.7	16,948.1
	단수	2.01	2.49	2.90	3.00
	증가량	0	2,722.5	5,001.8	5,539.2
해바라기 2,135,951	생산	3,876.7	4,819.2	5,208.3	5,544.9
	단수	1.82	2.26	2.44	2.60
	증가량	0	942.5	1,331.5	1,668.2
면화 710,594	생산	1,041.6	1,290.4	1,499.5	1,700.4
	단수	1.47	1.82	2.11	2.40
	증가량	0	248.8	457.9	658.8
감자 103,305	생산	2,362	2,067	3,431	4,489
	단수	22.87	28.72	33.21	43.90
	증가량	0	604	1,069	2,126

는 30%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고 기술이 접목되었을 경우이다.

시나리오 B는 이러한 비율이 각각 30%, 40%, 50%이다. 단 해바라기의 경우 각각 20%, 30%, 40%이다.

시나리오 C는 현재 자국내 시험 재배의 평균 단수를 적용했을 경우이다. 시나리오 C는 INTA를 비롯한 많은 아르헨티나 농학자들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5-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 질 경우, 즉 농업의 잠재력이 기술과 접목될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초 식량 수출국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또 한가지 특징은 아르헨티나의 농업경영 방식은 지금까지 조방 농경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경지 면적의 확대보다도 농기계, 비료, 기술을 투입하는 집약 농경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CAP박사는 쇠고기의 경우도 앞의 농작물 산출 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 바 다음과 같다(표 5-17 참조).

표 5-17 쇠고기의 2005년 생산 시나리오

	기준년도 1995년		2005년을 위한 시나리오		
			A	B	C
육종 29,018,129ha	생산량(천톤)	1,472.6	1,837.6	2,139.4	3,421.8
	Yield, kg/ha/년(liveweight)	50	63	73	118
	증가량(천톤)	0	364.9	666.7	1,949.2
육종 & 비육우 30,927,539ha	생산량	2,188.4	2,742.4	3,194.4	4,791.7
	Yield, kg/ha, 년	70	88	103	155
	증가량	0	554.0	1,006.0	2,703.3
비육우 7,656,460ha	생산량	1,141.1	1,417.7	1,652.6	2,535.9
	Yield	149	185	215	331
	증가량	0	276.6	511.5	1,394.8

여기에서의 시나리오 작성 기준은 앞의 곡물의 경우와 같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쇠고기의 경우도 기술이 접목될 경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 시나리오에 의한 산출과 국내 수요 그리고 공급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18 아르헨티나의 2000년 작물별 산출, 국내 수요 그리고 수출 여력

단위: 천톤

품 목	산 출 량			국내수요 ¹⁾	수 출 여 력		
	A	B	C		A	B	C
밀	11,941	13,893	20,448	4,950	6,991	8,943	15,498
옥수수	12,707	14,758	18,378	4,400	8,307	10,358	13,978
대두	14,131	16,410	16,948	600	13,531	15,810	16,348 ²⁾
해바라기	4,819	5,208	5,545	530	4,289	4,678	5,015 ³⁾
쇠고기 ⁴⁾	2,970	3,245	4,324	2,250	720	995	2,074
면화 ⁵⁾	430	500	566	110	320	390	456
감자	2,967	3,431	4,489	2,002	965	1,429	2,487

주: 1) 국내 수요는 아래의 자료 인용.

2) 총량중 950만 톤은 전분으로, 약 200만 톤은 대두유로 수출되었음.

3) 총량중 400만 톤은 가루 및 해바라기유로 수출되었음.

4) 포장육(생우*0.55 했음).

5) 면사(면화*0.33).

자료: 1) Mercosur Agropecuario. Actualidad y Perspectivas. SAGyP, Dirección de Economía Agraria y Asuntos Internacionales. Año 1, No. 1, Buenos Aires, Argentina, 1995.1; Rodríguez, A., CIARA Report, Buenos Aires, Argentina, 1995. 8.

〈표 5-1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작물의 재배에 기술 혁신이 첨가된다면 이들 곡물들은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도 충분한 수출 여력을 지니게 되어 아르헨티나로서는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여유분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정책과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6 장

농산물 교역

1. 농산물의 수출입 비중

아르헨티나의 1994년 농산물 수출 총액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품목은 곡물로서 전체의 22.9%를 점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료 곡물과 육류가 각각 21.0%와 11.2%의 순이 되었다.

이들 세 품목의 수출액은 1993년에 60%, 1994년 농산물 수출 총액의 55.1%(평균적으로 농산물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60%이며, 1970년대 말까지는 80%대를 점유하였다)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출 신장률을 보면 곡물의 경우 1979~81년 대비 63%가 되고 식용유 및 지방은 1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 주력 상품인 곡물, 유량 종자는 1년생 밭 작물로 그 해의 기상 상태에 따라 생산량이 변화된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는 수출 조정을 실시하는 금융 체제나 충분한 저장 시설의 부족으로 국제 가격과는 상관 없이 국내소비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확량 전체가 수출된다. 따라서 곡물

표 6-1 농산물의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불

품목별	1990		1992		1993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량과 축산물	4,530	139	4,832	696	4,630	748
생가축	8	6	8	37	13	15
육류	873	6	767	125	748	144
낙농제품	125	3	35	131	75	67
곡물	1,455	5	1,614	35	1,532	40
과실 및 채소	620	41	739	164	591	258
설탕 및 꿀	182	2	120	28	97	26
커피, 코코아	52	66	50	126	66	138
사료	1,196	4	1,458	10	1,448	14
기타	18	6	44	40	60	46
음료 및 담배	131	11	189	120	162	96
공산품 원료	1,166	72	973	113	842	130
식용류, 지방	1,150	4	1,099	21	1,063	17
계	6,977	227	7,093	949	6,697	991

자료: FAO, Trade Yearbook, Vol. 48, 1994.

재고량의 비율이 여타 국가들보다 낮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외화획득은 팜파스의 기후와 국제 시장에서의 수요에 달려 있다.

한편 축산물중 주요 수출품인 쇠고기는 1970년대 초반에 이미 50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1974년과 1975년에 EC에서 쇠고기 생산의 과잉으로 수입 규제가 실시되자 아르헨티나 쇠고기의 수출은 20만 톤으로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EC의 수입 재개로 곧 50만 톤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농산물의 수입은 수출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3년의 경우 수출액은 약 67억불인데 비해 수입액은 약 10억불로 농산물 교역 분야에서만 약 57억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과실 및 채소, 커피 및 코코아를 들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공산품의 원료로 사용하게 될 농산물

의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대외 무역

농산물 수출액의 경우를 보면 중남미는 1980~93년 기간중 수출 물량이 연평균 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동안에 주요 수출 농산물 가격의 침체로 교역 조건이 악화되어 농산물 수출액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농산물 수출·수입은 농산물 가격의 강세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농산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 의존국(EHDAEs)이다. 이들 국가들이 수출 지향성을 지속한다면 최근의 가격 상승으로부터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1998년까지 약 6%대의 성장률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코코아와 같은 단일 상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아프리카지역과는 달리 농산물 수출 기반이 다양하여 장기적으로 상품의 시장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교역 조건, 농산물 수출의 구매력, 그리고 무역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농산물 수출 구조에서도 아르헨티나는 크게 변모하고 있다. 이는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가공되지 않은 원료 농산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물로 수출이 전환되고 있다.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가공 농산물의 비중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1960년대초 10%에서 1995년에 약 30%로 높아진 반면, 아르헨티나는 50%로 크게 높아 졌다. 한편 전체 수출액 대비 농축산품의 비중도 50% 이상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농업은 중요한 외화 획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

품목별로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소맥의 경우 평균 생산량은 800만 톤 정도이며, 이 중에서 국내 소비는 종자용을 포함해 약 400만 톤으로

나머지 400만 톤이 평균 수출량이다. 소맥의 수출은 주로 브라질, 페루, 칠레, 볼리비아 등의 남미 국가들과 멀리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중국, 모잠비크, 시리아까지 다변화되어 있다. 특히, 브라질은 최대의 수입국으로 1994년의 경우 아르헨티나 밀 총수출의 71.5%를 점유하였다.

한편으로 아르헨티나는 현재 미국, 캐나다, EU에 밀 수출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다.

표 6-2 아르헨티나 밀(Trigo Pan)의 수출 상대국

단위: 톤

국 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볼리비아	23,718	23,528	8,722	1,500	148,258	103,064	65,005	53,344
브라질	1,063,912	928,861	1,635,951	1,810,329	2,889,043	3,248,856	3,473,974	3,761,043
콜롬비아	82,600	67,410	99,482	11,424	0	187,490	91,950	23,381
한국	63,178	21,300	0	0	0	0	0	0
쿠바	135,800	90,786	49,810	118,800	168,923	59,850	39,485	0
칠레	0	7,700	0	0	33,580	303,605	121,640	254,911
중국	808,958	304,147	1,131,388	749,764	444,861	42,000	32,589	0
네덜란드	0	0	0	0	1,700	1,500	1,500	9,575
인도네시아	240,734	190,156	10,000	308,155	375,550	350,805	292,539	514,669
이란	496,589	772,628	659,612	1,469,707	359,508	431,999	95,700	0
레바논	64,000	0	0	0	50,323	0	19,500	0
말레이시아	0	0	16,720	18,412	35,890	0	0	0
모잠비크	0	2,990	0	0	0	0	14,250	36,980
노르웨이	0	0	55,000	0	25,641	0	0	0
파라과이	0	0	0	0	23,460	29,125	40,933	7,192
페루	413,262	440,042	479,285	307,074	567,598	571,400	495,457	472,024
(공)도미니카	0	0	0	0	0	0	0	30,000
싱가포르	0	0	0	0	2,200	0	0	0
시리아	0	0	0	104,295	193,110	57,750	0	0
남아프(공)	30,000	0	0	0	0	30,172	37,430	14,201
터키	0	0	69,695	444,605	0	0	405,204	0
구 소련	541,093	633,400	609,112	466,053	31,723	0	0	0
우루과이	6,536	0	15,404	0	0	216,455	3,050	27,083
베네수엘라	199,547	151,557	111,435	0	46,300	12,800	28,583	24,100
기타국	27,500	37,376	0	37,300	146,765	410,652	338,936	33,000
합계	4,197,427	3,671,881	4,951,616	5,847,420	5,544,433	6,057,523	5,597,725	5,261,503

자료: S.A.G. y P. 1995.

옥수수는 1994년에 약 420만 톤에 달하는 총수출을 기록하였다. 이는 양적으로 전년 대비 약 10%의 감소를 보였으나 금액면에서는 FOB 판매가가 31% 상승하여 톤당 115달러에 달해 수출액은 총 4억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옥수수의 경우 소맥에 비해 생산 변동폭도 적고 수출량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대상국을 확보하고 있다. 전통적인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남유럽이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옥수수가 미국산보다 색이 진해서 이를 닭의 사료로 쓸 경우 계란의 노른자 색깔이 진해지고 닭고기도 황색빛을 띠게 되어 남유럽인의 기호에 맞기 때문이다.

표 6-3 아르헨티나 옥수수의 주요 수출 상대국

단위: 톤

국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독일	80,445	188,692	100,504	116,973	80,599	134,385	96,657	81,226
사우디	32,739	63,633	0	95,434	86,022	295,611	57,091	152,940
벨기에	264,112	179,116	90,400	42,012	62,973	28,250	23,842	25,073
브라질	118,855	32,086	206,425	449,938	544,287	429,845	1,113,687	1,016,064
콜롬비아	0	0	0	0	0	0	83449	123,645
쿠바	367559	518048	548244	421797	92829	17437	42401	0
칠레	0	0	0	0	43025	221996	122964	221,172
중국	143496	0	0	0	0	0	0	0
스페인	22,927	190,821	4,199	70,007	31,539	127,089	250,470	148,070
네덜란드	8,524	26,230	40,852	89,366	87,491	70,987	104,113	52,537
이란	923,458	443,710	622,946	795,767	516,278	340,567	134,998	49,150
이탈리아	197,396	188,255	65,745	53,751	152,282	65,375	80,469	15,358
일본	257,846	143,094	180	60,475	462,950	341,809	265,289	386,657
페루	0	256,385	45,188	115,750	444,772	648,285	478,524	477,641
시리아	0	0	0	28,188	57,983	32,844	148,942	108,884
대만	0	0	0	0	194,999	254,580	172,974	312,238
우루과이	43,793	35,883	59,375	21,159	21,508	29,977	33,573	164,035
베네수	0	0	0	0	0	98,230	328,608	193,693
총수출	3,962,997	4,232,567	1,879,351	2,921,784	3,840,376	6,054,974	4,699,520	4,116,110

자료: S.A.G. y P. 1995.

이외 국가들로는 아르헨티나 옥수수의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총수출의 24.7%)을 비롯하여 페루, 일본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 특히, 일본은 브라질에 이어 9.4%를 점유하여 3위의 수입국이 되고 있다.

수수의 경우 일본이 최대의 수입국이 되어 왔다. 일본은 아르헨티나 수수 총수출의 94.4%라는 높은 점유비를 보이고 있다. 그 외는 인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표 6-4 아르헨티나 수수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톤

국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브라질	0	0	0	0	0	0	13,735	5,201
쿠바	36,859	40,026	80,754	110,216	0	0	0	0
칠레	0	18,112	0	0	6,300	1,500	64,736	17,559
일본	790,994	1,078,007	190,277	755,769	1,223,530	893,164	755,640	403,248
우루과이	0	0	3,500	19	935	0	0	998
총수출	1,029,764	1,439,803	391,216	1,127,522	1,285,746	1,163,588	878,339	427,006

자료: SAGyP, 1995.

대두는 1976년부터 수출이 시작되어 왔으며, 수출은 주로 세계 최대의 유지 기업체인 네덜란드의 '유니리베사'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등으로 향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두는 대만, 멕시코, 독일,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생산 총량 중에서 수출이 약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EU(40%),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이며, 향후 구제역 오염지역으로부터 해제될 경우 보다 많은 지역으로 수출 가능성이 있다.

한편 쇠고기 통조림이나 훈제품은 영국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양고기는 서독,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

표 6-5 아르헨티나 대두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톤

국 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독일	80,150	133,001	55,790	347,699	355,469	200,334	161,830	218,032
브라질	0	0	0	0	251,279	194,557	26,428	48,171
스페인	0	0	0	296,105	496,931	203,688	135,755	286,285
그리스	1,380	86,616	25,050	6,621	121,967	85,151	121,106	188,853
네덜란드	410,444	1,043,440	233,139	1,270,578	1,721,540	1,055,588	920,856	656,244
이탈리아	77,850	368,364	52,500	341,113	476,981	487,216	383,379	282,843
일본	0	0	30,420	25,253	26,170	23,754	0	70,404
말레이	0	59,654	0	223,378	81,538	119,385	145,050	147,466
멕시코	0	0	0	43,395	19,515	23,790	59,842	241,467
노르웨이	24,500	28,000	0	96,699	70,626	46,510	0	30,197
포르투갈	23,750	194,870	0	127,617	298,703	15,117	42,844	24,000
대만	0	0	0	0	60,072	0	0	468,643
우루과이	0	0	0	0	0	0	0	13,212
총수출	1,291,852	2,096,266	429,849	3,258,675	4,405,636	3,105,408	2,219,406	2,914,450

자료: S.A.G. y P.

1996년 9월의 한 일본 농업신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산 쇠고기는 올해 영국에서의 광우병(Vacaloca) 파동으로 유럽 각지에서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쇠고기는 UR협상 결과 2001년부터는 41.2%의 관세만 부과되고 완전 자유화하게 되고,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로 국내 쇠고기 수요가 증대될 것임으로 향후 아르헨티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로의 쇠고기 수출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가열쇠고기제품 수입을 알아보려고 한다. 일본은 야마토니(쇠고기에 간장, 설탕, 생강 등을 넣고 삶아 통조림으로 만든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고 있는데, 국별 비중을 보면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다.

표 6-6 일본의 가열쇠고기제품 국별 수입 현황, 1995

단위: 톤

아르헨티나	호주	중국	뉴질랜드	브라질	기타	계
574	556	466	296	218	78	2,188

자료: 일본 대장성, 「무역통계」, 1995.

향후 1998년 썸이면 아르헨티나는 구제역 오염 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르헨티나에는 목초지가 풍부하여 최근에 논의되는 WTO협정에 따른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는 쇠고기 생산비가 여타 경쟁국보다 낮아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으며, 초지 비육우는 곡물 비육우보다 콜레스톨이 낮고, 비만을 방지하며, 암의 예방에도 더 효과가 있다는 홍보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팜파스 초원에서 사육된 쇠고기의 육질이 미국산이나 호주산에 비해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며, 가격은 저렴해 향후 국제시장의 쇠고기 무역에 커다란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곡물 비육우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에 비해 곡물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으므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기타 쌀의 경우 연간 수출량이 40만톤에 달할 정도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 국가들이다.

사료 곡물 수출은 연간 560여만 톤에 달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식용류의 수출도 아르헨티나로서는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대두유의 수출은 1994년에 145만톤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2%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이란, 브라질, 중국,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등이다.

해바라기유의 수출도 아르헨티나로서는 중요하다. 1994년에 약 77만톤의 해바라기유가 수출되었는데, 주요 수입국은 23%를 점유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 이란, 미국 등이다. 아마유는 1994년에 총 1만2천톤을 수출하였는데, 주로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으로 수출되었다. 면실류(Aceite de Algodón)는 1994년에 약 4만5천톤을 수출하였는데, 주로 이집트로 수출되고 있다. 낙화생유(Aceite de Maní)는 1994년 약 5만1천톤을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 및 독일이다. 향후 아르헨티나는 수출 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 식량 수급의 불안정 그리고 개도국에서의 수입수요의 증가는 향후

아르헨티나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더 낮은 경쟁과 더 큰 수요를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권역별 무역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향후 공동시장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역내 관세의 철폐와 대외공통관세의 설정을 목표로 우선 관세동맹으로 발효하였다.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그리고 파라과이이다. 시장규모는 <표 6-7>에서 보듯이 인구가 약 2억명을 상회하며, GDP가 7,650억 달러, 총수출 규모 621억 달러, 총수입 규모는 591억 달러로 아메리카에서 NAFTA에 이어 두 번째의 시장 규모를 지닌 경제통합체이다. 회원국들의 교역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점차 총수출 대비 역내 수출 비중이 높아져 1992년의 14.3%에서 1995년에는 22%에 이르고 있다.

표 6-7 MERCOSUR의 경제 지표

회 원 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97년도 칠레가입 확정
인 구	2억 60만명('94)	전세계 인구의 3.8%. 칠레 가입후 2억2천만명.
G D P	7,650억 달러	
총 수 출	621억 달러	총수출의 20%가 농산물 및 식품. 주수출상품: 육류, 곡물, 기름, 모직, 축산 제 품, 과일류, 코코아, 커피 등
총 수 입	591억 달러	
역내수출 비 중	22%('95), 19.3%('94)	
면 적	1,200만 km ²	남미대륙면적의 2/3. 전세계 육지면적 의 8.5%. 농지는 전세계농경지의 12% 상회
기 후	아열대-온대-한대	

자료: CEPAL, Balance Preliminar de la Economia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1995;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Quarterly, Dec. 1995; Latin American Economy and Business, Dec. 1995.

MERCOSUR은 약 1,200만 Km²에 달하는 면적을 갖고 있으며, 이는 남아메리카의 면적에서 2/3에 해당하며 동시에 세계 경지면적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네 국가는 세계의 곡물 생산 가용 경지면적의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반면에 인구는 세계 총인구의 3.8%에 불과하다. 환경 차원에서 볼 때에도 남아메리카는 전 세계 지표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오염되지 않은 2억ha의 가용 경지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잠재력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집중되어 있다¹¹⁾.

이렇게 볼 때 MERCOSUR은 농산물 수출의 기본 하부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는 국가 군이다. 현재에도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같은 온대권 국가에서는 세계 시장에 육류, 곡물, 식용류, 양모, 낙농 제품, 과일 등을, 브라질은 열대권 국가로서 코코아 및 커피를, 그리고 이외에 이들 네 국가는 감귤류를 수출하고 있다.

MERCOSUR경제는 확실히 농산물 수출 경제이다. 이 지역 수출의 20%는 식품 및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총수출액은 200억달러에 달했다. 더 나아가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아르헨티나는 총수출의 39%를 농산물 및 식료품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어 19세기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1차재 수출 경제 성장을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8 아르헨티나의 대MERCOSUR 수출 구성비

단위: 백만 달러

항목	1990		1993		1993/90 (%)
	수출액	비율(%)	수출액	비율(%)	
농산물	582	32	909	25	+56
식료품	365	20	512	14	+40
공산품	777	42	1,567	43	+102
연료 및 에너지	108	6	673	18	+523
합계	1,832	100	3,661	100	

자료: SAGyP, MERCOSUR Agropecuario -actualidad y perspectivas.

11) Sammarchi and Lara, "Trade and Environment management in the framework of the integration schemes," Uni. of El Salvador, 1995. 4.

아르헨티나의 대MERCOSUR 수출의 구성을 보면 농산물의 수출과 가공된 농산물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곡물에 대한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의 수입수요가 밀, 옥수수, 쌀 등을 중심으로 향후 크게 증대할 것으로 보여 아르헨티나의 대MERCOSUR 수출은 관세·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따라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대MERCOSUR 수출의 25%는 농산물, 14%는 1차 가공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의 교역 상대국은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대MERCOSUR 수출에서 76.2%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84.7%를 기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대브라질 수출의 구성은 농산물 중에서는 밀이 전체의 46.3%, 옥수수가 15.8%, 쌀이 5.4%의 점유비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새의 고기, 커피, 냉동 돼지고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9 MERCOSUR의 대동아시아 수출액과 시장 잠식률

시장	수출U\$S백만	시장 잠식률(%)
Asia Pacific	1705.5	1.7
중국	76.3	1.6
한국	145.4	1.6
인도네시아	132.3	5.1
홍콩	140.0	1.5
태국	33.3	0.9
말레이시아	94.8	3.0
필리핀	39.2	2.2
싱가포르	54.3	1.0
일본	989.8	1.7

자료: Ministry of Economy, Argentina, based on COMTRADE, U.N.

한편 아르헨티나 농산물의 권역별 수출 구성비를 보면 EU(유럽연합)가 38%로 가장 높고, 다음이 MERCOSUR로 21%, NAFTA가 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MERCOSUR 국가들의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 시장은 8.5%인 17억 달러에 불과하다. 한편 이들 제품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MERCOSUR로 부터의 수입은 불과 1.7%에 불과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동아시아 시장의 잠식률은 0.6%에 그치고 있다.

〈표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MERCOSUR 수입은 저조하며, 인도네시아가 가장 크고 한국은 1.6%에 그치고 있다. 수입 품목을 크게 7개로 나누어 보면, 커피, 식용류, 과일주스, 보완적 곡물(Secondary cereals), 펄프 및 휴지, 유채종자(Oil seeds), 가공육 순이다.

Cap 박사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MERCOSUR는 670만 톤의 밀, 1,200만 톤의 옥수수, 1,580만 톤의 대두, 500만 톤의 해바라기, 55만 톤의 쇠고기를 향후 2000년에 세계시장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²⁾.

따라서 향후 MERCOSUR 국가들은 대동아시아 수출 확대를 위하여 “장기 전략 차원의 식품 및 농업을 위한 동반자적 협조체(a long-term strategy of food and agriculture partnership)”를 위해 양지역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과의 무역

우리 나라와 중남미간의 교역은 1995년에 113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교역 규모는 우리 나라 대외 교역량의 4.3%에 상당하나 약 3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중남미 교역 규모는 아시아 국가

12) Eugenio Cap. “Argentina: The Sustainable Growth Potential of the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in the Agricultural secto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Technology, Argentina.

1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4;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Quarterly, 1995. 12.

들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일본의 경우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대중남미 교역 규모는 4.2%, 중국은 2.1%, 홍콩 1.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¹³⁾.

한편 우리 나라와 아르헨티나간의 교역 규모를 보면 1995년에 약 4억4천만달러를 기록하여 대중남미 교역의 약 4%를 점유하는 미미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역수지 면에서 보면 약 1억7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1990년대 들어 최소치이며, 이는 1995년도 들어 전년도 대비 수입 증가율이 94%를 기록 한데에 기인하고 있다.

표 6-10 우리 나라의 대중남미, 대아르헨티나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대중남미(A)	대아르헨티나(C)	C/A
총 교 역	1994	9,710	546	5.6
	1995	11,334	438	3.9
수 출	1994	6,430	448	7.0
	1995	7,370	305	4.1
수 입	1994	3,280	68	2.1
	1995	3,964	132	3.3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 나라의 대아르헨티나 수출 품목을 보면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섬유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입 품목으로는 농림수산물과 철강 금속 제품이 주류이다. 수출 품목중 전자·전기제품의 비중은 약 50%에 달하며, 수입 품목중 농림수산품은 -옥수수, 대두박, 면실유박, 밀기울, 우황, 육류 수우프, 침엽수 제재목, 오징어, 농어 등-약 68.2%에 달해 공산품을 수출하고 1차산품을 수입하는 교역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제 7 장

대아르헨티나 농업분야 협력 가능성

1. 과거의 개발 사례

1.1. 한국의 개발 사례

우리 나라의 대아르헨티나 진출은 초기에는 개발이 아닌 이민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아르헨티나에 문을 연 한국인은 1941년 일본인의 양자로 입적한 이차손씨(일본명 小林)이며, 6·25동란후 반공 포로 10여명이 인도를 경유하여 1957년에 이주한 기록이 있다¹⁴⁾.

그러나 남미 이민이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추진된 것은 5·16혁명 이후에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지에 개발을 위한 집단 농업 이주가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그러나 사후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았고 지속적이지 못해 이들 국가로부터 일부가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여 1965년 10월경

14) 이구홍, 「한국이민사」, 중앙신서, 1979.

에는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약 1백세대가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아르헨티나 농업 이민의 시작은 1965년 10월 거주 교민인 홍종철, 이영호 등이 Río Negro주 정부로부터 400ha를 불하 받아 제1차로 20세대가 8월 17일 부산항을 떠나 이주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지 농장의 무성한 잡초와 농기구의 절대 부족으로 수도로 혹은 제3국으로 이주하여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후 1968년에는 해외개발공사가 집단이민을 추진하여 La Marque농장에 10세대(48명)를 정착시키어 토마토 등을 재배하게 됨으로써 최초의 농업 이민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1972년에는 해외개발공사(국제협력단의 전신)가 추진하여 10세대를 Lujan농장에 정주시키었다. 그러나 몇 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농토를 떠나 도시로 유입되었다.

1981년 우리 나라의 직업별 분포에 의하면 전체 교민수 4,571명의 3.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⁵⁾.

다음으로는 우리 나라의 과거 대아르헨티나 개발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5) KIET, 「해외협력확대방안」, 1982.

표 7-1 아르헨티나의 한국 농장 현황

	얏따마우까	라마르게	루한	산로렌소	이스까야꾸	산하비에르
구입일자	1978.8	74.1	71.3	73.11	1977.	1981.3
구입 구분	외무부		주칠레대사 & 해외개발공사	개인(김병도)	교민(윤상해)에 의해 준비	보사부
면적(ha)	20,894	187	11	100	500	2,714
구입가격(\$)	2,115,068	3,812(20/ha)	18,887		총 123,500	1,912,235
추정가격(\$)	400,000					800,000
영농세대		'64 25세 대 (추후 '67까지 전원 이탈 '67 해외공에 의해 현지 6세대 흡수 '74 토지 불하 받음.	칠레의 꽃 배 이주자 9세 대로 아르헨티나에로의 이주 추진 '81년 전원이 탈	최초 11세대 이주	20세대 이주 계획	현재 1세대 (당시 12세대 48명)
채무액(\$) (잔액)					토지대중 40%는 이주시 지불, 잔액은 7년간 분할상환	채무액 640,152 (230,110)
추진경위	정부주도 남미 시범농장 개발 및 이주계획으로 구입	한국농업이민 단	칠레의 꽃 배 이주 계획	영농이주거점 확보	농업이민 이주	얏따마우까와 동일
관리실태	'79 정부조사단 영농부적지 판정/국내기업 및 희망자 임대개발 시도/관리인 1명	토마토, 과수, 소채3면이 강에 인접, 수리시설 좋음. 토질은 사토질운송편리	배대한 박사의 주장으로 양봉 시도	토마토, 과수, 원예담수로 제염가능	용수 용이/농산물 소비지 버, 콩, 시설원예, 양봉, 육우, 과일	미곡생산 년 약 2,000톤 육우 2,500두 사육 성공적인 영농 사례
문제점	장기간 방치/일부 토지소유권 분쟁소지 (장기 불법 거주자 7세대 30ha점유/년간 유지비 2만불 지출	지하심층은 염분/강풍 농장원들과 분할등기이전으로 불화	농장 소유권등기 농장규모협소 영농자금부족	향후 토지불하 전망 불투명 이주자 이탈	개별분할등기	없음
대책 및 방침	다각도로 검토 중					'97까지 잔액 상환후 권리이전

1.1.1. 앳따마우까 농장 개발

Llajta Mauca농장은 수도에서 서북부로 986Km에 위치한 Santiago del Estero주에 위치해 있다. 이는 1975년 청와대의 남미 농업이민 사업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해 대남미지역에 새마을 시범 농장을 건설하여 향후 농업이민을 확대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면적은 20,898ha로 약 6,333만평에 달하는 여의도 면적의 70여배의 규모이다. 그러나 1979년 10월 외무부 합동조사반에 의해 영농 부적지로 판정받은 후 지금까지 농장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동안 국내의 관계자와 현지의 농업 생산성 회사가 수차례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왔다.

1992.8 현지의 AMADEO SAINÉ 생산성 회사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농축산물 가격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경제성 불투명, 강우량은 600~700mm이나 가을에 집중되고, 토양 염분이 과다 검출되어 농작물 재배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목화, 옥수수, Alfalfa목초 재배는 절대평가 할 때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더불어 향후 곡물을 재배코자 할 경우에는 10~20년간 년 \$610,000투자가 개발을 위해선 필수임을 밝히고 있다.

현지 한국 농학자 및 주아르헨티나 한국 조 기성대사는 축산 및 조림 사업으로 개발 가능성을 강구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림의 경우 eucalipto(미루나무류로 펄프 용지의 질 최고)를 약 10,000헥타에 조림하고, Chip공장을 세워 6년후부터 목재를 Chip으로 가공해 세계 6위의 펄프 제지 수입국인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축산의 경우 조림지역 외(염분이 심한 지역 약 4,000헥타는 제외)에 목초를 재배하여 목축 사업을 실시하고, 비육사업을 병행하여 한국에 군납 등의 목적으로 퀴타의 도입을 강구하거나 어린 소로 사육한 후 팜파스로 보내 성우로 사육할 수 있다.

이외에 물 저장 탱크를 설치하여 목축 및 조림시 이용하고, 정부는 10

년 이내에 투자금 (약500만불)을 환수하고 연고자에게 토지를 인도하여 민영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¹⁶⁾.

그러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조림과 축산에 대한 가능성도 있으나 앞의 여러 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여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비교 우위가 없다고 본다. 그밖에도 물과 전력이 절대 부족하다. 물의 경우 인접 강(Río Salado)의 수량이 풍부하지 않고, 또 그나마도 하류지역으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전력의 부족은 각종 설비 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또한 개발비로 연간 50만 불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면 훨씬 개발 조건이 유리하고 교통도 좋은 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다만 ‘얏따마우까’ 농장은 우리 정부가 엄격한 의미에서 최초로 대규모의 토지를 구입해 해외 개발 및 농업 이민을 위한 이주를 계획했던 곳이고, 정부 차원의 해외 농업 개발의 실패 사례 모델로 남아 있으며, 아울러 우리 나라 정부의 이미지도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는 참으로 아쉬운 표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라도 ‘얏따마우까’ 농장 건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1.2. Santa Fe 농장

산타 페농장은 수도로부터 북방 640km 지점의 산타 페주 San Javier시에 위치해 있어 산 하비에르농장이라고도 한다.

산타 페농장은 1980~81년도에 정부 주도의 남미 농업 이주 사업 계획에 의거해 1981.3 총면적 2,714헥타(영농지 1,732헥타, 침수지 982헥타)를 \$1,912,235.62에 구입하였다.

1981년 12월 총 11세대(64명)가 입주하였으나 현재는 초기 이민자인 이 창호씨만 남아 쌀 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KOICA는 1992.4. 이 창호

16) 1996.5.7.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조기성 대사와의 회견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임.

씨에게 연불조건(년 \$115,000) 으로 계약 인도하기로 하였으며, 1997년에 분납금 완불과 등기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산타 웨농장의 특징은 영농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쌀 재배에 특화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장주 이창호씨는 이민이래 줄곧 농업에 종사해 왔다는 점을 인정 받게되어 1994년 상허대상(농업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산타 웨농장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2절의 산타 웨 한인 농장 모델 연구에서 후술하겠다.

1.1.3. 기타 농장

이외에 라마르게 농장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서남방 1,200km지점의 Choele Choel시(Rio Negro주)의 서남방 21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루한 농장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서남방 약 73km지점에, 산로렌소 농장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서남방 1,400km 지점의 General Conesa시로부터 18km지점에 위치해 있다.

라 마르게 농장은 초기 민간 주도 후기 정부 주도라는 특이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현지 이민 세력들이 주정부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아 시작이 되었으나, 초기 이주자 모두가 이농하자 1968년에 해외개발공사(국제협력단의 전신)가 집단이민을 추진하여 La Marque농장에 10세대(48명)를 정착시키어 토마토 등을 재배하게 됨으로써 최초의 해외농업 개발을 위한 농업이민으로 기록되었다.

루한 농장은 애초에 칠레가 목적이었던 화훼 재배 이민을 안착시키기 위해 급작스럽게 마련한 농장이었다. 농장 규모의 협소와 영농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전원이 이탈하여 1989년 10월에 매각하였다.

한편 이스까야꾸농장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1,25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농장은 1977년 교민 윤상해씨가 해외개발공사에 이주 계획안을 제출하여 시작되었지만, 추진 경위와 과정에 있어 처음부터 정부 기관이 세밀하게 개입한 점과 해외이주법이 발효된

1962년이래 정부가 추진한 최초의 집단영농이민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앳따마우카농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장이 민간에게 불하되어 있거나 불하 예정(산타 웨농장)으로 있다. 라 마르께와 이스까야꾸농장은 1984년에, 산 로렌소농장은 토지 불하 문제로 해결을 보지 못하여 입식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고 말았다.

위에서 살펴본 농장 이외에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북방 150km (Baradero)에 위치해 있는 성산농장을 들 수 있다. 성산농장은 부산에서 집단농장을 경영하던 5가구에 의해 1986년 설립되어 30ha 규모에 무, 배추, 호박, 가지, 오이, 풋고추, 고추, 깻잎 등 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념 채소 재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는 6가구가 투입되고 있으며, 현지 노동력으로는 월남인 5명과 아르헨티나인 5명을 쓰고 있다. 장비는 트랙터 3대, 경운기 1대, 비료 측정기 1대, 스프링 쿨러 등이 있으며, 애로 사항은 주로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판매가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화훼, 매실, 복숭아, 귤, 키위 등의 작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타 웨주 서부 지역의 Ceres에서는 1987년 이민간 양성육씨가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일부 지역에서는 양봉업에 적합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곳의 벌들은 비행 거리가 4~5km에 달해, 한국의 2km에 비해 월등한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다. 현재 양성육씨 소유의 양봉장에서 생산되는 꿀은 1.8\$/kg으로 계속 오름세에 있다. 총 생산량은 132드럼으로 총매출액은 드럼당 500달러로 66,000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조만 간에 10만 달러의 소득을 꿈꾸고 있다.

즉, 우리의 과거 대아르헨티나 이민과 연계된 농업 개발은 앳따마우카와 산 하비에르농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와 그 외의 농장들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형태를 다 경험해 보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아르헨티나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 및 영농 이민 사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에 주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이민 업무 담당자들이 현지 지역 사정에 어두웠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분산책의 일환으로만 생각하였으며, 수민국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아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계할 수 없었다.

둘째, 이주자들의 대다수는 영농에 종사했던 자들이 아니며, 영농에 관심을 가졌던 자들도 아니었다. 또한 선발후 영농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수반되지 못했다.

셋째, 영농을 위한 적정한 토지 선정 및 영농 여건 조사가 되지 않았으며, 지리적으로 내륙으로 치우쳤고 그나마 대규모 영농에 익숙하지 않았다.

넷째, 이민자들의 아르헨티나 이주후 관련 기관의 기술 지원, 자금 지원, 행정적인 지원 등 이주후 사후 관리가 철저하고 지속적이지 못했다.

끝으로 수민국의 이민 정책 및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호혜적인 농업협력이라는 표본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다만 산타 레농장, 성산농장, 양성옥씨 양봉장 등은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공은 귀감이 되는 사례이며,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꼭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1.2. 일본의 개발 사례

일본의 경우 역시 최초의 대아르헨티나 진출은 이민으로 시작하였다. 1959년 약 400여 세대가 Misioneros주에 ‘가루아빠’ 이주지를 건설하여 이주하였다. 이들은 이후 약 300ha의 면적에 주로 감귤류, 담배, 홍차, 조립 등을 실시하여 처음부터 농업이민을 통한 작은 해외개발에 힘썼다.

또한 동년에 제2의 ‘안데스’ 이주지가 Mendoza주에 건설되어, 약 1,300ha 넓이에 안데스 산맥의 기슭에서 주로 포도, 복숭아, 딸기 재배를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교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화훼 및 야채 재배를 위한 소이주지를 건설 분양하였다.

1986년 아르헨티나 거주 일본인의 수는 약 3만 여명에 달하였으며, 이

중 28% 정도는 농업에 종사하였다¹⁷⁾.

일본의 이민 송출에 대한 경영 실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이민 행정은 외무성이 주관 관청이 되고, 각 성이 협력하는 방법으로 일관되어 왔다. 특히 이주 행정의 실시만을 담당하는 실무 기관으로 1974년 8월 1일 국제협력사업단(JICA)을 설립하였다.

외무성은 주로 이주자의 현지 보호, 수민국과의 외교적인 교섭과 안정된 이주를 위한 이주 협정의 보완 및 체결, 현지 조사를 통한 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하고, JICA는 해외이주자의 지원 및 지도를 위한 조사로서 정착지 적지 여부 조사, 이주 대상국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정된 정착지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농가 경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협력 기업이 진출해 있을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며, 보다 구체적인 이주지 자립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주 관계 자료의 수집 및 번역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한편으로 해외이주에 관한 개념 확립과 청소년들에 국제 협력 차원의 해외이주의 의의 등을 홍보, 청소년들로 구성된 해외 이주지로의 실습을 위한 파견, 이주지에서의 문화 활동 전개, 우수 이주자의 모국 방문 및 이주 경험담 설명회 개최, 모국의 학자 강연회 개최, 상담 코너 등을 운용하였다.

여기에서는 과거이민으로 시작된 우리 나라의 해외농업 개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 일본과의 비교를 하고자 한다.

17)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일본인의 해외이주」, 1986. 5.

표 7-2 한일 양국의 대아르헨티나 해외농업 개발의 경험 비교

	한 국	일 본
해외이주개념	인구분산 및 국위선양	개발능력의 현지화를 통한 세계화
이민정책	폐쇄적, 규제적, 관 주도적 시행	개방적, 탈규제적, 집행기구 주도
해외농업개발	사전 연구 불충실에 의한 토지 구입	충분한 사전 연구에 의한 토지 조성
방식	및 개발, 상대적 대규모	및 소이주지 건설 분양
이민협정체결	협정 체결 전 개발 시도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와 이민협정 체결
이주자교육	교육기간: 총 286시간(실내214, 실외72)	9일-1년.
재정적지원	국내이주수속비과다, 도항비 자비, 이주후 무상 지원이 많았음	수속비용 최소화, 도항비 및 준비금 일체 지급, 이주후 직접적 지원 없음.
사후관리	'70년대 전반 전혀 없음. '80년대 무상, 장기분할상환, 생계비 지원	간접적, 측면적 지원의 현지 생활 여건 조성에 주력.
관련기관	보사부, 외무, 노동, 법무, 경제기획원	외무성, 국제협력사업단
농림업종사수	'81 3.6%(아르헨티나)	'86 28%(아르헨티나)

자료: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해외협력확대방안, 1981; 경제기획원 대외경제 조정실, 일본인의 해외이주, 1986. 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보완한 것임.

첫째, 해외이주의 개념에서의 차이다.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민 개발 사업은 이민 송출국과 수민국간의 호혜주의 차원의 국가간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 분산이라는 2차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국가 정책상의 중요성을 지니지 못하였으며, 과밀 인구의 해외 송출에만 급급하여 장기적 안목의 국제협력의 기초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이민의 추진을 일찍부터 국책 사업으로 인식하고 정부 예산에서 매년 보조금을 책정하였는데 1973년에는 25억엔(해외이주사업단의 교부금 예산, 1974년부터는 국제협력사업단으로 변경)에 달하였다. 더불어 일본은 해외이주를 종래의 노동력 이동이라는 개념에서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 능력의 현지 이동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 개념으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둘째, 우리의 이민 정책은 일본의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규제적이며, 관 주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민 제도 및 절차에서 전반적으로 규제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국민의 일반 의식이 폐쇄

적인 성향이 있어 개척자 정신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일본은 헌법 22조에서 이민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아울러 정책상 해외이주에 관한 조사 및 홍보를 적극화하여 국민들의 이주 의식 개방화에 노력하였다.

셋째, 해외농업개발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사전 지역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규모 개발을 시도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2차대전 이후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100km 이내, 1976년 비델라 군사 정권의 200km 이내 정착 제한이라는 규제에 인하여 상대적으로 내륙(물론 아르헨티나 당국의 선호하던 정착 방식이기는 했지만)으로 들어가 대규모의 농장 개발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역시 최초의 대아르헨티나 농업 개발을 위한 진출은 이민으로 시작하였다. 1959년 약 400여 세대가 미시오네스주에 '가루아빠' 이주지를 건설하여 이주한 것이 최초였다. 이들은 약 300ha의 면적에 주로 감귤류, 담배, 홍차, 조림 등을 실시하였으며, 결국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업이민을 통한 해외개발에 노력하였다. 또한 동년에 제2의 '안데스' 이주지가 멘도사주에 건설되어, 약 1,300ha 넓이에 안데스 산맥을 따라 주로 포도, 복숭아, 딸기 재배를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교에서 계절에 따라 대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화훼 및 야채 재배를 위한 소이주지를 토지 조성후 분양하였다. 즉 일본은 곡물이나 축산보다는 특수 작물 재배에 더 관심을 보여 이주자의 빠른 생활 안정이 개발 능력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한국은 1980년 이전까지 여하한 남미 국가들과의 이민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1908년 브라질과 「일인 이주 계약」, 1955년 파라과이와 「일·파 협정」, 그리고 1956년에는 볼리비아와 1961년에는 아르헨티나와 각각 이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진출국에서의 자국민을 보호하고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함으로써 장래의 일인 이주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다섯째, 이주자 교육을 들 수 있다. 우리의 농업 이주자를 위한 교육의 실태는 <표 7-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이주 실무 기구인 국제협력사업단은 이주 적격자의 선발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상담을 통해 충분한 이해와 개척 의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일본의 교육은 합숙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 연대 의식의 함양과 협동화 정신을 고취시키어 장차 진출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이주 희망자를 위한 장단기 훈련 과정을 운영하여(9일~1년: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일률적으로 총 286시간에 불과하였음), 대상국에 대한 어학, 현지 사정, 농업 기초 지식 등을 강습하였다.

표 7-3 한국의 농업 이주자를 위한 교육 내용

	과 목	시 간		비 고
		실내	실외	
합 계		214	72	총 286시간
새마을 교육	새마을 정신 교육	40		
농업교육	토지개량 및 비료	6		농업전체, 주종작물 사료작물, 채소 양계, 양돈, 면양 포장정비, 물관리, 개간 주택, 가공, 저장창고 영농장비, 농기계
	작물(이주대상국별)	33		
	원예, 목초	18		
	가축일반	18	6	
	농업토목	20	9	
	농업시설	9	9	
	농기계	10	30	
	농업경영 및 시장유통	5		
국내시설 견학	농장		12	
	농사시험장		6	
스페인어 교육	기초 서반아어 회화	40		
남미 현지 사정	이주대상국 현지사정	6		
여행상식	일반 여행 상식	3		출입국절차, 여행상식
기타		6		입교식, 수료식, 주의사항

자료: 해외개발공사.

반면에 우리 나라의 경우 총 286시간이 되는데 크게 농업교육 173시간, 스페인어 40시간, 새마을 교육이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총 이주 교육중 214시간(약 3/4)이 실내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이민 구성자의 직업은 시장 상인, 일부 부유층, 장교 출신, 서독 광부 출신, 반공 포로 등으로 되어 있어 국내 교육의 실효성의 문제와 더불어 수민국에서의 이농 등으로 인해 수민국의 경제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지 못해 이후 수많은 외교 문제가 발생되었다.

여섯번째, 재정적 지원에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재정적 지원 문제는 이주전과 이주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주전 문제를 살펴보고, 이주후 문제는 다음의 사후관리면에서 다루어 본다. 우선 이주 수속비가 과다하였다.

평균적으로 이주의 경우 28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도항비도 자비로 부담되어 이주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국제협력사업단이 주선하는 이민의 경우 최소한의 수속비를 이주자에게 부담시켰으며, 도항비와 준비금까지 지원하였다.

일곱번째, 사후 관리의 문제다. 우리 나라는 1970년대 전반까지는 남미 이민에 대하여 전혀 사후 관리가 없었으며, 오직 문호개방을 통한 수출만을 중시하였다. 다만 1980년대 들어 남미 이민의 실패에 대한 수민국의 신뢰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의 지원에 노력하였다. 그 지원 내용은 토지대, 주택, 영농 장비, 개간비 등은 정부가 50% 무상 원조하고 나머지는 3년거치 5년상환 무이자 내지 2~3%의 저리로 지원하였으며, 이민후 1년간 생계비조로 월 300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이는 1세대당 평균 7~9만 달러에 달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이주후 관리를 위해 국제협력사업단의 실행 계획에 따라 시험 농장 설치 운영, 농가 경영 조사, 시장조사, 기계류의 대여, 자치회 지도 육성, 진료서 설치, 학교 운영, 농업 용자, 농업 인프라, 토지의 조성 관리 및 분양에 힘썼다.

또 한편으로는 해외이주에 관한 개념 확립과 청소년들에 국제협력 차원의 해외이주의 의의 등을 홍보, 청소년들로 구성된 해외이주지로의 실습을 위한 파견, 이주지에서의 문화 활동 전개, 우수 이주자의 모국 방문 및 이주 경험담 설명회 개최, 모국의 학자 강연회 개최, 상담 코너 등을 운용하여 지속적인 이주 대책에도 부심하였다.

아울러 인접국 이주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연수, 이주자들의 농경연구모임 활성화, 도시에 자국이 운영하는 농업정보실 설치, 이주자의 생활 환경 정비, 이주자 자녀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착지의 취득 및 건설 분양이다. 이같은 조성 분양으로 1984년 조성 구획수는 아르헨티나에만 398건에 달하였다.

한·일 양국의 이주후 사후 관리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지원을 직접적인 보조·원조(이주후 무상원조는 없었다) 보다는 간접적이고 측면적인 방식으로 이주 여건의 조성에 노력을 하였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현지에서의 관리 감독 체제가 미비한 가운데 무상원조를 많이 하였으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중국에는 많은 남미의 농장이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 압박을 받게 되었다.

여덟번째, 관련 행정조직의 비효율적 운영이다. 이민을 통한 해외개발 사업은 그 성격상 여러 부문의 협력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종합적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보사부 해외이주과의 정책 결정에 의하여 관련 부처인 외무(수속상 절차 및 교민 사후 관리), 노동, 법무, 경제기획원(예산 및 재정적 지원), 수산청(어업 이민)이 모두 협력을 해야 하나 사실상 중지를 모으기가 힘들었다. 해외개발공사는 단지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당시 보사부에서 이민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은 1950~60년대 이민이 주로 입양, 국제결혼 등에 연유되었고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저소득층 이민이라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의 고려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민국과의 호혜적인 협력 차원이라는 점과 집단이민은 수민국 사정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입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소관 업무로서는 적

절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일본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총리성 소속의 [해외이주심의회](1955년 설치)에서 설정 제시되고 주무관청인 외부성 산하의 국제협력사업단과의 업무의 명확성과 간결한 조직 운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가능했다. 특히 외부성은 적극적인 이민 교섭으로 안정된 이주를 위해 남미 4개국과 이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제협력사업단은 수민국에 대한 정보 수집과 홍보 활동으로 자국민의 이주에 대한 적극성을 고무시켰다.

아홉번째, 이와 같은 양국간의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방법의 차이는 아르헨티나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농림업 종사수가 우리 나라는 1981년에 3.6%에 불과하였으나, 일본은 1986년에 28%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끝으로 민간 기업에 의한 해외농업개발은 무엇보다도 대상국의 지리, 문화, 역사, 경제, 유통, 수확후 처리 등의 문제에 보다 많은 사전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일본은 진출 기업이 진출 국가에서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문화에의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투자 시에도 지역의 특성화를 위한 교육 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하고 있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출국 후에도 현지에서의 교육 및 관찰 연수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이주를 위한 이주비 지원금 제도의 운영, 자국의 농업 전문가의 파견을 통한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인접국 이주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연수, 이주자들의 농경연구모임 활성화, 도시에 자국이 운영하는 농업정보실 설치, 이주자의 생활환경 정비, 이주자 자녀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착지의 취득 및 건설 분양이다. 이같은 조성 분양으로 1984년 조성 구획수는 아르헨티나에만 398건에 달하였다.

결국 일본의 성공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첫째, 해외이주의 개념이 확실했다¹⁸⁾. 이는 공존 공명의 세계를 지향한 세계 협동체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아울러 이주를 종래의 단순한 노동력의

이동 차원에서 개발 능력의 현지 이동이라는 국제협력 차원으로 승화시키었다. 둘째, 우리 나라의 이민 정책이 부수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반면에, 일본의 이민 정책은 구체적인 국가 정책에 의해 실시되었다. 셋째, JICA의 이주자를 위한 사전 사후 총괄 경영의 구체성을 들 수 있다.

2. ‘산타 웨’ 한인농장 모델 연구

올해 우리 나라는 WTO협정에 따른 MMA물량(약 44만 섬에 달함)으로 쌀을 해외로부터 구입하기 위해 6월 5일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한 결과 최종적으로 중국산 쌀로 결정하였다.

이 쌀은 중국 북부 흑룡강성과 랴오닝성 일대에서 생산된 것으로 (주)대우에 의하여 국내 도착 가격 기준 \$441.67/톤으로 수입이 결정되었다. 이는 \$1,820/톤에 달하는 국내 시세의 약 1/4에 불과한 가격이다.

한편 수입되는 쌀은 국내 쌀 생산 농가의 출하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보유 재고가 가장 적은 국내 수확기 이전인 9월초까지(수입 절차상 필요한 기간으로 3개월 고려) 국내에 도착토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와 생산과 수확 시기가 다른 아르헨티나의 이점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쌀을 중심으로 향후 해외개발 내지 개발수입을 대비하여 산타 웨농장의 농업 생산 여건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 18) 일본은 1962년 해외이주심의회에서 해외이주의 이념을 정립한 바 다음과 같다.「해외이주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할 이념은 국민에게 자국과는 다른 해외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직접 간접으로 국민이 보유하는 잠재적 능력을 해외 일선에서 개발함으로써 상대국에 대한 개발 협력과 세계의 복지에 대한 공헌을 이룩하여 자국과 자국민의 국제적 성가를 높이는 것이라야 한다. 더 나아가 이주는 종래와 같은 노동력의 이동이 아니고 개발 능력의 현지 이동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 1. 산타 웨농장의 일반 여건(중국, 러시아와 비교)

〈표 7-4〉에서는 이미 중국의 삼강평원에 농업개발 목적으로 진출한 대륙개발과 러시아에 동일 목적으로 진출한 고합그룹 그리고 아르헨티나 산타 웨주의 한인 농장간의 농업 경영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다¹⁹⁾.

물론 삼강평원과 러시아의 연해주에 진출한 기업농 형태와 개인농인 산타 웨농장을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다같이 농산물을 재배(재배 작물은 다르지만)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개발수입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제반 농업 여건 및 개발비 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중국의 삼강평원과 러시아의 농장은 동경 132°, 북위 45°내외의 비슷한 기후 권에 위치하여 경작 가능한 농작물도 유사하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산타 웨농장은 서경 60°, 남위 31°의 온대기후권에 위치해 경작 가능한 작물이 우리의 기초 식량인 쌀뿐만 아니라 밀, 옥수수 등 보다 다양하다. 농장의 개발 형태를 보면 삼강평원은 개발을 통해서 경지를 조성한 지역이고 러시아의 농장들은 기존의 집단농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나, 산타 웨농장은 기경지를 이용(일부는 개간)하는 개인 농장의 형태를 띄고 있다.

19) 본 비교는 김운근, 고재모, 석현덕, 이일영, 1995.12. 「동북아 역내 농산물무역 및 농업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및 북한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R339. 와 산타 웨 한인 농장주인 이창호가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식량 기지화를 위한 건의」 Paper. 1996. 에 근거하여 만든 것임.

표 7-4 삼강평원 연해지방 산타 웨 농장의 농업경영 비교

구 분	대륙개발 삼강평원 두홍농장	고합그룹 연해지방 순야센농장, 크레모 브스키농장	아르헨티나 산타 웨 농장
형태	농업합작개발	합작경영	개인 영농
개발 또는 합작여건			
토지이용면적	38,000ha	각각 1,000ha	2,700ha
자연조건			
연평균기온	2.6°C	최고33°C, 최저-36°C	19.30C
강수량	528mm	500mm내외	925mm
평균무상일수	146일	130일	260일 이상
연간일조시수	2,500시간	2,500시간	
농지이용형태	신개발	기경지 이용	기경지 이용
노동자 이용	현지 주민	현지 농민	현지인 8명 고용
자본금 투여액*	28,544(천달러)	120만달러	약 191만달러
경작(예정)작물	대두, 소맥	대두	쌀
생산비(달러/톤)			
대두	86.7(1994년)	25.6(1993년)	
밀	51.4	15.8	
쌀			111.3
사회간접자본	보통	양호	양호

* : 대륙개발의 삼강평원의 경우 자본금 투여액은 ha당 750달러에 상당하는 개발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비용 항목을 투자액이 큰 순서대로 보면 관개 배수시설(825만달러), 농기계구입(725만), 농장본부건설(339만), 설계비등(277만), 영농비(252만), 토지개간비(226만), 도로건설, 전기통신시설, 경계림설치, 기타 이다. 고합그룹의 연해주농장은 투자액을 50대 50으로 하였는 바 러시아측은 토지, 농기계, 창고시설 등을 현물출자하였고, 고합이 투자한 자본금의 운영 내역은 영농비(46만달러), 농기계구입 및 시설보수, 집기, 비품, 기타등이다. 산타 웨 농장의 경우 자본금 투자액은 1981년 3월 한국정부에 의해 지불된 토지 및 비품 금액이다. 현재는 초기부터 쌀 농사를 짓고 있는 이창호씨 개인 소유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다.

자료: 김운근외, 1995. 12. 연구보고 R3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3~154쪽.

이창호, 1995. 11.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식량 기지화를 위한 건의”페이퍼.

2.2. 산타 웨농장의 운영 실태

여기서는 쌀 재배를 하고 있는 산타 웨농장의 실제 운영 실태와 경영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타 웨 농장은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북방 640 km지점에 위치해 있다. 기후 조건이 좋아 스페인들에 의한 식민 초기부터 농업 생산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농업 지역이다. 이 지역은 결국 아르헨티나의 1차재 수출 경제 성장 모델을 표본으로 제시하면서 20세기 초반 아르헨티나를 세계적인 부국으로 가능케 하는데 선도했다.

먼저 산타 웨 농장의 기온 분포도를 보자. 연평균 기온은 18~19° 정도로 상당히 온화하며, 특히 계절이 우리 나라와 정반대에 해당함으로 영농 일지가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표 7-5 산타 웨 농장의 기온 분포도

월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온℃	10-20	13-25	17-29	20-35	22-40	20-35	17-30	13-25	10-22	5-17	0-13	5-18
계절	봄	봄	봄	여름	여름	여름	가을	가을	가을	겨울	겨울	겨울

주: 겨울 최하 기온 때는 얼음은 얼지 않으나 서리가 조금 내림.

자료: 이창호, “식량 기지화를 위한 건의,” 페이퍼, 1995.

우선 쌀 재배를 위한 논갈이는 7월에서 9월까지 이루어지며, 파종 시기는 9월 15일에서 12월 30일까지 75일간이며, 수확 시기는 2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무려 120일간이다. 현재 농장에서의 벼 품종은 120~130일이 필요한 만생종이며, 만약 조생종을 파종한다면 북부 지역에서는 년 2기작도 충분하다. 강우량은 <표 7-6>과 같다.

표 7-6 산타 웨 농장의 강우량, 1994

월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강우량 (mm)	45	70	90	110	145	125	85	95	60	45	20	35

자료: ibid.

1994년의 총강우량은 925mm로서 평년보다 150mm정도 적었다. 그러나 벼농사의 경우는 강우량보다는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농장과 10여m 인접해 수량이 풍부한 파라나강의 줄기가 흐르고 있어 농업용수의 부족은 없다. 산타 웨 농장은 비행기로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파종 기계로 파종하기 때문에 담수가 될 때는 불가능하며 논을 말려 파종하고 있다.

토질은 파라나강 유역에 인접해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질로 알려져 있으며, 산타 웨 농장 역시 한 번의 비료와 병충해로 인한 농약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완전 무공해 곡물을 생산하고 있다.

다음의 산타 웨농장의 쌀 생산 관련 지표를 보면 이 지역의 비교 우위를 알 수 있다.

표 7-7 산타 웨 농장의 쌀 생산 관련 지표

위치	수도에서 북방 640km	Santa Fe주 San Javier시
기후	쌀 재배에 최적인 기후 및 강우량 호조건	
영농방식	파종 9.15-12.30 수확시기 2.1-5.30 수도작, 건답직파, 논벼	2기작도 가능함.
벼 품종	Fortuna(4,000kg/ha, 조곡기준)	한국산 품종의 경우 6,500kg/ha가능
가격	도매가 80센트, 소매가 2불/kg	일반 장립종은 1불/ha
농지가	1,000불/ha	기타 지역 농지 500-1,000불/ha(3대강 유역)
노동력 공급	양호	
주변 인프라	양호	육로, 항만, 등

즉, 산타 웨농장과 인근 지역은 예로부터 쌀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라 쌀 농사가 주가 되어 왔다. 특히 수확 시기는 2월부터 5월까지로 우리의 수확 시기와 달라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 영농 방식은 건답 직파이며 10여m 떨어진 강에서 농업용수를 무제한 공급하고 있다. 쌀값의 구성요소를 보면 생산지 가격이 약 4할을 차지하고 나머지 6할이 유통비용이다. 따라서 향후 농업 분야에의 투자시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 및 대량

유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종은 가늘고 긴 장립종으로 남미인들의 기호에 맞는 Fortuna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7-8 품종별 쌀 생산 현황과 수확량
(조곡기준, 산타 웨 농장의 시험 재배 결과와 현지인 농장 비교)

단위: kg/ha

품 종	성장기간 및 구분	수 확 량	비 고
Fortuna	130일간 만생종	4,000	세계에서 가장 맛이 좋은 콜롬비아산의 장립종
Yerua	100일간 조생종	7,000	장립종으로 아르헨티나에서의 주 품종임
밀양 23호	115일간 중생종	7,500	대가 실하고 가지는 많이 치나 쪽지가 많음
수원 139호	115일간 중생종	7,000	대체로 양호하나 도복이 심함
영 덕	110일간 중생종	7,300	대가 약함
참 쌀	110일간 중생종	6,500	통일참쌀
Fortuna		3,500	엔뜨레 리오스주 Ladislao농장
일반 장립종		6,500~7,000	

산타 웨 농장에서는 현재 yerua품종을 재배하는 여타 현지인 농장과는 달리 예로부터 쌀을 신이 내린 곡물이라고 귀하게 여기는 콜롬비아의 개발 품종인 Fortuna종을 재배하고 있다. 똑같은 Fortuna종을 재배하더라도 엔뜨레 리오스주의 현지인 농장 'Ladislao'에서 보다 단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밀양 23호, 수원 139호, 영덕, 참쌀의 경우는 1988년과 1991년 2회에 걸친 토지 및 노동집약적인 시험재배 결과이다. 즉 한국산 품종의 수확량도 뛰어나지만, 남미인들의 기호 때문에 현재는 장립종을 선별하여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품종을 시험 재배가 아닌 대규모 재배 시는 ha당 6,500kg정도가 될 것이며, 향후 직파할 수 있는 품종을 이 나라 기후에 알맞는 품종으로 개량한다면 ha당 8,000~9,000kg까지도 무난할 것으

로 산타 웨 농장 측은 예견하고 있다.

다음은 산타 웨 농장의 경영 방식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현재 산타 웨 농장의 농지 확보는 800ha에 달하고 있다. 해마다 파종하는 면적은 그 절반인 400ha에 달하고 있으며, 파종 지역을 바꾸어 가며 번갈아 휴농시키고 있다. 휴농지에는 목축을 하여 농사와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휴농지에 밭아되는 피와 잡초는 소먹이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한 잡초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더불어 농촌 생활의 단조로움을 덜어 주는 한편 재해시 목축은 안정적인 영농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997년에는 1,100ha에 쌀을 재배할 예정으로 있다. 이는 인접국, 특히 브라질에서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 대다수 현지인 농장과 마찬가지로 생산면적을 증가시키고 있다.

산타 웨 농장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적정 영농 규모는 각자의 능력과 투입재의 양과 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사람의 관리자가 경영할 수 있는 적정 영농 규모는 매년 100~150ha씩 늘려 가고 농·목을 병행할 때 800ha수준이 적당하다 하겠다. 이 규모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중농 규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영농 규모를 400ha로 기준 삼을 때 필요로 하는 영농 장비는 산타 웨 농장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표 7-9>와 같다.

표 7-9 산타 웨 농장의 경험에서 산출한 필요 영농 장비(400 ha 기준)

단위: 달러

장비명	대수	단가	합계	수명년수	
트랙터 160마력	3대	56,000	168,000	10년	농로보수용 벼운반 벼운반
트랙터 120마력	1대	42,000	42,000	10년	
쟁기 D40	3대	7,000	21,000	20년	
파종기	1대	18,000	18,000	10년	
논둑만드는 기계	1대	5,000	5,000	20년	
그레타 반자동	1대	11,000	11,000	20년	
트레일러 6톤	1대	4,000	4,000	15년	
트레일러 3톤	10대	2,500	25,000	15년	
컴바인(수확기)	2대	105,000	210,000	10년	
건조기 50톤	1조	48,000	48,000	20년	
포크레인 0.3톤	1대	30,000	30,000	10년	
양수기 40Cm	1대	4,000	4,000	30년	
양수모터 180마력	1대	15,000	15,000	10년	
창고 800㎡	1동	40,000	40,000	30년	
창고 400㎡	1동	20,000	20,000	10년	
기름탱크 9000L	2조	1,500	3,000	30년	
반트럭	1대	25,000	25,000	20년	
기 타		50,000	50,000	5-7년	
계			739,000		

벼농사에 소요되는 트랙터의 경우 ha당 1.5마력을 기준하고 있으며, 산타 웨 농장은 상당히 근대화된 영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쌀 생산비와 수익성

다음의 산타 웨 농장 기초 생산비는 최근 2~3년간의 지출 내역을 향후 중단립종을 생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균으로 산출해 본 것이다.

표 7-10 산타 웨 농장의 기초생산비 내역(400ha 기준)

단위: 달러

항 목	지 출 액	비 고
제조제	27,684	
비행기 사용료	6,500	
기름 (디젤)	26,400	양수기, 건조기 포함한 기름 총사용량
각종 윤활유	4,800	
전기세	4,200	가정 및 관리인집 포함한 총 사용량
기계 수리비 및 공구 구입	18,600	필터, 벨트 등 각종 수리 포함 비용
철조망 보수	2,100	목책 구입 포함
각종 농장세	2,400	
타이어 구입 및 보수	4,300	
자동차 세금 및 유지비	2,400	
씨앗 선별비	2,000	
전화세	2,780	
인건비	54,000	고용인 8명
기타 각종 잡비 및 세금	23,700	각종 보험료 포함
장비 구입비	15,000	모터 및 파종기 구입
총계	196,864	
ha당 생산비	492.16	

생산비는 현지 고용인들의 인건비, 장비 구입 및 사용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본 결과 ha당 492불로 계산되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쌀 생산비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7-11 아르헨티나의 지역별 쌀 생산비 비교, 1995

지역별	쌀 생산비 (달러/ha)
산타 웨농장 Fortuna 품종	278
산타 웨농장 중단립종 재배시	492
산타 웨주 평균	550
꼬리엔페스주	520
엔뜨레 리오스주	800
엔뜨레 리오스주 Ladislao농장	500~600
차코주 및 포르모사주	450

자료: INTA, Agencia San Javier 제공.

즉 쌀 생산비는 Paraná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적게 지출되며, Paraná강의 왼쪽 지역이 강 건너 지역보다 용수의 질과 공급 문제 등으로 훨씬 저렴한 면을 보이고 있다. 즉 강 건너 엔뜨레 리오스주의 경우 강의 수량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건조할 시 강이 염분을 띄게 된다. 따라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타 쌀 생산 지역의 생산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라디스라오 농장’은 강과 인접해 있고, 3천ha에 달하는(쌀 농장으로는 아르헨티나 최대 규모에 속함) 규모에 기계 영농을 도입하고 건조 시설 및 도정 공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한편 향후 자포니카계를 재배했을 때 기초 생산비와 수익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농지 400ha에서 벼 2,600톤이 생산되고 도정하여 쌀 1,768톤(도정률은 68%로 계산)이 생산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7-12 자포니카계 쌀 생산비와 수익성 비교

단위: 달러

항 목	비 용	비 고
총수입	510,952	정곡 1,768톤*95년 농가판매가 289\$/톤
기초생산비	196,864	농지 400ha*492.16/ha
조수입	314,088	ha당 수익성 785.22

이와 같이 볼 때 아르헨티나에서의 쌀 생산 및 수익성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2.4. 쌀의 운송 및 유통

이렇게 생산된 쌀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마찬가지로 주로 브라질 및 파라과이로 수출되고 있으며, 일부는 아르헨티나내 동양인들에게 판매된다.

생산지에서 소비지로의 운송은 Paraná강과 Uruguay강 혹은

Paraguay강을 따라 큰 선적항²⁰⁾ (3~10만톤급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까지는 Barcaza라고 불리는 바지선으로(각 Barcaza는 3,000~4,000톤을 선적할 수 있으며, 10척까지 연결할 수 있고 소규모 정박시설을 갖춘 항에 정박이 가능함) 운송을 하고 있다.

또한 유통 경로를 보면 소비지에서 생산된 쌀은 Acopiador라고 불리는 곡물 수집상을 통해 곡물 구매 회사로 이동된다. 이러한 곡물 구매 회사는 대부분 대토지 농장주가 경영하고 있으며, 각 회사의 구매 능력은 평균적으로 1만여 톤에 달한다.

Acopiador들은 곡물 수집을 위해 필요한 돈을 곡물 구매 회사측에서 빌리기도 한다.

아울러 아르헨티나에서 쌀을 생산해 국내에 들여오는 가격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아르헨티나 산타 페 농장에서의 농장도 판매가를 289\$/톤으로 계상할 때 현지 농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비 100\$/톤을 포함하면 국내 부산항 도착 가격은 389\$/톤이 된다. 이는 백미 80kg의 국내 도착 가격이 한화로 2만 5천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표 7-13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쌀의 예상 국내 도착 가격

단위: 달러/톤

농장도 가격	농장 - 부산항 운송비	부산 도착 가격
289	100	389

한편 쌀은 세계 수급에 있어, 1995~2025년 사이에 쌀 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0년간 2억7천만 톤의 쌀 증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²¹⁾. 이는 아르헨티나에서의 쌀 생산에의 투자 내지 협력 개발은 세계

20) 대규모 선적항은 산타 페항(1만톤급), 로사리오항(2만톤급), 부에노스 아이레스항 및 바이아 블랑카항(3만톤급 이상)을 들 수 있다.

21) 1996 11.15일 농수축산신문사가 주최한 「세계 쌀 수급 전망과 과제」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제미작연구소의 마하부브 호세인 박사의 주장임.

쌀 수급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2.5. 산타 웨 농장의 축산업

한편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쌀 농사와 병행하고 있는 축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산타 웨 농장은 현재 2천여 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사육 방법은 한국의 경우 자연 초지 생장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하나 아르헨티나는 10개월이나 되어 자연 초지에서 그대로 방목한다. 겨울철 2개월은 벼 농장에서 수확한 후 논에 남은 볏짚을 두었다가 겨울에 소를 논에 몰아 넣어 겨울을 넘기게 한다. 즉 이웃 목장이나 농장에서는 목초를 파종하고 있으나 산타 웨 농장에서는 겨울 대비용을 볏짚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목초를 파종할 필요가 없다.

년간 소 한 마리의 증체량은 송아지 때부터 성우(450~500kg)가 되는 2년동안 연간 암소가 90~100kg, 숫소가 100~120kg정도 증체되며, 육우는 주로 200kg짜리 수송아지를 구입하여 2년후 성우가 된 소를 판매한다.

소 사육을 위한 2년간의 지출비는 <표 7-14> 및 <표 7-15>와 같다. 2년간의 총지출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해 \$16,100에 달한다. 여기에서 연간 순수입을 계산해 보면 2년간의 총수입 \$145,600에서 총지출 \$16,100을 제한 순수입은 \$129,500이 되는데 이를 평균하면 \$64,750이 된다.

표 7-14 산타 웨 농장의 축산 경영

	두 수	총 량	비 고	가 격
구입시	800두 * 200kg	160,000kg	-	\$128,000
1년후	780두 * 300kg	234,000kg	20마리 죽음	\$187,200
2년후	760두 * 450kg	342,000kg	20마리 죽음	\$273,600
총수입	-	-	-	\$145,600

주: 상기 도표는 송아지(200kg) 800마리를 기준으로 한 것임.
생체는 \$0.80/kg로 계상한 것임.

표 7-15 소 사육을 위한 2년간의 지출비

단위: 달러

인 건 비(1인)	예방주사약값	철조망보수비	기 타	총 계
9,600(월400)	3,600	1,300	1,600	16,100

즉, 소 사육은 그 자체로도 수익성이 있지만 재해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고 농기계의 감가상각비를 보전할 수 있어 농목업의 병행은 여러 이점을 지닌다.

3. 아르헨티나와의 농업 분야 협력 가능성

3.1. 투자 및 교역 현황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대아르헨티나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왔다. 199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나라의 대중남미 직접투자는 238건에 3억 3천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투자는 주로 중미 및 카리브 도서국의 낮은 임금과 미국의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카리브지역 개발촉진계획)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봉제업에의 투자가 대부분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NAFTA의 회원국인 멕시코와 각종 자원이 풍부하고 MERCOSUR회원국인 아르헨티나에 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대아르헨티나 투자는 총 30건에 4,600만 달러 수준이며, 이나마도 24건이 수산업 투자에 편중되고 있다²²⁾. 1996년 11월에는 한화가 약 2,600ha의 땅을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동쪽에 위치한 마르 데 라 플라타 지역에 구입해 향후 밀을 재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농업 투자 부문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22) 한국은행,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 1995. 12.

이외에도 몇몇 기업들이 곡물 생산 및 교역에 관심을 갖고 아르헨티나의 기업과 향후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을 보면 쌀 농사에 Daejung Corp.과 Junil Trading Corp., 대두와 밀의 Tecnoland, 그리고 Kyung Corp.이 곡물과 식품 분야에 투자를 위한 조사 단계에 있다. 또한 진로 그룹도 원당 및 농축수산물 수입 등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주정부와 투자 상담 중이며, 미원통상도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본격적인 상담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외국회사의 진출 사례를 보면 미국의 IRSA사, 프랑스의 Bongrain사, 이태리의 Todinitk등은 농장 구입에 나섰으며, 이외에 수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인수 및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식품 가공업, 플랜트 수출, 유통업계 등에 진출하고 있다.

1996년 9월에는 우리 나라 대통령의 방아시 축협이 카길 아르헨티나사와 옥수수 5만2천톤(8백50만 달러 상당/톤당 약 163달러)의 2차 수입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이다.

투자뿐만 아니라 양국간 교역량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나라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은 전기기기·섬유·신발·기계류·자동차 등이 중심이 되어 약 3억5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수입은 어류·원피·조사료·동물성유지가 중심이 되어 1억3천2백만 달러에 달해 1억7천3백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3.2. 협력의 필요성

3.2.1.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양국간의 관계는 지리적인 거리감을 내세워 우리 나라의 세계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적인 부문에서만 단기적인 필요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은 아르헨티나가 지니고 있는 농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직시하여 사료 곡물과 기타 식량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을 위해 적극

적이고 장기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우리 나라가 아르헨티나와 향후 농업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식량수급상의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둘째,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셋째, 국내 농업 여건의 악화에 대비한다. 넷째, 통일 대비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협력 차원에서 천혜적인 농업 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MERCOSUR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와의 농업 협력은 세계 식량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위의 요인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 곡물 수급의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게 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곡물의 국제 재고량의 감소(1996 FAO의 권장인 17%에 못 미치는 15%선) 둘째, 세계 도처에서 토지 및 수자원의 양적, 질적인 제한 등으로 세계 농업 생산 여건의 악화, 셋째, 개도국에서의 인구 급증으로 2025년에는 세계인구가 약 62억명에 도달, 넷째, 개도국에서의 소득 향상으로 곡물 수요 증가 다섯째, 선진 공업국에서의 사료 곡물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 여섯째, 세계 식량의 수급 조절을 위한 기관이나 기구가 없다. FAO는 집행력이 없고 식량문제를 각국에 위임, 일곱째, 세계 4대 곡물 생산국 -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 중에서 미국 외는 이미 식량 부족국으로 전환 여덟째, 미국의 국제 농산물 시장 지배로 인한 세계 곡물 시장의 교란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연간 곡물 수입량은 약 1천3백만 톤에 달한다. 곡종별 1 ha당 수율의 세계 평균을 대략 2.5t으로 계산해 보면 수입되는 1천 3백만t의 곡물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농토는 약 5백만ha가 된다. 현재 우리 나라 전체 경지 면적이 약 200만ha임을 고려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1995년 우리 나라의 양곡 소비량을 보면 쌀 550만톤, 보리쌀 40

만톤, 옥수수 800만톤, 콩 150만톤, 서류 20만톤, 기타 80만톤 등 총 2,000만톤에 달하였으며,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 자급율은 56%이며,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율은 약 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곡물 수입은 미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바 이는 수출국의 기후 변동, 수출 제한, 전쟁, 선박 노조의 파업, 해상 운송망의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수많은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향후 해외농업협력이 편중된 지역이 아니라 보다 다변화된 지역으로의 협력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 우리 나라의 농업 생산 기반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점이다. 한두봉²³⁾ 교수에 의하면 2004년 우리 나라의 농지 면적은 163만ha(논 90.6, 밭 72.4)로 감소하여 소요 농지 면적인 175만ha에 12만ha(논은 약 20만ha 부족)가 부족한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재배 면적은 90년까지 124만ha를 상회하였으나, 그후 현저히 감소하여 95년에는 1백5만6천ha로 낮아졌다.

쌀의 경우 우리 나라 인구 4,500만 명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100kg으로, 단보당 생산량을 450kg, 2개월 분의 재고를 고려한다면 총 500만 톤이 소요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략 110만ha의 논을 유지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매년 2만6천여ha의 농지가 줄고 있다는 점과, 더 나아가 통일 대비할 경우 대북 지원 소요량은 124만 톤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해 본다면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은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와 더불어 세계 5대 곡물 수출국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옥수수, 대두, 소맥, 수수 등의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훌륭한 농업 여건을 지닌 국가이다. 아울러 쌀의 생산지로도 전망이 좋으며, 인접국으로의 수출 여건 또한 좋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최대 식량 수입국인 브라질과는 MERCOSUR의 주도국으로 역내 교역의 자유화를 통해 농산물 교역 시에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3) 한두봉, “세계 쌀 산업의 현황과 전망,”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8.

의 철폐로 향후 아르헨티나는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2.2. 일본의 사례

우리 나라와 인접한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하다. 일본은 1990년에 사료 곡물을 포함한 곡물의 자급률이 30%이하로 떨어졌으며, 농촌 인구의 감소, 호당 경지 면적의 감소(현재 약 1.4ha),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농촌의 경쟁력 약화, UR협정 이후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한 압력 및 세계 시장에서의 농산물을 포함한 예외 없는 시장 자유화에로의 빠른 접근 등의 국내외 동인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일본 정부는 농업 부문의 해외협력을 강구하고 있다. 아직 해외농업 협력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리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지금까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에서 원조 내지 연구를 통한 동반자적인 우호 관계에 있어 향후 언제든지 협력의 가능성을 가시화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아시아·중남미의 주요 곡물 생산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자원 개발 및 곡물생산·유통기술을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농업 기반 조성에 주력하기로 농수산성이 결정했다²⁴⁾.

일본 농수산성은 97년부터 곡물 증산, 농촌 개발을 통한 농업 기반 강화, 환경 보전, 농업 지원 체제 정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곡물 증산 분야에서는 대두, 옥수수, 쌀 등 최근 국제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곡물을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의 불안정한 국제 곡물 수급 동향, 최대 곡물 수출국인 미국이 농업법을 개정(96.4.4)해 곡물 생산을 시장 기능에 맡기는 등 향후 시

24) 안전기획부, 「해외산업경제정보」, 1996. 9.

장 전망의 불투명, 아시아 및 남미 개도국의 곡물 수요 증가로 인한 향후 국제 곡물 수급의 불확실성으로 세계 최대의 식량 순수입국이자 곡물 위기 발생시 최대 피해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3. 일본의 해외농업협력 방법

일본의 해외농업협력의 방법을 보면 크게 해외농업개발, 곡물 증산을 위한 기술 협력, 농산물 유통 기술 제공, 농촌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 농촌 인프라 건설에의 참여, 환경 보전 지원 등으로 대별될 수 있겠으나 주로 지원과 기술 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는 농업 부문에서 해외투자²⁵⁾가 국지별로 또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의 형태를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나 우리 기업들이 선호하는 대규모 농장 개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주로 필요 곡물을 해외에서의 계약 재배 혹은 가공수입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예로 일본 스미모토 금속공업의 계열 회사인 스미킨물산은 생산비가 적게 드는(일본 국내 생산 단가의 약 1/10로 추정)우루과이의 농장에서 자

25) 해외농업투자, 해외농업개발, 해외개발수입 등 각종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 해외농업투자는 정부의 대외 농업협력과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해외투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농지를 포함한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 해외에서의 투자 행위를 의미함. 기업이 주체가 될 때는 다국적기업의 해외농업경영과 유사함.
- * 해외농업개발은 정부지원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농지를 개발하여 생산물을 확보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현지 또는 제3국에 공여·판매함.
- * 해외개발수입은 정부지원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에서의 농업 경영(위탁·계약재배 포함)을 통해 생산물을 확보하고, 필요시 확보된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고재모, 이두순, 최윤국, 「주요 농산물의 해외개발수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간예정.

그러나 보다 호혜적인 협력의 의미로 해외농업협력(개발)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겠다.

포니카계통의 쌀을 계약재배하여 국내로 유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⁶⁾.

이외에도 일본의 미쓰이社は 아르헨티나의 Corrientes주에 농업투자를 하여 미가 1,2,3호를 재배하여 중국에는 일본 수출이나 현재로는 생산 면적도 크지 않고 생산량도 많지 않아 브라질의 일본인들을 위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의 대아르헨티나 기술 협력을 위한 지원과 사업은 주로 IDB(미주 개발은행)와 ODA(정부개발원조기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IDB는 1960년 라틴 아메리카 제국의 경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용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DB 차관 사업은 회원국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주로 농·어업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에 역점을 두고 있다.

1961~1992년까지의 IDB 차관 내역을 보면 농·어업은 총사업중 19.1%를 점유하여, 23%의 에너지사업을 이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87년 재무장관의 명의로 IDB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를 내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입을 위한 외교 노력의 부족과 우리의 출자·출연규모에 비해 중남미 시장의 잠식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에 따라 주도권을 지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일본의 반대에 부딪쳐 왔다.

일본은 IDB회원국으로서 각종 IDB 차관 구매 사업 입찰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중남미 농업과 관련된 빠른 정보를 입수해 교역 중심의 관계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해 왔다.

일본은 IDB 지분중 7%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력으로 주도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 현재 일본의 Hiroshi Toyota이사는 IDB의 예산 및 금융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더불어 일본은 96.8.에 있었던

26) 김운근, 고재모, 석현덕, 이일영, 「동북아 역내 농산물무역 및 농업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12.

총리의 중남미 순방시 남미의 21세기 숙원 사업인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남미 관통 도로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IDB에 6천5백만 달러의 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²⁷⁾.

IDB외에도 일본은 IFAD(국제농업개발기금)²⁸⁾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협력 사업을 해 나오고 있다.

IFAD는 최근 들어 여타 국제 기구들 - ADB(아시아 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CAF(카리브 개발은행), IBRD, UNOPS(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과의 공동재정지원(Co-Financing)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도 있음으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빠른 정보 입수와 그에 알맞은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남미에서의 각종 프로젝트 - 신용공여, 관개수리시설, 기술원조, 유통, 위생 및 영양, Monitoring & Evaluation-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

27) 한겨레 신문, 1996년 9월 11일.

28) IFAD는 1974년 세계식량회의(World Food Conference)의 결정에 따라 1977년 이태리 로마에 설치된 UN의 특별재정기구로 주요 업무는 저소득식량부족국가의 굶주림과 농촌 가난을 극복케 해 궁극적으로 농촌 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IFAD의 지원 방법을 보면 무상 지원(Grant)과 차관(Loan)인데 차관에 의해 지원되는 9개의 주요 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농업개발: 농촌개발: 금융: 관개수리시설: 축산: 어업: 정착 지원: 유통시설(저장, 가공, 유통): 연구조사, 농촌지도기관, 농촌인력 훈련. 차관의 양여조건과 금리는 수혜국의 GNP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다. 1) 가장 유리한 차관양여조건: 1인당 GNP가 \$805('92 기준)이하인 저개발국, 무이자로 지원되며, 다만 매년 0.75%의 행정서비스 수수료율만 부담, 원금상환은 10년 거치에 40년 상환 기간임. 2) 중간 차관지원조건: 1인당 GNP가 \$806이상이고 \$1,305이하인 저개발국, 차관조건은 3.4%의 금리(국제금리의 50% 수준)로 상환조건은 5년거치 20년 상환임. 3) 보통 차관지원조건: 1인당 GNP가 \$1,306이상인 회원국, 차관조건은 년 7.5%이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15~18년 상환임. 현재는 아프리카 지역 및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에는 1978~95년간 총지원액의 16.0%에 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IFA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카테고리 III그룹의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어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출자액에 따른 총회에서 투표권을 보면 우리 나라는 총투표권 1,800표의 0.3%에 그치는 5.62표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10.9%, 사우디 7.4%다.

다 많이 가져 진출 상대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JICA(국제협력사업단)를 통해 농업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ODA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1996년도 우리 나라 ODA 총액은 5,000만 불이며, 이중 중남미 무상 원조 기금의 액수는 450만불로 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平成 6년(1994년) ODA총액은 135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기술협력경비는 30억 달러로 ODA의 22.4%를 점유하였다. 이 기술협력 중 JICA(국제협력사업단)사업비는 약 55%인 1,650백만 달러에 달했다. 이 금액은 전년 대비 17.1%가 증액된 것이었다.

JICA 사업은 분야가 다양화되어 있으며, 이중 농림수산업에는 21%가 투입되고 있다. 이외의 사업 중에서도 - 계획·행정, 공공 공익사업, 인적 자원 교류, 보건·의료, 사회복지 - 농업과 관련 있는 부문이 있다고 보면 이러한 점유비는 21%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JICA의 주요 농업 부문 사업은 크게 기술연수생 교육, 농림수산전문가 파견, 프로젝트 기술협력, 청년해외협력단 파견, 개발조사사업, 민간에 의한 해외농림업개발사업의 지원 및 추진을 위한 개발협력사업, 국제협력기관을 통한 해외 전문가 양성 등으로 나뉜다.

JICA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아르헨티나 사업을 보면 먼저 프로젝트 기술협력사업으로 농업 분야에 '식물 바이러스 연구 센터(1995.3.1~2000.2.29)' 설립, 축산 분야에 '라 팰라따 대학 수의학부 기술협력(1989.3.1~1996.2.29)', 수산 분야에 '수자원평가관리체제 연구(1994.12.1~1999.11.30)'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Chaco주의 '지역조림자원조사'가 개발조사 실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협력 사업을 보면 신국제어업학교 설립계획(1983), Deseado항구 확장 계획(1987/88), Reconquista천 유역 위생환경개선계획(1981), 북동부 지형도 작성(1994), 서부지역 자원개발 조사(1994) 등

을 들 수 있다.

아울러 JICA는 향후 보다 세계화된 전략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협력 관계를 진일보시키어 협력 내용의 다양화·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한다. 이는 농림수산업이 지역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와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 지구 환경의 보전, 농촌 빈곤의 경감, 농촌의 활성화, 농촌 여성의 교육과 개발에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청년해외협력대 파견 사업의 건실화이다. 1995년에 이 사업은 발족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들의 활약상은 대내외적으로 성가를 얻어냈으며,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1995.12월까지 55개국에 3,367명이 파견되었으며, 이들 중 농림수산분야에는 593명에 달한다. 향후 이들의 활동 범위를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해 온 데에서 연구소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셋째, 남미 3대 농업시험장의 적극적 활용 방안의 강구이다. 이주 사업의 재편으로 1994년 7월 농업개발협력부로 남미의 3대 농업시험장의 운영 관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농업 분야에 프로젝트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넷째, 개발조사사업의 경우 신규 시설의 건설보다 기존 시설의 개선에 노력하여 소자본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다섯째, 국내·국제 제기관과의 제휴 강화를 들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내 연구기관·대학, 민간단체, 지방 공공단체 등과의 제휴 특히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JIRCAS)와의 연구 협력 사업을 도모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 산하 제기관(CGIAR), 세계은행, 국제연합식량농업기관(FAO), 국제열대목재기관(ITTO) 등 선진국 원조 기관과의 제휴를 강화하여 정보의 교환, 전문가의 파견, 공동 프로젝트의 실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 할 것으로 보인다.

3.3. 협력을 위한 아르헨티나 농업의 비교 우위

여기에서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양국간 농업 협력을 위해 일각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농업 개발 및 투자의 차원에서 아르헨티나 농업의 비교 우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영농 작물에 적합한 농지; 대농화할 수 있는 농지; 풍부한 수자원; 연 2기작, 혹은 2모작이 가능한 기후; 농장 지역까지 닿을 수 있는 선박 교통이나 역 혹은 교통의 편리성;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 농지 가격; 생산비; 토지제도의 영속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 투입 요소(노동력, 기계, 비료, 농약비)의 분석; 수확, 수집, 저장, 운송에 필요한 기계 장비 및 저장 시설에 소용되는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영농 작물에 적합한 농지를 선정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남북의 길이가 6,000km나 되는 광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어 각 지역마다 기후가 다양하다. 어떤 곳은 연간 강우량이 불과 10mm인 반면에 또 다른 곳은 3,000mm가 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강우량도 봄과 여름, 혹은 가을과 초겨울에 집중되기도 해 작물에 따라 알맞은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콩이나 해바라기, 옥수수 등 일반 밭 작물은 연간 강우량이 고루 내려 주는 지역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벼 같은 논 작물은 언제든지 담수와 배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비가 적게 내려도 적당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대농화할 수 있는 넓고 비옥한 농지를 고려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에는 팜파스(Pampas)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질을 지닌 평야가 있으며, 더불어 부에노스 아이레스 북부의 파라나강과 파라과이강유역의 토질도 비옥해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완전 무공해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에는 아직 한번도 곡물을 갈아 보지 않은 처녀지도 무수히 많다.

셋째,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쌀 농사의 경우 자연 강을 인접하고 있다면 강우량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오히려 비가

많은 지역은 영농 작업 일지에 지장을 주고 또한 습기가 많으면 작물에 병충해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으로 강을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 가장 이상적인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운송의 효율성을 지닌 지역이라야 한다. 소규모 영농의 경우 운송 내지 교통의 편리성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대규모 영농의 경우는 운송의 효율성이 큰 문제이다.

농산물은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큼으로 운송과 선적이 부담이 될 경우 생산 원가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팜파스 지역이나 파라나강 유역은 운송과 선적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파라나 강변을 따라 도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파라나강은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에서 형성되어 아르헨티나 북부를 거쳐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흐르고 있다. 파라나강은 북쪽으로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으로 부터 남쪽으로 선적항인 로사리오항까지 1만 톤급의 선박 운항이 가능함으로 농장에서 파라나강까지 기차나 육로로 화물 운송이 용이하다. 더욱이 파라나강은 동쪽으로 비옥한 토지가 풍부한 Corrientes, Entre Ríos, 그리고 서쪽으로 Santa Fe 지역 사이를 관통하고 있어 이 지역은 농산물 생산과 운송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농지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대단위 영농을 위한 토지 구입 비용은 생산원가와도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성과도 관련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토지 가격은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중심으로 거리에 비례하며 또한 각 지역에서도 교통의 중심에서 원근에 따라 비례한다. 또한 개간지와 미개간지의 농지가를 비교해 보면 개간지의 구입가가 훨씬 싸고 유리한 점은 특이하다. 미개간지의 경우 개간 비용이 ha당 300~350불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은 경지 정리 작업이 필요 없으며, 다만 수로를 만들고 퇴수로를 내는 공사만 하면 된다.

표 7-16 아르헨티나의 농지가

단위: 달러/ha

지 역	개 간 지	미 개 간 지	비 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로사리오	2,000~4,000	미개간지 없음	파라나강 유역
로사리오-산타 페	1,000~3,000	미개간지 없음	파라나강 유역
산타 페-레콘키스타	400~1,000	300~800	파라나강 유역
레콘키스타-레시스펜시아	300~400	150~300	파라나강 유역
레시스펜시아-아순시온	200~300	100~200	파라과이강 유역
레시스펜시아-뽀사다스	200~300	100~200	파라나강 유역

자료: 이창호, “식량 기지화를 위한 건의,” 페이퍼, 1995. 11.

여섯째, 연 2기작 혹은 2모작이 가능한 기후라면 더욱 좋다. 파라나강 하구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파라과이의 아순시온까지의 거리가 1,500km가 넘기 때문에 남북의 기온 차는 10℃가 된다.

벼 재배시 성장 온도는 영상 10℃에서 35℃까지 임으로 이 지역에서 벼 성장 가능 기간은 무려 10개월이 된다. 따라서 북부 지역에서 조생종을 파종한다면 2기작도 가능하다.

일곱째, 생산비는 수익성과 관련됨으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주요 곡물에 대한 생산비 및 수익성 분석은 <표 7-17>과 같다. 쌀 재배의 경우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400ha에 자포니카를 재배할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종 장비 사용료, 세금, 장비 보수 및 구입 비용, 인건비를 포함해 약 493달러 정도 된다. 수익성은 ha당 785.22달러로 상당히 높게 기대된다.

표 7-17 아르헨티나의 주요 곡물 생산비 및 수익성 비교

항 목	생산비	수익성	비 고
쌀	\$492.16/ha	\$785.22/ha	농지 400ha. 자포니카종. 단수 4,500kg/ha. 판매가는 농장판매가로 환산 기준.
옥수수	\$317/ha	\$103/ha	식부면적 74,000ha. 단수 4,000kg/ha 기준
콩	\$261/ha	\$119/ha	식부면적 104,000ha. 단수 1,900kg/ha 기준

주: 쌀은 아르헨티나의 산타 페 농장 기준.

옥수수와 콩은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임차농을 기준.

쌀은 앞장의 산타 웨농장의 모델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이만 기술한다.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옥수수 및 콩의 생산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옥수수의 경우 생산비는 ha당 317달러이며, 제반 경비를 고려한 수익은 ha당 103달러이다. 보다 상세한 항목별 비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18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옥수수 생산비 및 수익성 비교

항 목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1) 고정비용: 종묘비, 비료, 기름, 윤활유, 노임, 부속품, 보수, 농기계 단수	\$119/ha 4,000kg/ha	\$138/ha 5,000kg/ha
(2) 유통 비용: 판매 및 중개인 수수료, 보관, 운임 로사리오항에서의 기대 가격 \$/Quintal(100kg)	\$154/ha 10,50	\$192/ha
총수입 \$/ha	420	525
직접고정비용 \$/ha	119	138
수확 및 유통비 \$/ha	154	192
(3) 총수익 \$/ha	147	195
(4) 간접 비용: 생산자의 교통비, 관리인 임금, 정리, 철조망 및 농장내 도로 보수, 부동산세	\$17/ha	\$17/ha
(3)총수익 - (4)간접비용=중간수익	\$130/ha	\$178/ha
(5) 기계 감가상각비 및 이자	\$19/ha	\$27/ha
(6) 토지 임차료	\$8/ha	\$8/ha
순수익 = 총수입-(1)-(2)-(4)-(5)-(6)	\$103/ha	\$143/ha
총생산비 = (1)+(2)+(4)+(5)+(6)	\$317/ha	\$382/ha
총생산비 대비 순수익 비율	33%	37%

주: 시나리오 1은 현재의 비용이며, 시나리오 2는 기계화의 보완으로 인한 단수의 증가를 고려한 수치임.

자료: INTA EEA Santiago del Estero, Sistema de Información Económica, 1995.12.

콩은 총생산비가 ha당 261불이며,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ha당 119달러이다. 보다 상세한 항목별 지출은 표와 같다.

표 7-19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콩 생산비 및 수익성 비교

항 목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1) 고정비용: 종묘비, 비료, 기름, 윤활유, 노임, 부속품, 보수, 농기계 단수	\$111/ha 1,900kg/ha	\$135/ha 2,200kg/ha
(2) 유통 비용: 판매 및 중개인 수수료, 보관, 운임 로사리오항에서의 기대 가격 \$/Quintal(100kg)	\$106/ha 20.00	\$123/ha
총수입 \$/ha	380	440
직접고정비용 \$/ha	111	135
수확 및 유통비 \$/ha	106	123
(3) 총수익 \$/ha	163	181
(4) 간접 비용: 생산자의 교통비, 관리인 임금, 정리, 철조망 및 농장내 도로 보수, 부동산세	\$17/ha	\$17/ha
(3)총수익 - (4)간접비용=중간수익	\$146ha	\$164/ha
(5) 기계 감가상각비 및 이자	\$19/ha	\$27/ha
(6) 토지 임차료	\$8/ha	\$8/ha
순수익 = 총수입-(1)-(2)-(4)-(5)-(6)	\$119/ha	\$129/ha
총생산비 = (1)+(2)+(4)+(5)+(6)	\$261/ha	\$311/ha
총생산비 대비 순수익 비율	46%	42%

자료: Ibid.

위의 도표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아르헨티나에서 쌀의 재배는 ha당 생산비가 제일 높으나 반면에 수익성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해외농업개발사의 고려점 이외에도 해당국 토지 제도의 영속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 투입 요소에 대한 분석, 수확·수집·저장·운송에 필요한 기계 장비 및 저장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도 아르헨티나는 농지의 구입과 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투입 요소 비용도 아주 저렴하다. 그리고 사일로 및 항만 시설에 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 현지 농업 투자에 대한 효용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실질적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3.4. 대아르헨티나 농업 부문 협력 가능성

여기에서는 앞의 장들을 통해 이미 언급되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협력 가능 분야, 협력 가능 지역, 기타 협력 가능성을 실체화하기 위한 소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협력을 위한 유망 분야를 말하면 쌀, 대두, 옥수수, 밀 등의 작물 재배 및 유지 작물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 대규모 곡물 저장소, 농기계업 등에 협력 내지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아르헨티나는 원료 곡물이 다양화되어 있으며, 경쟁력도 지닌 국가임으로 사료 곡물의 대부분을 미국 한 나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경험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 나라의 옥수수 등 배합 사료 원료 수입량을 보면 지난 1991년 8백54만5천 톤에서 1995년 1천1백8만8천 톤으로 매년 급증 추세에 있다. 이에 가장 큰 수입 대상국인 미국의 기상 이변, 농업정책의 변화,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 등으로 인한 국내 수급 불안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배합 사료 원료 곡물의 수입을 옥수수뿐만 아니라 수수, 사료용 밀, 호밀 등으로 다양화시켜야 할 것이며, 이들 곡물들의 주 수출국 중의 하나인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 쌀의 경우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외농업투자 내지 해외개발 수입 차원에서 역시 아르헨티나와의 협력 가능성을 논할 수 있겠다. 쌀은 앞의 장들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투자할 경우 인접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하다는 점과 우리의 통일 대비 식량 공급 기지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밖에도 원료 농산물을 투입하는 식품 가공업이나 육류 가공업에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을 이야기한다면,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르헨티나 농업 관련 기관-정부, 곡물 회사, 유통, INTA와

같은 연구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 수자원 개발, 농촌 개발, 기술 협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의 설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에서 협력 가능 내지 유망 지역을 작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쌀은 파라나강, 파라과이강, 우루과이강 유역이 유망하겠다. 즉 산타 페루 북부, 꼬리엔페스주, 엔뜨레 리오스주가 유망하며, 최근에는 면화의 생산지로 유명한 차코주와 포르모사주의 동부 지역이 각광받고 있다. 파라나강과 파라과이강이 합쳐지는 지점에 레시스펜시아항이 있는데, 이 항구는 지금까지 면화 수출항으로 유명하였는데 1997년부터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수출항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옥수수과 소맥 그리고 대두는 팜파스 지역이 주 생산지이고 또한 육로 및 해상운송이 생산지를 중심으로 잘 발달되어 있어, 이 지역과의 협력이 우선되어야겠다.

펄프용 나무를 위한 조림은 미시오네로스주가 유망하겠으며, 면화는 차코주, 포도 생산 및 포도주는 멘도사주, 양모는 파타고니아주, 사과는 네우켄주와 리오 네그로주가 협력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협력 가능 지역이나 협력 가능 분야는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음으로 고정 개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유동 개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분명한 것은 아르헨티나는 우리 나라와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최적 국가임에는 틀림없으나, 향후 경제협력은 '국가 이기주의적인 경제협력 모델'이 아닌 '호혜적 경제협력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⁹⁾.

농업 분야에서의 호혜적 경제 모델이란 아르헨티나는 다가오는 21세기

29) 동아일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한국 기업 진출 적신호가 켜졌다고 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건실한 투자 노력보다는 일과성인 한건주의 물량 주위에 집착 한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뢰성 있는 투자는 호혜주의적 입장에서 장기투자전략이 세워져야 한다고 일침을 놓고 있다. 동아일보, 1996. 8. 12.

에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3만 2천명에 달하는 동포가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고, 특히 1.5세 내지 2세들은 그 지위가 수직 상승하고 있어 우리 나라만의 경제적인 이해를 도모하지 않고,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한 농산물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은 물론이고 농업 생산성의 제고 및 농촌 사회의 발달을 위한 교육 및 농업 기술 개발협력이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금 협력 등의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말한다.

또한 해외농업협력개발에는 [환경보전과 지속적 농업개발]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진출이 환경 파괴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세계평화 유지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의 대아르헨티나 진출은 경제 실리만 앞세워서 안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남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최근 [남남협력]지원을 약속했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한 칠레에는 대규모 엔 차관을 약속했다. 한마디로 경제적 실리보다는 [파이프라인]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의 대아르헨티나 진출도 상대국의 만족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우리도 경제 실리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원이 아르헨티나 경제의 근간 즉 농업과 농촌 사회의 발전에도 미치어 [같이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원칙이 세워져야겠다.

제 8 장

요약 및 결론

세계 식량 사정의 악화와 수급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농산물 해외 의존도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옥수수, 콩, 밀 등의 사료 곡물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통일을 전제로 할 경우 곡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사료 곡물의 생산과 수출에 있어 세계적인 국가이므로 향후 북미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에서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현지의 농업 자원과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제2장에서 작물별로 세계 시장과 아르헨티나 농업의 비중을 다루고, 제3장과 제4장, 제5장에서 아르헨티나 농업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여 향후 우리의 협력 대상국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로서는 기초 식량과 여타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도입선의 다변화 차원에서 아르헨티나와의 국제교류 및 협력 확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제7장에서는 농업 부문에 있어서의 대아르헨티나 협력의 필요성을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협력 가능성을 협력가능 분야와 협력가능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아르헨티나의 농업은 세계경제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또한 주요 농산물의 국제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발전 일로에 있는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농업 부문의 개선은 경제 안정과 개혁을 전실히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호기를 과거의 경우에서처럼 단기적인 정치적 기회로 인식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증가한 수입원은 소비보다는 가장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가 되어 다양한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겠다.

더불어 아르헨티나와의 농업 협력은 생산 시기의 조절로 우리 농산물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 나라와 아르헨티나간의 농업 협력은 농장 운영의 실패와 농업 이민정책의 실패로 인해 장래의 농업 협력시는 보다 세밀한 지역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현재도 곡물 순수출국이지만,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잠재력의 개발로 농업 부문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과 연구 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제 해외농업협력개발 혹은 투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대아르헨티나 농업 협력은 우리 나라의 식량 안보를 확고히 할 뿐더러 세계 식량의 수급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 상대국의 기본 경제를 굳건히 하는 데에 이바지함으로써 상대국에서의 경제적 지위 역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 나라의 공산품 수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양국간의 농업 협력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농업의 세계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둘째, 우리의 선진 농업 기술과 아르헨티나 농업과의 교류는 공동의 세계 농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는 것이 되고 셋째, 국내 식량 수급 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협력 내용도 유통, 가공, 기술 연구, 생산성 증대, 농촌 개발

등 상대국의 다양한 선호에 적극 대응한다면 여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진출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일본인의 해외이주」, 1986. 5.
- 김경중, 「한국의 경제지표」, 매일경제신문사, 1993년. 2판.
- 김원호, 「중남미의 신경제질서와 우리의 경제협력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4.
- 김웅채, 「국제농업개발기금」, 농림수산부, 1996. 7.
- 농림부 국제농업국, 「'96상반기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1996. 8.
- 농림수산물정보센터부설해외농업연구원, 「한국과 중남미국가간 농산물교역 증대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제4집, 199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기업환경,” 「지역경제」, 제4권 제10호, 1995. 10.
- 세계축산정보, 1996. 8.
- 얏따마우까 농장개발 조사단, 「얏따마우까 농장개발 조사 결과 보고」, 1996. 7. 3.
- FAO 한국협회, 「세계식량농업백서1995」, 1995.
- 왕인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새로운 기본방향,” 「농촌사회」, 제5집, 한국농촌사회학회, 1995.
- 외교안보연구원, 한·중남미 협력방안, 1996. 8.
- 이구홍, 「한국이민사」, 중앙신서, 1979.
- 이창호,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식량기지화를 위한 건의,” 페이퍼, 1995. 11.
- 재정경제원, 「경제교육종합교재」, 1996. 6.
- 전경수,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 「이베로 아메리카연구」, 서울대 스페

- 인중남미연구소, 1990.
- 제일경제연구소, “아르헨티나의 경제현황과 투자환경,” 「월간제일경제연구」, 1995. 10.
- 최윤국, 「한국에서 발간된 스페인 중남미 관련 문헌 목록집」, 한국 문화사, 1995.
-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해외협력확대방안」, 1982.
- 國際農林業協力情報, 國際協力事業 運營審議會 第23回農林業部會, Vol.19. No.2, 1996.
- 農林水産技術情報協會, 「世界の米と日本の米」, 平成 8년.
- アジア經濟研究所, アルゼンチンにおける借地法成立の背景, 1983.
- 外務省 經濟協力局, 我が國の政府開發援助, ODA白書 下卷, 1995.
- 全國食糧振興會, 世界のコメ統計, 1996.
- Alemann, Roberto T. Breve Historia de la Política Económica Argentina 1500-1989, Ed. Heliasta, 1992.
- Barsky, Osvaldo 외, La Agricultura Pampeana. Transformaciones Productivas y Sociales, FCE.
- Bolsa de Cereales, Número Estadístico 1993/94. Argentina, 1995.
- Cavallo, Domingo, Agriculture and Economic Growth in an Open Economy: the Case of Argentina,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1982.
- De Obschatko, Edith, Argentina: agricultura, integración y crecimiento, 1992.
- Instituto Interamericano de Cooperación para la Agricultura. ECLAC(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996.
- FAO, Production Yearbook, 1995.
- FAO. Trade Yearbook. 1995.

Fundación Mediterránea, Newsletter, 각월호.

Horacio Dalmau, Héctor, El País de los Ríos Muertos. Espacio Ed, 1995.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1995 Anuario Estadístico de la República Argentina, 1995.

Instituto Nacional de Semillas, Anuario 1994. MEOSP. Argentina, 1995.

INTA, Argentina its Agriculture and INTA. 1994.

INTA, Memoria Institucional INTA, 1994, 1996.

INTA Santiago del Estero, Sistema de Información Económica, 1995. 12.

Islam, Nural "Population And Food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0, Washington D.C, 1995.

Mccalla, Alex F, Agriculture and Food Needs to 2025: Why we should be concerned, the World Bank, 1995.

Ministerio de Economía y Obras y Servicios Públicos(MEOSP), Estadísticas Agropecuarias y Pesqueras 1995, Argentina, 1996.

MEOSP, Secretaría de Programación Económica, Argentina: Economic Reforms and results: 1989-1993 & the Growth in Argentina 1994-1996, 1995.

MEOSP, Secretaría de Programación Económica, Argentina en Crecimiento 1995-1999. Programación Regional, 1996.

MEOSP, Secretaría de Programación Económica, Argentina en Crecimiento 1995-1999, Programación Sectorial, 1996.

MEOSP, Secretaría de Programación Económica, Argentina en Crecimiento 1995~1999, Programas de Inversión. II, 1996.

- MEOSP, Secretaría de Programación Económica, Argentina en Crecimiento 1995-1999, Programas de Inversión. III, 1996.
- MEOSP, Secretaría de Programación Económica, Argentina en Crecimiento 1995-1999, Proyecciones Macroeconómicas, 1996.
- MEOSP, Secretaría de Programación Económica, Argentina: un país para invertir y crecer. Argentina, 1995.
- MEOSP, Secretaría de Programación Económica, Economic Report. Second Quarter, 1996.
- MEOSP, Subsecretaría de Inversiones, Compendium para Inversores Extranjeros, 1995. 12.
- MEOSP, Undersecretary, Argentine Investment Update, 1995.
- Paz Silva, Luis J, Perusearch, CGIAR. the World Bank, 1986.
- PECC, Secretaría de Comercio e Inversiones, Informe sobre la Participación Argentina en el Foro de Agricultura y Alimentos. Beijing, 1996.
- SAGyP, Boletín de Precios, Tendencias, Rentabilidad y Comercio Forestal. No 9, 1996.
- SAGyP, Corrientes: Información Básica, 1994.
- SAGyP, Estadísticas Agropecuarias y Pesqueras 1994, 1995.
- SAGyP, MERCOSUR Agropecuario. No 1, 1995.
- SAGyP, MERCOSUR Agropecuario. No 2, 1995.
- Santos, Eduardo. A, La Internacionalización de la Producción Agro-Alimentaria y el Comercio Agrícola Mundial. Grupo Editor Latinoamericano, 1992.
- SAPyA, Cambios con Impacto. 2ed, 1996.

SAPyA, Estimaciones Agrícolas. 2.2, 1996.

SAPyA, Estimaciones Agrícolas. 4.26, 1996.

SIIAP, 내부자료, 1996.

Stuart, Miriam, "Much Room for Growth in Latin America's Food Expenditures and Consumption," Food Consumption Throughout the Western Hemisphere. Jan.-Apr, 1994.

Sturzenegger, Adolfo, Trade, Exchange Rate, and Agricultural Pricing Policies in Argentina, World Bank and the CGIAR Centers, a Study of Their Colaboration in Agricultural Re, 1990.

USDA. FAS, August, Production Estimates and Crop Assessment Div, 1995.

USDA. FAS, October, Production Estimates and Crop Assessment Div. 1995.

빈

면

연구보고 R349

아르헨티나의 농업 현황과 협력 가능성

적은날 1996. 12. 펴낸날 1996. 12.

발행인 박 상 우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1310 - 71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적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5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